발 간 등 록 번 호
11-1300-000069-10

대한사람 대한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병무청

대한사람
대한으로

대한사람 대한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병무청

선배들의 병영체험담이 밝은 등불이 되길 기대하며

안녕하십니까?
병무청장 기찬수 입니다.

최근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상황과 북한의 핵위협 등 끊임없는 도발은 그 어느 때보다 빈틈없는 국가 안보태세의 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흔히 병역은 누구나 이행해야 할 신성한 의무이자 국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국민의 소중한 권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병역이 의무를 넘어 권리라는 말에는 선뜻 공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병역을 소극적인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리로 이행하는 진짜 사나이들의 이야기가 있어 작금의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더없이 든든하게 합니다.

국외에서 출생했거나 어려서부터 부모와 같이 국외로 이주하여 거주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등으로 입영의무가 없는 사람이 낯선 조국을 위해, 대한사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자원하여 군복무를 함으로써 병역을 소중한 자아실현의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질병 사유로

보충역이나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신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 모두 병역을 소극적인 의무가 아닌, 인생의 소중한 의미를 찾는 권리로 승화시킨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들이라 할 것입니다.

이번에 발간하게 된 「2017 대한사람 대한으로」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에 걸쳐 영주

권 및 질병치유 병사 등'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공모에 응모한 작품들로 진솔하고 생동감 넘치는 28편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 중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다 선뜻 입영을 결정한 어느 영주권자는, 입영을 통해 전우애를 느끼며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또, 과체중과 질병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이 아니었지만, 신체적 한계에 도전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어느 질병 치유자는 후회 없는 선택이었고, 함께여서 더 가치 있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자원병역이행은 우리사회에 더욱 더 소중한 가치로 빛난다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토방위에 수고하고 있는 장병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몸소 체험한 소중한 선배들의 경험담이 병역이행을 앞둔 후배들에게 밝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병무청은'병역이행이 곧 정의'라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이들로 하여금 더욱 더 자긍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과 함께 병역의 의미를 나누고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자원병역이행 수기에 응모해준 병사들, 귀한 아들을 기꺼이 조국에 맡겨준 장병 가족들, 그리고 부대 관계관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8월

기찬수

병무청장 기 찬 수

2017 대한사람 대한으로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자랑스러운 자원 병역이행 병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국방위원장 김영우입니다.

먼저, 자원 입영을 선택한 자랑스러운 청춘들의 군 체험수기 책자「2017 대한사람 대한으로」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나날이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주변정세와 안보 환경으로 국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이 시기에, 자원 병역이행을 선택한 병사들의 소중한 글을 접하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직도 일각에서는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신체를 손상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국적변경 등의 편법을 동원하여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기도 하지만, 대다수 대한의 젊은이들은 단체생활을 통해 인내와 배려를 배우고 전우애와 애국심을 느끼며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계속 거주하여 우리말이 서툰 국외이주자가 조국을 위해 스스로 병역이행을 선택하거나, 질병이 있어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을 치유하여 병역이행의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은 참으로 대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수기집 발간이 자원 병역이행 병사들의 자긍심을 드높이고, 나아가 우리사회에

병역의무 자진이행 풍토를 확산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막 청춘의 문턱에 진입한 아들에게 2년여의 군 생활이 먼 훗날 '조국사랑', '청춘예찬'이라는 단어로 인생의 근사한 장면을 선사할 것이라는 어느 영주권 병사 어머니의 이야기처럼, 자원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모범 병사들이 있어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희망차다 할 것입니다.

이처럼 병역이행을 피할 수 없는 의무나 시간낭비가 아닌 청춘의 특권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중요한 전기(轉機)로 승화시키고 있는 대한의 젊은이들에게 국회 국방위원회를 대표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며, 그 어느 조직보다 '함께'의 가치와 교훈을 잘 배울 수 있는 군대를 통해 젊은이들이 보다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진정한 용기와 도전정신은 국민들 마음 속에 깊은 울림으로 전해져 우리 사회에 공정한 병역문화가 정착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정의롭고 공정한 병무행정 구현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 계신 기찬수 병무청장님을 비롯한 병무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7년 8월 김영우

국방위원장 **김 영 우**

목 차 CONTENTS

04 발간사 병 무 청 장 | 기찬수 |
06 격려사 국방위원장 | 김영우 |
10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11 질병치유·학력변동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산·문·부·문

영주권 등 국외이주 병사

최우수상
14 내 마음속 살아있는 대한민국 | 오승주 |

우 수 상
20 그리웠던 대한민국에서 후회 없는 '한' 결정 | 안순모 |
27 고양이 병사에게 | 조정란(원민식 모) |

장 려 상
34 검은머리 외국인이자 대한의 건아 | 김도연 |
40 나에게 군대란 | 박창민 |
47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 임동수 |
53 나의 조국은 내가 지킨다 | 양원모 |

입 선
60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군대를 간다 | 손 윤 |
65 모범장병 | 채성필 |
72 소중함을 깨달은 시간들 | 김지훈 |
77 어느 한 자리도 소홀한 자리는 없습니다 | 김현우 |
81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 김현우 |
87 군대에서 배우는 것들 | 송재관 |
91 군대는 내게 선물이었다 | 공원준 |
99 군대라는 또 다른 학교 | 김수현 |
105 나는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 | 최재성 |
111 나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다 | 하광희 |

산·문·부·문

질병치유·학력변동 병사

최우수상 118 씩씩이 | 지준교 |

우수상 125 그곳에 있던 자 그곳을 잊지 못하고
그곳에 없던 자 그곳을 알지 못한다 | 이충환 |

장려상 131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택 | 이영찬 |
136 덕기의 병영일기 | 박덕기 |
140 나는 그 날 누구보다 행복했다 | 조무근 |
144 나를 따라다닌 수식어 | 정유일 |

입 선 148 나 자신에게 당당해지도록 | 김민재 |
153 작은 용기만 있다면 | 정서호 |
159 굿 초이스! | 주현준 |

만·화·부·문

장려상 166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 선윤빈 |
170 나의 존재를 찾아서 | 나일주 |

희망메시지 176 선임이 전하는 희망메시지 15선

심사평 182 한국문인협회 _ 이광복, 최성배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국외이주 등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이 자진 귀국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영주권 유지를 위한 국외 출국을 보장하는 등 안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군적응 프로그램 운영(분기1회), 국외항공운임 지원 등 우대

신청대상

- 영주권을 얻은 사람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포함)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 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 본인 복수국적인 사람(10년 이상 단독으로 국외 거주한 경우도 가능)
  - 부모와 같이 국외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구비서류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
- 영주권 사본 등 체재자격증명서

  (단,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자는 체재자격증명서 제출 생략)

신청기관

-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등

  * 병무청 콜센터 ☎ 1588-9090

입영자를 위한 편의 제공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가능
- 영주권 유지를 위한 정기휴가기간 중 이주국가 방문 시 왕복 항공운임 지원
  - 전역 후 이주국가로 출국 시 귀가여비 지원

질병치유·학력변동 사유 병역처분변경원 제도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치유하였거나, 고등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으로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이 학력을 상향하여 현역병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판정검사 등을 거쳐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처분을 변경해 주는 제도

신청대상

- 질병또는 심신장애를 치유하였거나 학력을 상향하여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

 * 신장·체중 사유 4급자로 체중 감량자 포함

구비서류

- 병역처분변경원서(병역복무 변경 면제신청서)
- 질병치유, 학력변동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진단서 또는 학력증명서 등

 (단, 자체의료장비로 확인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신청기관

- 병무청 홈페이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 병무청 콜센터 ☎ 1588-9090

병역판정검사

- 관할 지방청 병역판정검사장
- 병역판정검사 당일 질병치유 증빙자료 지참

병역처분

- 병역판정검사, 학력상향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

 * 보충역 → 현역

 * 전시근로역 → 현역 또는 보충역

대한사람 대한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산문부문
영주권 등 국외이주 병사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 자원입대한 병사들의 계급은 생활 수기 응모 당시의 계급임을 밝힙니다.

내 마음 속 살아있는 대한민국

수도군단 작전참모처 작전계획과
일병 오 승 주

"너는 도대체 군대 왜 왔냐"
입영을 한 그날부터 일병 4호봉이 된 지금까지 거의 한 달에 한번 꼴로 선후임들과 심지어는 간부님들께 수도 없이 듣고 있는 말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글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사실 왜 군대에 오기로 결정을 했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21살 여름 다시 수험생이 되어 어학병 시험준비를 한 것도, 잘 다니고 있던 학교에 휴학계를 내고 한국에 다시 들어온 것도, 안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는 주변의 조언에도 굳이 입영신청을 한 것은 딱히 이유라고 할 것이 없었다. 어렸을 때부터 병역이행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를 키워준 나라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이런 말을 하기에 나는 아직 철이 덜 들었고,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한다는 것조차도 나에겐 아직 낯 부끄러운 일이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까지 남들보다 고생을 덜했고, 또 매우 최근에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미국인이라기 보다는 미국에서 산 경험이 조금 있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라면 누구든지 병역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봤을 것이다. 청소년기, 아니면 유소년기부터 어떻게든 군대에 오는 것을 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구상해 봤다는 걸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은 다 알 것이다. 내가 그런 마음가짐을 갖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건 거짓말이다. 초등학생시절부터 왜 나는 주변 친구들처럼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지 부모님께 어리석은 원망을 했었다. 그러나, 정작 우연치 않게 나에게 선택권이 주어지니 나는 입영을 택했다. 후회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나는 입영한 날부터 매일매일 후회하고 있다고 대답 한다. 근무가 고된 작전병 업무와 작전상황 근무를 한 달에 열 번씩 하다 보니 잠시 바람 쐬러 나갈 때 떠오르는 해를 보며 울 뻔 한 적도 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었다면 기분이 좋은 적도 있었다.

입영을 하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일 뿌듯했던 기억을 꼽으라면 선임들과 같이 범계역 주변으로 외출을 나갔을 때의 일이다. 식사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 하던 우리에게 어느 노인분이 말을 걸었다.

“군인 아저씨, 우리 손자가 할 말이 있대요.”

그 할머님의 뒤를 보니 예닐곱 살 먹은 듯 한 꼬마 아이가 서 있었다.

그 아이는 내 손을 잡더니 “삼촌, 나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 귀여운 꼬마를 보자 나의 어릴 적 모습이 생각이 났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기억은 남양주 보건소 관사에서 살던 때였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공중보건의로 병역을 이행하셨으며 근무가 끝나자 예비군 육군 대위로 편성되셨다. 그 후, 우리 가족은 아버지, 어머니가 근무하시던 병원과 가까운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으로 이사를 갔다. 우리집 20㎞ 이내엔 육군사관학교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군인을 대하는 게 익숙했다. 생도들과 간부들, 그곳에서 근무했던 병사들과 대위 군복을 입으시고 예비군훈련에 참가하시는 아버지를 통해 ‘군대는 당연히 가야하는 곳’ 이라는 인식이 나의 머리속에 들어가 있었다. 지금 와 생

각해보니 내가 그곳에 살던 시절에 임관을 하신 분들은 벌써 대위, 소령급 간부가 되셨거나 이미 전역을 하신지 오래일 것 같다. 유치원 시절 위문편지를 썼던 군인 아저씨들이 어느새 형들이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친구들이 어느새 군인이 되어 있었다. 나에게 군대란 이렇게 먼 미래가 아닌 바로 코앞에 다가온 인생의 위기이자 기회였다.

어학병 시험을 위해서 여름 내내 준비를 한 후 국방어학원이 있는 장호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나는 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해서 군대를 가야하나?' 라는 질문을 던졌지만 그때도 명확한 답을 내리진 못했다

아마도 나는 군대에 대한 나의 본능적인 이끌림에 대한 답을 찾으러 이곳에 왔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좋아하던 콜라, 휴대폰 그리고 옷가지까지 다 빼앗기고 나서야 나는 모든 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내 것이라고는 양말 한 짝도 용납되지 않던 훈련소에서 일상의 소중함을 배웠고, 지휘통제실에서 뜬눈으로 지낸 밤들은 내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하고 해답을 내리는 시간이 되었다. 난생 처음 내 필요에 의해 공부를 시작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부대 내에서 나는 많은 것들을 갈망하였지만 그 중 가장 원하고 그리워한 것은 바로 '창작의 기쁨' 이었다.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영상 제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 입영 전까지도 TV영화학을 전공하고 인디뮤지션들의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며 나의 꿈을 좇고 있었다. 음악을 만드는 것이 취미였으며 원래 입영을 한다면 정훈병이 되고 싶었다. 허나 대학 선배들의 권유와 영어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어학병에 도전을 하게 되었지만 기대와는 달리 나는 영상도, 영어도 작업할 기회가 흔치 않은 작전병이 되었다. 처음에는 좌절과 절망에 빠져 업무 인수를 받고 하루하루를 우울하게 보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니 이런 제한들이 나의 꿈을 더욱 키워주었다고 말하고 싶다.

새벽, 한두 줄로 시작한 글들이 소설로, 기사로, 또 영화 시나리오로 커나가고 있었다. 창작에 대한 갈증은 첫 휴가를 나갔을 때도 작업실에 앉아서 밤새 녹음을 하게 만들었다.

군대에서 얻는 건 사람밖에 없다고 누군가 나에게 말해준 적이 있다. 나에게 이 말은 추상적인 명언들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던 선임들이 전역을 하던 날이면 짧은 기간 동안 그들과 너무나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음에 감사했다. 시간이 빨리 지나길 바랐지만 그들이 떠나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나 슬펐다.

그러나 시작이 있으면 끝맺음이 있다는 옛 말도 있듯이 이런 지나간 시간들은 나에게 왜 군필자들이 군대에 대한 추억을 끊임없이 늘어놓게 되는지 알게 해주었다. 원래도 미래 걱정이 많은 나였지만 시간이 날 때마다 아까운 시간을 쪼개 윤곽이 뚜렷한 인생 설계를 시작했고 나보다 먼저 인생을 경험한 영관급 간부님들과 근무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앞으로 나의 20년은 어떨지 상상을 해보았다.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건 친구들의 군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나는 간부님들을 단순히 상관으로 보지 않고 인생 선배 또는 스승님처럼 모실 수 있었다.

그 결과 간부님들 사이에서 나는 업무상 실수가 많아도 같이 근무하기에 재미있는 병사가 되었고 몇몇 분들은 내가 전투복을 입고 있지 않아도 마주치면 내 경례를 받아주고 웃으면서 안부를 물어주셨다.

정말 신기하게도 군대에 대해 알아가는 기쁨이 나에게 너무나도 크다.

군 구조에 대해 인트라넷을 통해 배우고, 각 사단 및 군단, 사령부들의 위치, 역사, 기능과 부대마크에 대해 배우는 것도 나의 취미 중 하나가 되었으며 심지어 휴가를 나가서도 인터넷을 통해 군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읽거나 정보들을 찾아보게 되었다.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데 이런 군대에 대한 나의 애증 관계는 내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될 것 같다.

군단장님의 연혁을 보다 문득 32사단장으로 근무하셨다는 걸 읽고 32사단의 홈페이지에 홀린 듯이 이끌려 역대 지휘관들을 찾아보았다. 그곳에서 나는 뜻밖의 반가운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아버지의 이모부이자 27대 사단장이었던 분을 사진으로 볼 수 있었다. 근무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 나는 할머님께 전화를 드렸고, 근무취침도 포기하고 그 분이 어떤 분인지 여쭈어 보았다. 자신의 근무병과 운전병을 '아들'이라 부르셨다던 이모할아버님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가 군대에 온 이유 중 하나를 알 수 있었다. 할머니 손에서 자란 나는 무엇보다도 정에 약한 사람이었다. "정" 이라는 개념은 내가 유학을 하면서 느끼지 못한 것들 중 하나였다. 나는 그것에 이끌려 군에 온 것일 수도 있다. 본인의 병사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누구보다 병사를 챙기고 대신 싸워주셨던 전 지휘통제반장님은 군대란 조직의 진정한 멋을 느끼게 해주셨다. 영주권 연장 관련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고되고 힘든 근무의 고충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던 본부대장님은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난 내 자신이 멋지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서 '남자다움'과 '멋짐'에 대한 동경이 크다. 훈련소에서부터 만난 모든 군인 개개인이 멋있다고 생각한 적이 한번 이상쯤은 있다. 훈련소에서 나에게 군 생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 해주었던 분대장님부터, 빨래할 시간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본인이 대신 빨래를 해결해 주겠다고 했던 선임, 전입 온 다음날 이곳저곳 데려가 주시면서 우리 부대에 대해 알려주었던 선임, 많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곁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던 내 맞선임까지 내 군생활의 기초를 다져준 선임들이 있었기에 나는 군 생활을 잘 해나가고 있다.

나도 믿고 좋아하기 어려운 내 자신을 따라와 주는 후임들도 있기에 하루하루가 보람차다.

내가 쓴 글을 읽고 나니 마치 군 생활이 끝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여태껏 지내온 것

에 비해 앞으로 남은 군 생활은 멀고도 험하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내가 왜 군대에 오기로 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명쾌하게 못 내린 것 같다.

다만, 이 짧은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었는지, 또 그 기간 동안 어떤 것을 얻었는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이제 대충은 실마리를 잡기 시작했으니 더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으며 나는 나아가려 한다. 입영한 날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해답을 바라고 있지도, 기대하고 있지도 않다.

그저 떠내려가듯이 나아가다 언젠가는 내가 나라에 희생하고 있는 이 청춘이 보람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나라에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웠던 대한민국에서 후회 없는 '한' 결정

2군단 102정보통신단 722통신대대
상병 안 순 모

Korea. 대한민국. 나의 고향, 나의 집, 나의 소속인 한국이라는 나라는 몇 년 전만 해도 가깝고도 멀기만 했던 나라였다.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친근하고 익숙한 “한국어”가 재외국민인 나에게는 어렵고 낯설기만 한 언어였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중남미의 과테말라에서 살았다. 누가 들어도 “어디 라고?”라는 물음이 먼저 나올 정도로 생소한 나라이다. 나는 그런 과테말라에서 9년 정도의 긴 시간을 보냈다. 그 후 2016년 3월 28일, 내 나이 23살에 한국에서 군 입대라는 내 인생 후회 없는 한 결정을 하였다.

내가 과테말라에 있을 때, 2013년 어느 봄 한국에서 할머니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순모야, 어떡하니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나왔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받기 싫어하는 우편물 중 하나일 텐데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나는 그냥 무덤덤하게 내 일이 아닌 듯 할머니에게 전화너머로 말씀드렸다. “할머니 그냥 버려주세요 저한테는 상관없는 우편물이에요.” 그 때는 몰랐다. 저 우편물이 아주 상관있는 편지였단 걸. 그렇게 몇 개월 뒤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다. 한국, 미국, 과테

말라 어느 곳으로 가야하는지 나는 아주 신중히 고민했다. 하지만 그때 아버지는 어차피 과테말라로 돌아올 거면 과테말라에서 대학을 다니던지, 아니면 한국에 가서 한국문화와 한국말을 배워오라고 하셨다. 나도 그 당시 아버지와 같은 생각 이었기에 아버지 말씀에 따르기로 했다. 그 다음날 나는 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다.

나는 한국의 대학교에 입학했고 그 누구보다 신나고 알차게 대학생활을 했다.

그러다 문득 사실 하나를 깨달았다. 1학년 2학기를 시작으로 남자 동기들이 한명씩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2학년이 시작되자 모든 남자 동기들이 사라졌다. 인형 뽑기를 하듯 누가 내 동기들을 학교에서 군대라는 곳으로 이동시켜 놓은 것이다. 어차피 나는 과테말라로 돌아갈 생각이었기에 군대에 안 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속편한 마음으로 학교생활을 하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속편한 게 아니었다. 군대 안 간다고 자랑하고 입영한 동기들 놀리는 맛으로 살면서 웃는 나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불안했다. “어라? 나만 군대 안가네. 내가 저 친구들보다 못한 점은 없는데.” 이 생각을 반복하면서 내 자존심은 바닥을 쳤고 속은 타들어만 갔다. 결국 상황이 역전 되었다. 전에는 내가 군대 안 간다고 자랑하면서 놀렸지만 이제는 동기들이 나만 군대 안 간다고 놀려댔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어차피 대한민국 남자로 태어나 딱 한번 가는 군대 나라고 못 갈 듯 싶으냐. 나도 충분히 이겨내고 당당하게 전역해서 어깨 올라간 재외국민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입영을 결정했다.

2016년 3월 28일. 내 인생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다. 나는 난생 처음 삭발을 하고 논산훈련소에 들어섰다. 이리 봐도 빡빡머리 저리 봐도 빡빡머리, 훈련소에 들어가서 처음 본 풍경이었다. 오후 2시가 되자 나는 가족들과 인사를 하고 연병장으로 내려갔다. 조교들이 아주 착하게 웃으면서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라며 상냥한 멘트와 제스처로 나를 한

부대에 넣어주었다. 입소식을 하면서 나와 같이 입영한 친구들이 어색하고 흐트러진 자세로 부모님, 친구, 애인에게 경례를 하였고 우리가 이동하면서 울음소리와 이름들이 울려 퍼졌다. 우리는 입영심사대에 도착하였고 그렇게나 상냥했던 조교들이 하나같이 전부다 샤우팅을 하기 시작했다. 조교들의 떠날갈 듯한 목소리에 나의 멘탈도 같이 떠나가 버렸다.

논산훈련소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내 인생에서 가장 필요했던 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물론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포함이다. 내 생각에는 훈련소에서 군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운다고 말하고 싶다. 끈기, 인내, 참을성, 복종, 배려 등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을 근 1달 동안 훈련소에서 배우고 깨우친다. 대학생 때 식욕이 왕성했던 나는 70kg에서 87kg으로 체중이 늘었고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이 찐 상태로 입영을 하였다. 그러다 구보와 행군을 통해 살이 빠졌고, 평생 멸치 소리만 듣던 나는 처음으로 어깨가 벌어졌다는 말을 훈련소에서 들었다. 내 생각이지만, 사람은 최소 한번 단체생활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된다. 물론 군 생활 중 훈련소 생활은 한 달 밖에 되지 않지만, 그 한 달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자신의 군 생활이 달라진다고 말해주고 싶다.

2016년 5월 4일, 대망의 수료식 날이었다. 가족을 볼 생각에 설렜다. 엄마는 과테말라에서 가게 때문에 못 오시고 아버지만 출장을 내 수료식 날에 맞추어 귀국하셨다. 훈련소 동기들한테는 시크한 듯 무덤덤하게 신난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수료식 때 아버지를 보면 가슴이 벅차리라 생각은 했었지만 울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수료식 행사가 시작 되었고 나는 차렷 자세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으며 눈동자만 이리저리 굴려, 보고 싶은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리저리 둘러봐도 아버지는 보이지 않으셨다. '아 뒤에 계시겠구나' 생각하며 행사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행사가 끝나자 부모님들이

아들들을 찾아갔고 나도 가만히 아버지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다. 그러자 세 발자국 앞에서 아버지가 나타나시더니 내가 말 한마디 하기도 전에 성큼성큼 오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셨다. 안아 주고 등을 쓰다듬어 주시면서 계속 "고생했다 미안하다" 라는 말을 반복하셨다. 뭐가 그리 미안하셨는지, 내가 원해서 자원입대를 한 것인데 아버지는 그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가 안아 주시자마자 나는 아주 서럽게 울었다. 그깟 훈련 받는 게 뭐 힘들었다고 나는 세상 모든 게 억울한 듯 아버지한테 안기며 대성통곡을 했다. 내 인생 초등학교 이후로 아버지한테 처음 안기는 순간이었다. 훈련소 한 달이 뭐가 그렇게 길다고 징징댔으며, 한 달 먹고 싶은 것 안 먹는다고 어찌 그리 죽을 표정 이었는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좋은 추억인 것 같다.

2016년 5월 9일, 나는 2군단 102정보통신단에 배치되었다. 중대에 오자마자 선임 분들이 모두 같이 전입 온 신병 2명과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세상 모든 관심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 같았고 무서웠다. 우리는 생활관에 배치되었고 소대 선임 분들이 한 명씩 찾아와 인사를 하면서 악수를 건넸다. 요즘은 선진 병영이라고 선임들이 이등병들한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그래도 눈치껏 선착순 부르면 뛰어가고 나서서 선임 일도 같이하며 선임들이랑 친해졌다. 이등병은 힘든 것이 당연한 것이다. 처음 들어와서 편하게 있으려고 아무것도 안하면 나중에 후임이 와도 분명 인정을 못 받을 것이다. 아무리 선진 병영이지만 선착순으로 뛰어가 일하면서 중대 분위기도 알아가고 선임들 얼굴 익히면서 친해지는게 올바른 이등병이라고 생각한다. 당연히 구타나 가혹행위가 있으면 보고를 하여 조치를 받는 게 맞다.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이등병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된다.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시키는 것만 하면 선임들에게 아주 예쁨 받는 이등병이 될 것이다. 정말 진지한 Tip이다.

전입 후 3주 뒤 쯤 내게 첫 야외 훈련이 찾아왔다. 2시간 거리에 있는 야전으로 나가 3박4

일 훈련을 받았다. 나는 통신병이다 보니 훈련기간 동안 망 개통이 최우선 목표였다. 선임들 모두 작계지역에 도착하자마자 통신장비들을 내려 바로 통신망 개통에 들어갔다. 장난 끼 가득했던 선임들도 훈련 기간만큼은 진지하게 훈련에 임했다. 서로서로 말 안 해도 눈빛으로 선임들은 움직였다. 처음으로 군인이 멋있단 생각이 들었다. 그 때는 잘 몰랐지만 한 무선망이 개통이 안 되어 선임들이 몇 시간 동안 일한 기억이 난다. 저녁시간이 되었는데도 밥 먹기를 거절하며 먼저 망 개통해야 된다고 막내들 먼저 먹으라고 하였다. 그 당시에는 막내들 배려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 내가 선임이 되어서 생각해보니 선임들이 빠르게 작전을 완료하는게 수월해서였다. 선임들은 새벽까지 일 해서 결국 망 개통에 성공했다. 미션 완료 후 선임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모습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멋있었다. 또 다른 한 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다. 내가 선임이 되어서도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당시 이 훈련을 하면서 빨리 내 주특기를 배워 훈련 나가서 도움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는 일 없이 훈련 내내 구경만 했던 내 자신이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 열심히 주특기 관련 공부를 했다. 주특기 교범도 열심히 읽고, 개인정비 시간에도 몇몇 선임들을 찾아가 내 주특기를 배웠다. 내가 일병일 때 정말 열심히 배우고 준비했던, 대망의 TOP노드가 개최 되었다. TOP노드는 여러 통신 소대가 출전해 1시간 이내에 필요한 모든 통신망을 개통하는 것이다. 우리 중대에선 내가 속해있던 소대가 출전하게 되었다. 소대에서 나는 막내였지만 주특기에서는 조장이었다. 한 달 전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훈련했지만 너무 큰 대회라 떨리고 걱정이 되었다. 대회 당일 작계지역에 도착하고 바로 망 개통을 시작했다. 내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고 마음 속으로 “제발 제발 제발” 이라고 애타게 망개통이 성공하길 빌었다. 다른 선임들은 전부 망 개통에 성공했고 나 혼자만 남았다. 나에겐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정말 미친 듯이 움직였다. 결국 나는 마지막으

로 전원을 켰고 바로 종료 휘슬이 울렸다.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선임들 얼굴 보기가 미안해 고개 숙이며 정렬해 있었고 선임들이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다고 말해주었다. 아무 말도 못하며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평가관이 다행히 1시간 이내에 모든 통신망들이 개통되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다. 우리 소대는 신나서 소리 지르고 환호성을 질렀다. 나는 이날 처음으로 성취감이란 걸 느껴봤다. 정말 이 대회는 내게 있어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기억이고 경험이었다.

군대는 참으로 좋은 곳이라 생각한다. 운동, 공부, 독서, 국가자격증, 대학교 학점 등 다양한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해준다. 나는 부대에 와서 양식조리기능사를 준비했다. 군대에서는 필기 시험비도 무료, 교범도 부대 따라 다르겠지만 제공된다. 나는 태어나서 책을 거의 읽어 본 적이 없다. 학교에서 강제로 읽게 하는 책 외에는 내가 직접 책을 구입한 적이 없다. 하지만 군대에서 나는 좋은 습관을 들였다. 매일 시간이 나면 책을 읽는 것이다. 예전의 나에게 책이라면 수면제였지만 지금은 좋은 취미 활동이 되었다. 내가 벌써 구입하고 읽은 책만 해도 30권이 된다. 내 목표는 전역 전까지 50권의 책을 읽는 것이다.

부대에서 누릴 수 있는 제일 좋은 혜택은 운동이다. 남자라면 한번쯤은 좋은 몸을 갖고 싶은 생각을 해봤을 것이다. 군대는 운동하기에 완벽한 곳이다. 군대에서는 매일 2시간씩 전투체육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을 활용해 운동을 하면 된다. 운동기구도 필요한 것은 다 있다. 다행이도 나는 친한 선임중에 스포츠학과인 선임이 있어서 매일 같이 배우면서 운동을 하고 있다. 운동도 이제 욕심이 나서 개인정비시간에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의 군 생활을 정리하자면, 한번쯤은 다녀와야 할 중요하고 필요했던 곳이라 생각한다. 부대에서 나는 단체생활을 통해 인내와 배려를 배웠으며 훈련을 통해 전우애와 성취감을 느꼈다. 일·이병일 때는 간부님들과 선임들에 대한 충성과 복종을 몸에 습관화 하였

고 내가 선임이 되고는 후임들을 통해 리더십을 키웠다. 전투체육을 통해 건강한 몸을, 개인 정비시간 때는 책을 읽어 건강한 뇌를 기르고 있다.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게 되는 곳이 군대이다. 어른들이 매일 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 정말 맞는 말인 것 같다. 군대에서는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으며 사람 보는 눈을 기르게 된다. 나는 대학졸업 후 내가 살던 과테말라로 다시 돌아가 군대를 안 갈 수도 있었지만 내 선택으로 입영을 하였고 전역까지 200일정도 남아있다. 만약 누가 나에게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입영여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난 고민 없이 입영을 선택할 것이다. 만약 누군가 군 입영을 선택하는 상황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나는 당당히 이런 말을 하고 싶다. 한번 사는 인생 군인신분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기 인생을 뒤돌아보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전역 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은 정말 나쁘지 않다.

고양이 병사에게

1군사령부 11정보통신단 일병 원민식의 모
조정란

민식아!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을 꽁냥이(?)는 잘지내고 있니?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헤매다가 네가 머무는 부대에 찾아들어 온 그 고양이는 억세게 운도 좋구나. 바로 너 같은 아이를 만났으니 말이다. 틈틈이 꽁냥이를 보살피며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너를 생각하니 너에게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오늘도 엄마는 버크 라이브러리에서 너에게 보내줄 책을 읽고 있다. 내일 소포를 보내면 아마도 2주일 후에 네가 받아볼 수 있겠구나. 너와 내가 다른 하늘 아래 있게 된 후부터 엄마는 이 도서관에 거의 매일 아침 출근도장을 찍고 있단다. 네가 앉아 공부하던 자리에 앉아 책을 읽노라면 마치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된다. 오늘은 유난히 평화로운 아침이구나. 네가 공부하며 보았을 창문 밖 풍경들이 책을 읽어 내려가던 나의 눈길을 사로잡고 만다.

창문 너머 먹이를 찾아 나무사이를 바삐 오가는 버지니아 붉은 새와 잔디밭을 질주하는 토끼를 보면서 가끔 출몰하는 야생동물들을 사진 찍어 간직하던 네가 생각이 난다. 집 잃은 고양이를 보살피는 너에게 선임들이 고양이 병사라는 닉네임을 붙여 주었다는 지난번 너의 편

지를 보고 동물사랑이 그곳 군대에서도 계속되고 있음에 엄마는 미소를 금치 못하였다. 어느 날 자전거 타고 도서관 가는 길에 커다란 뿔로 맘껏 폼 잡은 숫사슴과 그의 일가족을 만나 그들과 시간 보내느라 너의 본연의 일을 잊어버렸을 너를 생각하며 엄마도 잠시 너와 일심동체가 되어 엄마의 셀폰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아빠를 출근 시킨 후 엄마는 설거지를 바삐 끝내고 도서실에 자리를 잡는다. 그리고 네가 선물로 주었던 노틀담 로그가 새겨진 텀블러에 가득 채워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 그 순간부터 엄마는 마법에 걸리기 시작한다. 책의 세계에 들어서며 너와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책을 읽으며 네게 해주고 싶었던 구절이 나오면 무릎을 치며 줄을 긋고 중요한 부분에는 별을 달아두기도 하고 때로는 책 모퉁이의 여백에 엄마의 마음을 빼곡히 채우기도 한다. 오늘은 문득 책을 통해 너와의 대화로 하루가 시작하는 이 아침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네가 한글 책을 읽을 수 있고 엄마와 한국어로 이렇게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구나.

엄마와 네가 한국을 떠나온 지가 7년이 넘어가는구나. 우리 가족은 4년째 이산가족으로 떨어져 살다가 엄마의 명예퇴직과 동시에 아빠와 형이 살고 있는 미국에서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지. 미국에 살게 된 너는 시차가 적응되기도 전에 동네 아이들과 농구를 같이하고 그 다음날부터 아이들이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 하였을때 형이 신기해 하던 모습이 생각나는구나. 너의 능수능란한 농구 실력 덕분이라고 생각도 해보지만 자신감에 찬 너의 모습에 그들이 이끌리지 않았을까?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에서 시작된 너의 삶은 어쩌면 너에게 어렵고 힘든 도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적극적이고 성실한 너는 7년여의 시간을 알차게 보낸 덕분에 어느덧 네가 원하는 대학의 학생이 되었구나. 네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아빠 엄마는 한 가지 숙제에 당면하게 되었다. 이곳 문화에 잘 적응하는 것도 좋

으나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 그리고 더 나아가 국가관을 확립하는 시간이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1학년 봄방학을 맞이해서 네가 집에 머물게 되었을 때 아빠 엄마는 한국 군입대를 권유하기에 이르렀고 아빠는 그때 말씀하셨지. 한국 군대를 가야 할 이유 중 지구상에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 외에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고...

평소에도 자주 하시던 말씀 기억나니? 아버지는 군대에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을 배웠노라고, 일정한 시간에 기상을 하고, 일어나면 어김없이 침대를 정리하고, 책꽂이에 꽂아도 손색없을 정도로 네모 반듯하게 빨래를 개는 등...그리고 농사를 짓다가 입영한 동기에게 제대로 배운 삽질은 지금도 미국에 살면서 뒷마당에 나무를 심거나 텃밭을 가꾸는데 유용하게 사용하노라고...그리고 아빠는 말씀하신다. 인생의 긴 여정에 젊은 날 군대에서 보낸 2년여의 시간은 결코 시간을 낭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노라고...특히 군대에서 배운 정신은 이민자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어려운 과정들의 큰 버팀목이 되었노라고...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 같구나. 얼마 전 네가 읽고 엄마한테 추천해 주었던 '미움받을 용기' 책 내용 중에 아들러 심리학자가 주장한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주목하라' 는 구절 혹시 기억하니? 바로 이 구절 한마디로 군대에 가야 할 많은 이유를 대신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구절을 몸소 체험하고 훈련시키는 곳이 군대이며 어떠한 한계 상황속에서도 잘 헤쳐 나올 수 있는 정신을 배우는 곳이 군대라고 생각한다.

엄마가 너에게 아직까지 보내지 못한 1년 된 편지가 있단다. 갑작스런 입영 권유에 반발을 하던 너는 부모의 설득에도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학교 기숙사로 돌아가 버렸고 그 뒤로 한참동안 우리 사이에 냉전 상태가 지속 되었었지. 지금 생각해보니 아마도 너에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으리라. 얼마 후 엄마가 집안에서 일하다가 척추 골절상을 입게 되면서 너와 오랜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때부터 서로 소통하기 시작했던 것 같다. 사실 그 무렵 엄마는 너를 설득하기 위한 장문의 편지를 쓰던 중 이었단다. 사고로 인해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어 거의 다 써가던 편지를 마무리 하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어느 날 너로부터 군대에 가겠다는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지. 부치지 못한 편지는 아직도 엄마의 노트에 마무리 되지 못하고 그대로 있단다. 너를 설득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한 편지가 아닌, 단지 그리움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지금이 너무 좋다. 지금 생각해보니 부모의 권유도 있었지만 네가 혼자 생각할 시간을 갖고 스스로 입영 결정을 내리게 된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군 입대를 결정한 후 그 해 여름방학 때 짐을 싸들고 집에 돌아온 네가 엄마 눈엔 많이 슬퍼 보였다. 전날 친구들과 작별의 시간이 쉽지 않았고 특히 친한 친구와 눈물의 작별을 했노라는 너의 말을 듣고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팠단다.

너의 군 입대 결정으로 인한 주변 반응들이 제각각이었지. 어떤 이들에게는 아들에게 한국군 입대를 권유한 우리가 비정상적인 부모로 비춰지는 듯 하여 속상하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대단한 결정이라며 너를 격려해주시기도 했지. 최근에 몇몇 한국인 부모님이 아들의 한국 군 입대를 위한 조언을 우리에게 요청하기도 했고 또 네 친구 중에 한명은 군 입대를 위해 이미 한국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리더구나. 이곳에서 너는 한국 군 입대의 롤모델이 되어가고 있단다.

작년 8월 논산훈련소에서 너와 작별하던 날, 군 생활 잘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미국에 들어가라고 신신당부하던 너를 뒤로 하고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이었다. 엄마는 기사님으로부터 6주 훈련 후 수료식 풍속에 대해서 우연히 듣게 되었다. 그 중 수료식 때 부모가 참석하여 태극기 표찰을 자녀의 오른쪽 어깨에 달아줘야 한다는 그 말에 엄마는 차마 미국행 비

행기에 오르지 못하였지. 태극기 표찰을 어깨에 달아줄 그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릴 네가 눈에 밟혔단다. 6주 후 논산훈련소에서 수료식에 엄마가 나타나자 너는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커다라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2016년 8월 군복에 군화만 신어도 땀이 뒤범벅이 되는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허리까지 아픈 네가 과연 강도 높은 6주 훈련을 잘해낼 수 있을지 엄마는 좌불안석 이었단다. 훈련 내내 30여명 규모의 중대에서 반장을 맡아 열심히 심부름도 하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임했으며 마치 summer camp에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재미있고 보람이 있었으며 심지어 아프던 허리도 많이 좋아졌다는 너의 후일담을 전해 듣고 그때 엄마는 너에 대한 걱정 한 자락을 잠재울 수 있었다.

두어 달 전 전화기 건너편 너의 힘없는 목소리에 엄마는 바짝 긴장을 한 적이 있었단다. 고등학교 때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아마존 근처 오지의 마을 페루 뿌깔파에 가서 의료팀을 돕고 그곳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등 평소에 해외 오지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던 너는 기회가 되면 해외봉사단체에 가입하여 열심히 일해 보고 싶어 하였지. 영어 통역병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는 너에게 해외 파병신청은 당연히 너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었다. 하지만 두어 번 신청하여 번번히 낙방하자 실망이 컸던 모양이다. 아빠께서는 너에게 그러셨지. 학교를 떠나 세상에 나가게 되면 네가 아무리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 또한 받아 들이고 지금 이순간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보람있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것이 중요하다. 아빠의 이런 말씀으로 실망스런 마음을 많이 추스렸노라는 너의 말을

듣고 엄마는 또 한번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아들이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연일 들려오는 한반도의 민감한 정세에 엄마는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구나. 너의 편지나 전화기 건너편의 너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게 되는 이유란다.

올 1월엔 지금까지 받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더 값진 선물을 받았다. 군대에 오기 잘했다는 너의 그 한마디! 어떤 선물이 이보다 더할까? 벌써 입영한지 10개월이 되어가네. 아! 미안, "이제 겨우 10개월이 되어가네"로 정정할게.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는 말은 군인에게 금기시되는 말이라고 했던가. 이 순간 엄마는 많은 분들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작년 이맘때쯤 너를 군대에 보내기위해 애쓰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 당시 미국에서 직접 육군 통역병 접수를 하기 위해 워싱턴 한국영사관을 찾아갔을 때 도움을 주시던 영사관 직원, 시간차로 인해 새벽녘에 한국 병무청에 국제전화를 하여야 했을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던 병무청 직원, 그리고 '군사령관과 장병들과의 대화 시간'에 네가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해 자세히 답변해 주시며 너를 단상으로 불러내어 칭찬해주셨다던 군사령관님,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선임병들, 그 외에 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휴가를 나와도 부모집이 바다 건너 미국에 있어 국내에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너를 재워 주시고 잘 챙겨주시는 친척분들, 이 분들 모두가 너에게 시시때때로 물과 거름과 따뜻한 햇볕을 주신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좋은 선물을 받게 되지 않았을까. 너의 인생 20년 이제 막 청춘으로 진입한 너에게 2년여의 군생활은 분명 먼 훗날 '조국사랑', '청춘예찬' 이라는 단어들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근사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만드는데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어린 감사를 전하고 싶고, 특히 고양이 병사 원민식 일병에게 미안하고 감사한 마음이다. 힘들고 지칠 때 한걸음에 달려가 주지 못해 미안하고 한결같이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너에게 감사하다. 너는 나의 영원한 소울메이트이자 자부심이라는 걸 기억해라.

올 4월초에 우리 집 뒷마당 정자마루가 생명을 틔우기 위한 작업으로 뭔가 부산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푸라기며 마른풀들이 테이블위에 널부러져 있다가 어느 순간 깨끗하게 치워져 있곤 했단다. 엄마는 그저 정자마루를 조심스럽게 배회하는 이방인일 뿐이고 그 순간 생명을 품고 있는 그 이름모를 새가 정자마루 주인이 되었지. 주말 며칠을 집을 비워 궁금했는데 여전히 그새가 둥지에 앉아 있더구나. 그저 신기하기만 했고 그곳에서 즐기던 엄마의 커피타임이 아쉬워 빨리 비워주기를 고대했었는데 그날 아침엔 경계의 끈을 놓아버린 그 이름 모를 새가 사랑스럽기까지 하더구나. 일주일 전쯤엔가 문득 새끼 한 마리가 둥지를 훌쩍 날아 바닥에 앉아 뒤뚱뒤뚱 걷는 듯 하더니 나무사이로 날아가고 말았다. 근 순간 엄마는 왜 네 생각이 났을까?

오늘 워싱턴발 인천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였다. 이번엔 네 책꽂이에 꽂혀있던 국사책 교과서를 직접 들고 가려 한다. 얼마 전에 네가 원주에 박경리 문학관을 둘러보고 책 '토지'를 구해 달라고 했는데 총21권이라 한국에서 빌려 볼 곳을 알아보아야 할 것 같구나. 이곳에서 구입하여 소포로 보내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도 하고 국사책을 먼저 읽어보고 한국 역사의 흐름을 이해한 후 '토지'를 시작하는 것이 나을 듯하다. 네가 태어난 조국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한국을 더 잘 알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고 있는 네가 무척 대견하구나. 엄마는 다음 주에 너와 대면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마음이 설레인다. 기대해도 될까? 근육질 몸매 원민식 일병을..

2017년 5월 31일

미국 버지니아에서 엄마가

검은 머리 외국인이자 대한의 건아

3사단 22연대 1대대
상병 김 도 연

"Sorry, bro(미안, 친구야)".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고 있던 나를 혼내러 온 훈육 분대장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고서 조금이라도 덜 혼나보려고 건네었던 말이다. 그 순간 생활관은 일순간에 조용해졌다.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랬던 내가 지금은 백골부대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육군 3사단의 22연대 1대대에 저격반에 배치되었고, 군 생활에 완벽하게 적응하여 1년 2개월동안 복무하면서 김도연 상병으로 불리고 있다.

나의 또 다른 이름은 대니얼 킴(Daniel Kim)이다. 사실 이 이름이 나에게 조금 더 익숙한 이름이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지낸 기간이 2년 남짓에 불과하고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인도네시아, 중국, 홍콩 등지에서 성장해왔다. 그래서 한국어 보다 영어가 더 익숙한, 요즘 흔한 말로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이 바로 나를 부르는 말이다. 그러나 아무리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면 대한민국의 존재를 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의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조국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렇게 조국을 수호하는 군인이 어렸을 때부터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고 나도 어른이 되면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인이 되고 싶다 생각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육

군사관학교에 가서 누구보다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라는 꿈을 접어야 했다. 첫 번째 이유로는 나에게는 신체적으로 주상골 불유합이라는 손목의 뼈가 잘 안 붙는 질병이 있어서, 애초에 현역으로 군 입대가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해도 주상골 불유합 수술을 받고 재활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재활을 한다 해도 성공적으로 재활이 되어 내가 남들보다 앞장서서 행동하는, 모범이 되는 장교가 될 수 있을까? 라는 확신이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내가 홍콩 중문대학교에 붙은 것을 부모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는 것이다. 홍콩 중문대학교는 한국에선 그리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QS(세계 대학 순위) 랭킹에서 44위인 대학이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장교의 꿈은 현실적으로 접고 군인의 꿈을 이루기 위해 현역입영을 생각하게 되었다. 그 이후 손목 수술을 받고, 2년 가까이 재활치료를 받아 가까스로 3급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었다.

내가 군대를 간다하니 주변에선 굳이 군대를 가고 싶으면 카투사, 통역병, 군악병 등 남들보다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왜 일반병으로 가느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누구보다 멋진 군인은 단지 내 한 몸 편한 길만 찾아 다니는 군인이 아니다. 멋진 군인은 조국을 지키는데 내 한 몸 희생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생각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직접 실천 하는 군인이다. 나는 이러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현역병으로 자원입대를 하게 되었다.

훈련소 수료식 날 자대 배치를 문자로 통보 받았다. 부모님은 내가 원하던 대로 '정말 군대다운 곳'으로 가게 되었다고 걱정 반 웃음 반으로 이야기하셨다. 또한, 아버지는 늘 군대를 가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나는 군 생활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을 안고 자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처음 자대로 왔을 땐 훈련소와 비슷하게 내가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문화들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적응도 잘 하지 못했다. 상급자와 실수로라도 부딪히면 습관적으로 바로 'sorry'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였고, 다른 전우들과는 달리 행동이 너무나 자유스러워 병사들 및 간부님들이 당황스러워 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선임들과 간부님들 그리고 주위의 많은 전우들이 나의 사정을 알고 이런 문화에 어색해 하는 나를 잘 챙겨주고 많은 것을 알려주며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나는 군 생활을 시작하며 다른 전우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할까 봐 걱정을 하였다. 나만 특별하게 외국에서 왔고 다른 전우들과는 달리 대한민국에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다 똑같아 보이는 전우들 사이에서 그들과 친해질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곧 터무니없는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모든 병사들이 다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전국 곳곳에서 왔기 때문에 특색도 모두 다양하고 달랐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삶을 살아온 병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친해질 수 있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전우들 모두 대학생일 것이라 생각했다. 외국이든 한국이든 요즘은 다 대학교를 가야하고 대학교를 안다니는 전우들은 학창시절 방황을 많이 했거나 학업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 생각과는 달리 대학교를 다니지 않는 전우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은 학창시절 방황 한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사정 때문에, 또는 일찍이 자기 자신의 꿈을 찾아 대학에 가는 대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들을 보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다. 군대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과 다른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또 고정관념을 깰 일들이 많을 것이라 하셨는데 바로 이 대학문제가

나의 고정관념에 대해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껏 대학으로 사람들을 판단했던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나는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가고 싶었다.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서의 시간은 다 버리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군대에서의 시간을 나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고 미래를 위한 발판을 만드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로 다짐했다. 우리 부대에선 3030운동이라는 운동이 있다. 30분 동안 30쪽의 책을 읽는 운동으로 이 운동 덕분에 한국책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굉장히 많은 양의 책을 읽게 되면서 한국어 실력도 단기간에 많이 늘었다. 또 공부연등이라는 시간이 있어 추가적으로 독서를 원하거나 공부를 하고 싶은 인원들에게 22시부터 24시까지 공부할 여건을 보장해준다. 군대에 와서 영어 대신 한국어를 사용하다보니 스스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져 걱정이 되었는데 이런 연등시간을 이용하여 영어 복습을 하는 등 노력을 하다보니 국방홍보원에서 주최하는 IPSOS Korea 라는 마케팅 리서치 업계의 회사에서 교육을 받고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만약 군대에 오지 않았더라면 IPSOS Korea 국방TV 출연의 엄청난 경쟁률에 겁부터 먹고 부정적으로 생각했겠지만 자기계발을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군 생활을 하며 '난 할 수 있다' 는 생각에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전역을 하고 나서 이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는 것이 또 다른 새로운 목표가 되었고 지금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

혹한기 때는 세상이 이렇게 추워질 수 가 있나, 이러다가 발가락 다 잘려 나가는 게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다. 숙영을 하고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전투화가 얼어있고 수통도 얼어있고 텐트를 칠 때 지주핀을 박아놓은 땅도 얼어있고 세상 모든 게 다 얼어있었다. 새삼 막사가 그렇게까지 그리워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고 일상이라 여겼던 막사와 보온의 소중함을 깨달은 계기가 되었다.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잊지 말자' 라고 내 자신에게 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백골데이 및 전술훈련은 완전군장과 함께 저격총, 저격장비들을 챙겨 끝없는 산타기를 하는데 정말 이 순간 만큼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큰 순간이다. 긴 거리 행군을 한 후에 산을 올라갈 때, '정말 여기서 포기해야하나, 너무 힘들다, 그만 가고 싶다, 조금만이라도 쉬어가면 안되나'등 온갖 생각이 다 들지만, 내가 뒤처지면 뒤에 있는 다른 소대들도 속도에 맞춰서 느려지고, 저격의 거점 점령을 하는데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이 악물고 올라 가는게 정말 많이 힘들었다.

이런 훈련들을 통해 나는 생각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누군가는 이런 훈련을 하면서 그냥 시간이 흐르기만을 기다리지만,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자기계발, 다시 말하자면 어떤 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기를 수 있다.

나는 자원입대를 한 결정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이제 곧 입영할 나이가 될 내 후배들에게 자원입대를 하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것이다. 이제 군 생활이 얼마 안남은 이 시점에서, 나는 앞으로 나에게 닥칠 어려움들을 두려워 하지 않고, 군 생활동안 배운 의지를 토대로 남은 군생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논산훈련소에서 처음 'Sorry bro'를 말하던 내가, 3사단 저격 집체교육 용사 1등을 하기까

지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등을 해낸 내 자신에게 성취감이라는 큰 선물을 줄 수 있게 되어 너무 고맙다. 이게 다 나를 잘 챙겨주는 병사들과 저격 간부님들 덕이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는 멋진 대대장님 아래 군 생활을 하게 되서 그런 것 이라고 생각한다. 군대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곳이 아닌, 좀 더 넓은 생각을 가지고, 전우애와 소속감을 느끼고, 그 속에서 나란 사람이 누구인지 확신 할 수 있는 곳이다.

'내가 정말 내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칭해도 되는 걸까?' 라는 정체성의 혼란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백골부대에서 복무하면서 내 자신에게 이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다.

'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이자 대한의 건아이다. 백골!

나에게 군대란

20전투비행단 헌병대대 경비중대
상병 박 창 민

저는 한국인이지만 미국에서 태어났기에 미국과 한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 입니다. 유학생이던 부모님을 대신해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출생신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일로 인해 일본으로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15년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저를 한국인으로 키우셨습니다. 올림픽, 월드컵 때마다 대한민국을 응원했고 당연히 군대도 가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인으로 자랐던 저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이 군대를 가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시 되는게 싫었습니다.

이런 저를 한국인 지인들은 부러워합니다. 한국 사람을 만나면 군대 안 갈 수 있지 않느냐, 한국국적 포기하고 안 갈 거지, 등과 같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군대에 갈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 감탄하며 칭찬해 주기도하고 의아해 하며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고도 말하며 믿지 못하겠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이런 반응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외국국적을 가진 한국인도 군대를 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게 2016년 3월 14일 저는 군에 입대하였습니다.

공군 기본군사 훈련단에 들어간 날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드넓은 연병장에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훈련단에 들어간 날을. 그 날부터 제 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군 생활은 생각보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항상 제 곁을 지켜주던 동기들이 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사실 입영하기 전에는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차별하지 않고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이처럼 친근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분대장한테 혼나고 벌을 받아도 그것이 딱히 힘들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분대장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친근하게 대해주고 마지막에는 함께 야자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6주간 있었던 일들로 밤이 깊어질 때까지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훈련단 교육을 마치고 저는 서산에 있는 20전투 비행단에 헌병으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헌병을 원해서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훈련단에서는 특기와 지역을 받기위한 시험을 보고 그 시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받는 특기도 달라집니다. 저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서산은 2지망으로 선택하여 배치 받았지만 헌병을 지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군대에 갔다 온 형들의 말을 전해 들으면서 헌병은 그다지 가고 싶은 특기가 아니었습니다. 군기를 엄청 잡고 악·폐습 또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으로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다지 반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일도 힘든데 선임들까지 험악하면 정말로 힘들 것입니다. 심지어 간부들마저 소통이 되지 않고 새로운 동기들과도 친해지지 못하면... 그런 생각을 하니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근무 스트레스, 힘든 인간관계, 간부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어쩌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걱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언론에서 보여준 군대의 단점들 때문이었습니다. 군내 악·폐습, 성희롱, 폭력과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군대에 갔다 온 형들은 괜찮다며 저라면 잘 적응해서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잘 할 수

있을 거라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대학 친구들도 휴가 나오면 꼭 연락하라고, 군 생활 아무 것도 아니라면서 위로해주었습니다. 정작 군대를 안 간 남자 친구들과 여자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그래도 헌병이 되어 걱정하던 저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0일, 저는 서산 제 20전투비행단 헌병대대 경비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병대대에 들어가서 놀랐던 것은 부대 사람들의 친절함이었습니다. 모르는 일이 있으면 항상 도와주고 실수해도 혼내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친절하게 알려주는 선임들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오라며 힘이 되어주겠다며 부드러운 말로 저를 환영해주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선임들도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기들 또한 저와 공감대가 많아서 금세 친해졌습니다. 같은 방에서 서로 위로하며 생활하니 즐거웠습니다. 생각해보면 훈련단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항상 동기들이 많이 챙겨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자 그들은 놀라지 않고 웃으면서 힘들더라도 서로 의지하며 같이 고생하자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그게 가장 위로가 되었습니다. 동기들에게 고마웠습니다. 만약 동기들이 외국에서 왔다는 사실에 놀라면서 왜 왔느냐와 같은 질문을 무자비하게 저에게 투척했더라면 저는 기쁘기는커녕 그들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간부님들도 저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와주겠다며 공군 헌병에

온 걸 환영한다며 제가 온 것을 기뻐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서 저는 자기계발에 힘 쓸 수 있게 되었고 간부님들과 선임들의 응원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상병이 되면 상병 진급캠프를 가는데, 그곳에서는 앞으로 군 생활을 더욱 의미있게 보낼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신병 때부터 계속 들었던 안보 교육, 성폭력에 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많이 들었던 교육이라서 그런지 살짝 지루하게 느껴졌고 전날 근무를 해서 초반에는 졸았습니다. 그러나 단장님과의 대화시간은 그의 카리스마 때문인지 내용이 귀에 잘 들어왔습니다. 단장님이 열심히 우리들에게 강의를 하시는 중에 그는 자기계발은 꼭 잊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정확히 짚어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장님의 마지막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술을 공부하고 있었지만 나중에 미술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결정하지 않은 저는 이 길이 과연 나에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오후 수업은 창의력에 관한 강의였습니다. 이 수업을 맡은 사람은 여성 강사였는데, 저희에게 종이를 나누어주면서 장점 10개와 단점 10개를 쓰라고 했습니다. 귀찮았지만 그래도 받은 건데 쓰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여 썼습니다.

장점 : 그림을 좀 그린다, 3개 국어를 할 수 있다, 착하다…등등.

단점 : 집중을 못한다, 피곤하면 게을러진다, 살이 찌고 있다… 등등.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미래 자기가 되고 싶은 사람, 꿈에 관해서 써보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 전역, 그림 연습, 여행, 운동하기, Adobe 프로그램 연습… 등등.

되고싶은 사람 : 부자, 영화감독, 애니메이션 감독, 화가… 등등. 그래도 그림은 하고 싶은가 보다,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 썼다 싶었을 때 강사는 이제 자기가 썼던 품목들 중 두 세 개만 빼고 다 지워보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것 : 전역, 그림 연습, 여행, ~~운동하기~~, Adobe 프로그램 연습, ~~영화 감상, 독서하기, 오랫동안 잠자기,~~

꿈 : 부자, ~~영화감독,~~ 애니메이션 감독, 화가, ~~여유를 즐기는 사람(백수X), 땅 부자,~~ 광고 디자이너.

문득 다 지우고 생각해 보았는데 전 진짜 그림을 그리고 싶은가 봅니다. 그 때 알았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숨 막힐 정도의 깊은 무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감동적인 스토리를 연출해 나가면서 나만의 이야기를 펼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강사는 말했습니다. “어떠세요?” 많은 걸 느꼈습니다. 뭔가 잊어버린 오랫동안 감춰두고 있던 꿈을 다시 발굴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그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생길 때마다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군대가 시간만 버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대는 휴식기입니다. 그 휴식 기간 동안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군대의 가치라는 것은 변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제 군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동기들, 간부님들, 선 후임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준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밖에서 항상 응원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함 또한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일본에 계셔서 저는 휴가를 나갈 때마다 할아버지 댁에 갑니다. 처음 휴가 나가는 날, 부모님이 잠깐 동안 할아버지 댁에 머무는 시기여서 대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가족과 만나지 못 한지 6주쯤 될 무렵이어서인지 말 한마디가 낯설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과 오랜만의 대화가 이렇게 좋은 것인지 그 날

알았습니다. 예전에는 집에 오면 항상 부모님이 계셔서 어떤 날은 그들과의 대화가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울컥했던 건 할아버지가 서랍장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서 주신 흰 봉투였습니다. 십만 원, 할아버지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돈을 받아서 울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봉투에 얼마나 많은 할아버지의 감정들이 들어있는지 그때서야 안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고 고마웠습니다. 제가 돌아온다는 소식에 좋아하시던 할아버지, 행여 군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잠도 설치셨다고 들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어린 시절을 가난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 생활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서 제가 올 때마다 봉투를 주셨습니다. 예전부터 일본에서 한국으로 놀러왔을 때 그리고, 대학 방학이 시작되어서 잠시 할아버지 댁에 들렀을 때 할아버지는 항상 봉투를 주셨습니다. 그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았었지만 그 봉투에 깃든 저에 대한 할아버지의 사랑을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날 밤 저는 할아버지와 함께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군 생활 힘들지 않으냐고 물으시면서 술을 주셨습니다. 저는 괜찮다면서 막걸리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할아버지는 군 생활이 힘들던 시절, 가난하던 시절을 견딘 분입니다. 그런 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는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 새삼 군대에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낸다는 것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분들이 지킨 나라를 나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도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와의 담소가 끝나고 부모님과 그 날 밤 오랫동안 군 생활에 대해 말했습니다. 항상 고맙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족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해 본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된 첫 휴가였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은 좋은 동기와 선임, 간부들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군 생

활은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휴가만 바라보는 병사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그 일에 매진해 성취해나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며 보람 있는 군 생활을 보내고, 또 누군가는 가족의 중요성을 깨우쳐 효도를 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군대는 잠시 사회에서 나와 자기만의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곳입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고 잊었던 일들을 다시 깨우쳐 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군 생활은 어떻습니까?

초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5사단 35연대 2대대 본부중대
상병 임 동 수

온 국민들이 2002년 한일월드컵으로 한창 들떠있을 때 우리 가족은 아버지의 사업때문에 중국으로 갔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생활한 지 많은 시간이 지나 한국어가 편해졌지만 한때는 잠꼬대를 중국어로 할 정도로 중국어로 말하는 것이 더 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 오래 살다보니 한국에서도 중국인이라는 오해와 놀림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학교 남자 동기나 선배들에게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냐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아버지는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진짜 남자가 된다” 고 하셨고 그런 이유 인지는 몰라도 군대는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군 생활을 하면서 힘이 들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변 전우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버텨나가는 중입니다. 입영하기 전 주변 지인들을 통해서 군대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은 전역한지 1년도 되지 않은 동아리 형이 해준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 사는 곳이다” 이 말은 그 당시 보다 군 생활을 어느 정도 한 지금이 더 와 닿지만 당시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군대는 옛날처럼 건물이 노후하지 않고 대부분 학교 건물처럼 신형 건물이고 생활관도 침상이 아닌 침대에서 취침하는 등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

다는 말에 입영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입영을 하고 수료 후 보충중대까지 거쳐 지금 생활하고 있는 철권대대는 시설이 꽤 안 좋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동기 생활관과 침대는 둘째 치고 당시에는 식당 공사를 하던 시기여서 11월 초까지는 막사 앞 24인용 천막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건물은 생활관, 지휘통제실 등 주요 시설물들을 제외하고 컨테이너 박스로 이루어져있는 대대를 봤을 때 이제 앞으로 여기서 어떻게 지낼지 고민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시설이 좋지 않아도 있을 것은 다 있고, 지금의 부대시설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까지 군단 탄약고에 파견을 가서 시설 좋은 생활관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내보니 침대보다는 침상이 좋고 8명 정도가 한방을 쓰는 생활관보다는 20명이 넘는 인원들이 기차처럼 쭉 누워서 취침전 웃고 떠드는 소대 생활관이 더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밖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통제가 되니 사소한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지내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중대와 대대에서의 생활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저는 성격이 소심하고 먼저 다가가는 편이 아니어서 같이 전입 온 동기보다 소대에 적응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활달한 성격을 가진 동기가 처음에는 많이 부러웠지만 먼저 다가와주는 선임들과 동기들 덕분에 중대에 무사히 적응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많이 하게 되면서 전우들과 더 가까워지고 재밌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저는 그 후로 다른 선임들이나 동기들에게 미안할 정도로 중대 선임들의 예쁨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동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모든 일을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려다 보니 혼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일·이등병 때는 선임들에게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혼났습니다. 혼나는 이유도 다양합니다. 간부들의 질문에 대답을 안 해

서 혼나고, 총기현황판을 최신화 안 해서 저에게 현황판을 던지면서 혼내던 선임도 있었고, 음료수를 마시다가 사래가 들려 선임 얼굴에 뱉어서 혼나고, 동원훈련 때 예비군이 나중에 훈련할 때 주먹밥 나오면 먹으려고 주었던 맛다시를 전투조끼에 넣어두고 잊어먹어 탄약고 근무 때 들켜 사수한테 온갖 욕을 먹고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군 생활을 해야하나..”라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중엔 혼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싶은 말을 하면 대드는 것으로 오해하는 선임들 때문에 앞에서 표정관리가 힘들었습니다. “표정관리는 스펙이다” 라는 명언을 알려준 제 첫 중대장의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렇게 혼나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내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후임들이 제가 하던 것을 따라 똑같은 실수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저를 혼내던 선임들의 위치가 되어보니 그때는 원망스러웠던 선임들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왜 몰랐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그때 혼나던 제 모습을 돌이켜 보며 웃기도 합니다.

저는 전투중대, 본부중대 두 중대에서 모두 생활해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보다는 느낀 것도 많고 배운 것 또한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투중대에 있을 때는 정말로 여기가 군대인지 아닌지 생각을 많이 했을 정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무엇을 하든 선임들 눈치를 가장 먼저 보고 따라하고 또 혼나고 그렇게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훈련을 제외하면 일과시

간에는 작업이나 청소 하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개인정비 시간에는 노래방이나, 사이버지식 정보방, PX를 이용했습니다. 제가 입영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정말로 군인이구나” 하고 느꼈을 때가 5분 전투대기부대 임무를 수행했을 때입니다. 물론 훈련 상황이었지만 야간에 신고접수를 받고 각종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각종 상점들 사이에서 어두운 밤을 헤치고 랜턴을 이용해 유기물이나 다른 특이사항을 확인하며 장구류와 총을 메고 도로를 누비는 제 모습이 처음으로 멋지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끝나자마자 개인정비 시간을 이용해서 부모님과 사회에 있는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총기, 탄약 등이 군인에게는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첫 훈련 때 SNS에서나 들어봤을 법한 일이 저에게도 벌어졌습니다. 바로 훈련 중 대검을 산속에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훈련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장비검사를 하면서 숙영지로 복귀하던 중 제 대검이 없어진 것을 인지함과 동시에 온몸에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고 머릿속은 하얀 백지상태로 되어 갔습니다. 당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경악 그 자체였고 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 이런 고된 시련이 찾아오는지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 했는지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짧은 시간이었지만 주마등처럼 온갖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같이 있던 부소대장에게 보고를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복귀할지 고민을 하다 결국 옆에 있던 선임에게 사실대로 말한 뒤 부소대장과 같이 다시 내려왔던 산을 되돌아 올라가 한 시간 정도 헤매다 대검을 찾았습니다. 당시는 이등병 시절이라 몰랐을 때였고 얼마나 중요한 것을 잃어 버렸는지 모르는 때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대검을 찾아서 영창을 안 간 것이 다행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그 후로 저는 훈련 중이거나 어디를 갈 때마다 장비를 수도 없이 만지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선임들은 당시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분명 그들도 본인이 그 상황에 처했다면 절대로 그런 위로의 말이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로 저는 후임이 생

길 때 마다 이 경험담을 말해주면서 특이사항이 생기면 바로 보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함께 건네곤 합니다.

작년 12월, 저는 군 생활동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운 좋게 얻어서 대대 작전병이라는 직책으로 보직을 이동하고 본부중대로 전입을 오게 되었습니다. 약 8개월 동안 정이 많이 들었던 전우들과 헤어지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적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사 뿐 아니라 높은 계급의 간부들과도 얼굴을 맞대고 생활해야 한다는 점은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저한테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지만 많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후회하더라도 하고 나서 후회하자 라는 생각으로 본부중대로 오게 되었고 여기서는 선임들의 신임뿐만 아니라 후임들의 사랑도 받으면서 열심히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병의 특성상 업무 대부분이 컴퓨터를 이용한 업무이고 근무 또한 지휘통제실에서 상황을 보는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서 컴퓨터를 잘 사용할 줄 모르는 제가 짧은 시간 안에 사수가 놀랄 정도로 많은 발전을 하는 중이며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물론 차기 분대장으로서 많은 것을 배워나가는 중입니다.

군대에 있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다 생각되는 것은 바로 책임감을 갖게 된 것 입니다. 이등병 부터 병장까지 계급이 올라갈수록, 후임이 많아질수록, 책임감은 더 커져 갑니다. 또 2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낮은 계급에서 높은 계급까지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입영을 앞둔 많은 청년들은 2년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버린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시간을 낭비한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시간을 잘 활용하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충분히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도 억울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국에 살면서 인종차별도 당해보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한국인 이라는 이유로 길을 가다 돌도 맞아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않으려 노력하고, 적응을 못하면 나중에도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버텼습니다. 군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인생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직 230일 정도의 군 생활이 남아 있습니다. 휴가 때 부모님이 계시는 중국에 가려고 했지만 요즘 사드 때문에 중국에 가는 것이 통제되어서 부모님을 뵙는 것이 어렵고 그나마 있던 친구들도 이제 입영을 앞두고 있어 의지할 곳이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복무를 하면서 중국에서 느끼지 못한 우리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습득할 수 있고 저를 반겨주는 전우들 사이에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상병 임동수의 부족한 병역체험담을 읽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남은 복무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단결!!

나의 조국은 내가 지킨다

육군훈련소 30연대 12중대
일병 양 원 모

고요한 새벽은 주변 이슬람사원의 기도 소리로 깨어난다. 누구에게는 낯선 이국땅일지 모르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내가 태어나고 20년간 자라온 고향이나 다름 없는 곳이다. 나는 인도네시아 언어를 사용하고 현지인들 사이에서 자라며 평범하지 않은 한국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

나는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섬 보르네오섬의 외진 마을에서 태어났다. 제대로 된 산부인과도 없던 빵갈란분 이라는 도시에서 검은 피부의 낯선 외국인 간호사들에 에워싸여 태어났다. 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기업에서 일하시게 되어 부모님은 인도네시아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내가 5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위치한 본사로 발령이 나 온 가족이 자카르타로 이사를 오게 되었다. 자카르타에는 비교적 큰 한인 사회가 형성 되어 있다. 나의 친구 중 대다수가 한국인이지만 생활 방식은 인도네시아 사람들과 다를 것 이 없다. 초등학교 때는 길거리에서 파는 장난감을 사서 놀고 근처 와룽(매점)에 들어가 인도네시아의 짜빠게티라고 불리는 미고렝을 먹었다. 배고플 때면 집 앞의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 현지 음식을 먹고 저녁엔 친구들과 인도네시아식의 포장마차에 삼삼삼오오 모여 앉아 야식을 먹었다. 여느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처럼 나도 그들의 문화에 자연

스럽게 스며들어 그들과 같은 생활을 해왔다. 이렇듯 나의 모든 부분에서 국적이 한국 인것을 제외하면 다른 한국인들과 공통되는 부분을 찾기 힘들었다. 어렸을 때 내가 주변인들과는 다른, 한국인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이라는 단어가 내게 크게 와 닿지는 않았다.

이런 나에게 한국인 이라는 정체성을 찾게 해준 건 부모님 이었다.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형제들을 생각하신 부모님은 방학 동안 한국을 최대한 많이 접하게 해주었고 한국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날 수록 나는 '한국인'이라는 나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었다. 가끔 주위를 보면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오랜 기간 머무르다 보니 한국어를 모르고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린 친구들이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모님은 많은 노력을 하셨다. 한국과 친밀해질수록 조국이라는 개념이 나의 머릿속에 더욱 더 뚜렷해졌고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졌다.

나와 같이 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오랜 기간 체류한 재외국민이나 해외동포들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하는 병역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특징이 있다. 어렸을때는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 마냥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고 한국에 살며 우리나라의 소중함을 느끼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랑스러움을 갖게 되었다. 나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조국을 선물해준 선조들의 은혜를 갚고 나라를 굳건히 지켜 미래의 후손에게도 그대로 전해주기 위해 나는 자원 입대를 결심했다.

하지만 내 결심에 주변의 많은 이들이 반대했다. 굳이 안해도 될 고생을 자청해서 하냐며 걱정을 하였다. 입영하겠다는 나의 결심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주변에 비슷한 친구들이 국적을 바꾸어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보며 병역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더군다나 이성 친구를 사귀고 있었기에 유혹은 커져만 갔다.

입영하고자 하는 내 마음을 굳히게 되었던 계기는 평범한 하루 중 찾아왔다. 한창 시험기간이라 학교에서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온 날이었다. 시계바늘은 새벽 5시를 가리키고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숙집으로 돌아가는 중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을 보았다. 해가 막 뜨기 시작하고 도로에는 출근하는 사람들, 학원에 가는 학생들, 그리고 햇빛에 비친 건물들이 보였다. 매일 보던 풍경 안에서 저런 평범한 하루가, 그리고 건물 외벽에 쓰인 한글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 갑자기 마음속에 뭔가 뭉클한 감정이 느껴졌다. 그래서 나는 이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곳곳에서 조국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과 함께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어졌다.

부모님께 입영의 뜻을 밝히자 매우 좋아하시며 대견해 하셨다. 사실 부모님은 예전부터 군대를 가지 않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항상 말씀은 하였지만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다. 내가 입영을 결심한 후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군대에 있었을 때 이야기를 자주 해 주시고 어머니는 입영에 필요한 준비를 도와 주셨다. 만난 지 6개월이 된 여자친구 또한 나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입영을 하면 21개월 동안 자주 보지도 못하고 연락도 하지 못해 힘들 수 있음에도 오히려 건강히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 주었다.

자원병역이행자들은 입영 날짜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그마한 특혜가 있다.

나는 날씨 좋은 가을을 입영일로 정하고 논산육군훈련소에 2017년 9월 19일에 입영했다. 훈련병으로서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던 나에게 육군훈련소 분대장 선발 이라는 뜻밖의 선택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에게 분대장이란 매우 먼 거리의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매우 건장한 체격에 항상 무표정으로 냉담한 카리스마를 내뿜으며 오로지 군대와 교육만 생각하는 사람들로 보였다. 훈련소에서는 분대장이라는 보직을 설명해주고 나에게 하루의 시간을 줄테니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였다. 그 하루 동안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군대에 온 목적과 어떤 군 생활을 하려고 했는지 다시 생각해 보았다. 오랜 생각 끝에 분대장 선발에 응시하기로 결정했다. 호기심이나 남들에게 자랑거리를 만들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육군훈련소는 우리나라 군인의 70%가 거쳐 가는 훈련소다. 장차 우리나라를 지킬 군인들의 첫 단추를 내가 잘 꿰어주어 나라의 도움이 되고 싶었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이행해야 되는 보직인 만큼 분대장이 되는 과정은 체력검정과 소대장님부터 훈련소 참모장님까지 여섯분과의 면담을 무사히 통과해야 가능했다. 그렇게 두 달 정도의 분대장 선발 및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는 마침내 30연대 12중대 3소대 4분대장이 되었다.

교육과정을 통해 훈련병들을 통제하고 교육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고 수없이 연습했지만, 막상 투입되어 훈련병들을 마주하니 말처럼 쉽지는 않았다. 이론으로만 배우다 직접 엄청난 수의 훈련병들을 통제하려니 정신이 없었다. 하지만 내 어깨에 있는 초록색 견장을 보며 이내 정신을 차리고 임무를 수행하였다.

투입되고 나서 나는 분대장 선발과정이 왜 그렇게 복잡하며 까다로웠는지 알게 되었다. 분대장이 되면 초록색 견장을 부여받는다. 그 견장은 내 밑으로 많은 부하들이 있다는 것이며 그만큼 책임감을 어깨에 짊어지고 있다는 상징이다.

보직의 명칭은 분대장이지만 통상 모든 분대장들은 한 개의 소대를 통제한다. 한 소대에는 54명의 훈련병이 있고 소대당 4명의 분대장들이 배치되어 훈련병들을 통제하는데 자신의 분대를 넘어 자신의 소대를 신경써야 한다. 막 입

학한 학생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54명의 훈련병들을 한명 한명 가르치고 교육하고 통제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일이 아니었다.

나와 모든 분대장들은 모두 전군 1%라는 자긍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54명의 훈련병들은 각각의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성격의 차이가 있다. 자유로운 삶을 살다 온 그들에게 갑작스럽게 맞이한 모든 행동들에 대한 통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지시를 내리면 어떤 훈련병들은 알아서 잘 따라오는 반면 어떤 훈련병들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그저 챙겨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기도 한다. 우리의 임무는 모든 훈련병들을 전투가 가능한 병사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족한 훈련병들까지 모두 이끌고 끊임없이 노력하여 목표를 도달하게 한다. 교육 외에 막사에서의 일상 생활에서도 분대장들의 임무는 계속 된다. 항상 어딜 가든 훈련병들이 전우조를 잘 지키며 다니고 있는지, 군대 예절에 맞게 수건이나 세면백을 왼손으로 파지하고 다니는지, 그리고 상급자에게 경례는 규범대로 하는지 쉴새 없이 확인한다. 이렇게 6주간 반복되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찾아오기 마련이고 분대장을 하며 훈련병들에게 화가 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그때마다 나도 많은 실수를 했던 옛 훈련병 시절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인내심을 갖고 상황을 이해시키고 조언이나 충고를 해주곤 한다.

항상 내 초심을 아지랑이처럼 다시 피어오르게 만드는 것은 훈련병들 이었다. 아무것도 몰랐던 훈련병들이 훈련을 통해 사격을 12발 이상 명중하고, 심폐소생술과 지혈을 행하며, 방독면 착용을 9초안에 완벽히 하고, 각개 전투장의 지형지물과 장애물들을 내가 교육한 내용을 토대로 능수능란하게 통과하는 모습을 보며 나는 세삼 느껴보지 못했던 뿌듯함을 느낀다. 이동 중 발도 맞추지 못하고 오합지졸이 따로 없던 훈련병들이 군기가 들어 제식을 맞추고 이동하는 것을 보면 아빠 미소가 절로 나오기도 한다. 분대장들에겐 자신의 훈련병들이 제대로 된 군인이 되었을 때 보다 더 보람찬 것은 없다. 그렇게 한 기수를 끝내고 훈련병들이 이

등병이 되어 그들을 열차에 태워 보낼 때는 서운함도 있지만 내 작은 능력으로 우리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

자원병역이행자로서 나의 군 생활은 매우 만족스럽다. 입영하기 전 나는 선임들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고 여태껏 자라온 나를 선입견이나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다. SNS나 주변인들을 통해 들은 군대는 부조리가 난무하고 선임들 때문에 매일 눈치 보고 살아야 되는 곳 이었다. 하지만 자대에 와 보니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대로 전입하게 되었을 때 모든 선임들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 다 비슷한 질문인데 주 내용은 나의 국적과 군입대를 하게 된 이유였다. 나의 배경을 다 소개하고 나면 다들 나를 신기한 눈빛으로 쳐다 보았다. 그러나 내가 재외국민인 것을 알고 난 후에는 선임들은 외국에서 살다온 나에게 생소하거나 이해하지 못 하는 한국의 문화나 현상들을 모두 차근차근 설명해주었고 이해시켜 주었다. 그래서 고마운 선임들의 도움으로 완벽히 자대의 분위기에 흡수될 수 있었다.

나는 재외국민으로서 군대에 와서 배운 것이 참 많다. 분대장으로 근무를 하면 두 달에 한 번씩 중대에 216명 정도의 훈련병들이 들어 온다. 현재 나는 네 개의 기수를 했으니 대략 864명의 훈련병들을 만났다. 그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면담을 하면서 나는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각각의 인생 이야기를 듣거나 행동을 보며 각기 다른 한국인들이 사는 방식, 그 지역의 특성, 말투 등의 다양한 모습을 접할 수 있었다.

재외국민으로서 내가 군대에서 얻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애국심'과 '자긍심'이다. 재외국민들에겐 애국심이 생소한 개념이다. 그러나 군대에 들어와 우리나라의 역사를 배우고 나라를 어떻게 지켜 왔는지, 그리고 왜 지켜야 하는지 이론적으로 배우고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애국심이 무엇인지, 자긍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내가 있고

내 옆의 전우들의 존재하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안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많은 동포들이나 재외국민들은 분명 나와 같이 군 입영을 앞두고 많은 갈등을 할 것이며 몇몇은 나와는 다른 길을 걸어갈 것 이다. 나는 밑으로 남동생이 두 명 있다. 그들도 나와 같이 입영을 두고 고민하는 중이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입영을 강요하거나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강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군대를 경험하고 더 일찍 같은 고민을 했던 선배로서 입영을 두고 고민하는 재외국민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지금 나 자신을 있게 해준 조국과 선조들에게 보답하고자 한다면 입영을 하라. 그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군대를 간다

제1야전군 제8군단사령부 제102기갑여단
일병 손 윤

매일 밤 어둠이 짙게 내려앉던 2015년 말, 나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결정, 바로 군 입영이었다. 13세 때 온 가족이 필리핀으로 이민을 가 고등학교 졸업까지, 그 후 혼자 미국으로 건너가 UC버클리(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공부하던 내게 군 입대란 그저 막막했다. 10년 가까이 한 유학생활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소속감이 조금은 결여된 것도 사실이고, 무엇보다 온실 속 화초 같이 공부만 하며 자란 내가 군인이 된다니 감히 상상할 수 조차 없었다. 그랬던 내가 군 입대를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는 내 주변사람들을 보고 얻은 깨달음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건아로서 국방의 의무는 틀림없이 선택 아닌 필수이지만, 나를 비롯한 내 주변 유학생 친구들 대부분은 군 입대를 막연히 피하려한다. 내가 속해 있던 사회에서는 흔한 일이라 그런 사람들을 폄하하거나 딱히 손가락질 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그 중 하나가 되고 싶진 않았다. 몇날 며칠을 곰곰이 생각해보았지만,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사실은 틀림없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대로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 입영을 하는 것은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간단한 논리였다. 더군다나 군대를 갔다 온다고 해서 내 앞날에 불이익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망상 같았다.

그렇게 나는 급하게 휴학을 하고 무더운 더위가 기승하던 2016년 8월 16일, 대한민국 육군에 입영했다. 논산 육군훈련소로 향하는 마지막 걸음을 함께해준 우리 아버지는, 약 30년만에 다시 와보는 육군훈련소에 감회가 색다르다고 상기하셨다. 그러면서 입영을 결심해준 내게 슬쩍 고마움과 자랑스러움을 돌려서 표현 하셨다. 헤어지기 직전에는 그동안 자주 하지 못했던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오랜만에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보았다. 아버지의 눈가 주름을 타고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을 처음 보고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다. 서둘러 인사를 마치고 정신없이 입영하는 와중에도 아버지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그저 잠시 멀어졌을 뿐인데, 새삼스럽게 부모님과 동생, 그리고 내 주변인들의 존재가 더욱 소중히 느껴졌다. 이때가 내가 군에 입대하길 잘 했다고 생각한 첫 번째이다.

훈련소 생활은 말 그대로 신세계 그 자체였다. 일단 예상했던 대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집합해 있었다. 내가 입영한 훈련소 기수에는 나와 같은 국외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자원병역 이행자들이 많았는데, 그들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같은 뜻을 가지고 모인 멋진 전우들이 많았다. 군대라는 또 다른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단체생활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까지. 모두들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서서히 적응해가는 우리는 서로를 보며 감탄하곤 했다.

개인적으로 훈련소의 체계적인 훈련병 육성 시스템에 많이 놀랐다.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군에 관한 부정적 이야기들이나, 80~90년대 군대를 다녀온 아버지 지인들에게 내가 입영 전 들었던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환경이었다. 첫 1~2주차에는 신체검사 및 정신교육을 통해 스스로 정체성과 안정감을 확립할 수 있는 적응기간을 가졌고, 그 이후에도 수준에 맞는 훈련을 차차 받다보니 어느새 기본기가 탄탄한 군인이 되어있었다. 나는 고등학생 때 앓았던 기흉으로 신체등급 3급을 받아 체력적인 면에서 걱정이 많았었지만, 간부님들의 지도와 전우들의 배려가 큰 힘이 되었다. 이런 신체적 결함을 알고 있던 나는 일부러 '분대장

훈련병’이라는 직책에 지원하여 다른 훈련병들을 따라가려고 더 열심히 훈련에 임했다. 분대장 훈련병을 하며 어깨너머로 본 간부들은 안 보이는 곳에서 하는 일이 더 많았다. 하루도 빠짐없이 훈련병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조치하며, 지속적인 면담을 통해 관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느꼈다. ‘아, 군대는 우리를 단순히 전투력의 일부분이 아닌 국가의 재산으로 생각해주는구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5주 동안 정이 쌓인 동기들과 작별인사를 나누고 또 다시 긴장하며 전입 간 곳은 강원도 고성군에 위치한 제102기갑여단 기갑수색중대였다. 전산추첨으로 4.2" 박격포 주특기를 부여받은 것도 모자라, 설상가상 유난히 힘들다는 수색중대로 배치되었을 때는 다시 입영 전처럼 눈앞이 캄캄해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중대장님과 행정보급관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이 신병인 나에게도 가족같이 대해주어 한결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바다에서 여의주를 품고 올라온 해룡을 군복 오른쪽 가슴에 새겼을 때, 나는 비로소 진정한 군인이 되었음을 실감했다. 내가 입영할 때 훈련소에서 품었던 뜻을 되새기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좌절하지 않고 내 주특기 실력 향상에 매진했다. 처음에는 서먹했던 동기들에게도 먼저 말을 걸고, 선임들에게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서서히 문화적 차이와 다른 관념으로 인한 마찰을 줄여나갔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흉장의 무게를 견뎌내기란 힘들었다. 바로 기흉의 여파, 지니고 있던 신체적 아픔의 벽은 끝내 넘지 못했다. 수차례의 훈련 중 장갑차 탑승 때마다 가슴통증을 동반한 답답함을 느꼈던 것이다. 이를 바로 옆에서 목격한 간부님은 바로 중대장님께 보고를 했고, 추후 행정보급관님과의 상의 후에 보직 변경이 결정되었다. 나를 중대본부 ‘인사행정병’ 이라는 직책으로 변경하면서, 행정보급관님은 내가 단순히 아파서가 아니라 내 잠재력을 더 발휘할 수 있어서라며 격려의 말도 빼놓지 않으셨다. 이렇게 누구라도

신체조건을 고려하여 중대 자체적으로 유연한 보직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대원들 모두가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했다. 그 후 나는 중대원들과 두루두루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었고, 전투소대원들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한 발짝 뒤에서 지원하며 협동과 소통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깨우치게 되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은 새로운 경험을 했다. 새로 전입한 분대 후임 중 한 명이 검정고시 공부를 희망했는데, 중대 내 멘토로 내가 선정 된 것이다. 여단에서는 필요한 교재와 학습 자료를 제공했고, 중대에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과 여건을 보장했다. 덕분에 후임병과 나는 4월 초 시험 날짜에 대비해 3월 전체를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 짧은 기간 안에 7가지 과목을 모두 준비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여단 차원에서의 지속적인 관리와 중대 자체 점검 등을 통해 결국 후임병은 평균 80점대라는 훌륭한 점수로 짜릿한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좋은 결과로 우리가 얻은 포상휴가도 기분이 좋았지만, 무엇보다 이루지 못했던 오랜 바람을 군에 와서 달성한 후임병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매우 보람차고 뿌듯했다. 군인임과 동시에 사회인으로서 진정한 자기계발과 정신적으로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군생활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었다.

지난 5월, 나는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으로 첫 정기휴가를 다녀왔다. 처음에는 과연 내가 군인 신분으로 국외여행을 다녀올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여단 인사처와 국군재정관리단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휴가여비까지 전액 지급받으며 수월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이는 국방부 훈령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매 정기휴가 때마다 보장이 되기 때문에 필리핀 재외국민인 나로서는 상당히 안심되는 부분이었다. 13일이라는 긴 시간동안 휴가를 다녀오면 흔히 말하는 '후유증'이 있을 것 같았지만, 막상 다녀오니 내 정체성과 내 현재 본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입영전의 나를 잊지 말고, 입영 한 후 현재의 나로써 최

선을 다하며, 전역 한 후의 나를 그리며 현 임무에 충실한 내가 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다.

우리는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피격사건, 5차 핵실험을 겪으면서 북한의 대남 적화야욕이 변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또한 UN안보리의 7차 대북 제재 채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열악한 경제 상황을 개의치 않고 비대칭전력 증강에 혈안이 돼 있다.

"知彼知己 百戰不殆"

우리는 손자의 지피지기 백전불태(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당부를 잊지 말고 적의 실체와 의도, 능력을 명확히 알고 완벽한 대비 태세를 갖춰 국가와 국민을 수호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39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이다.

지금도 2015년 말 입영을 앞두고 고민을 했던 나처럼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물론 내가 그들의 선택에 왈가왈부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내가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현재 오른쪽 어깨에 태극기를 단 국가대표로써 진정한 국위선양을 하며 느끼는 이 자긍심은 가히 무한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20대 초반의 21개월이라는 청춘을 국가와 국민을 지키며 진정한 성인으로 거듭나게끔 바치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 군에 오면서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은 더 확고해졌고, 수많은 배움과 깨달음이 있었다. 내가 가는 이 길의 끝은 대한민국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모범장병

제3야전군 1군단사령부
일병 채 성 필

"성필아,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말 몰라? 꼭 말을 해줘야 알아?"
선임의 호통에 나는 재빠르게 움직인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항상 그랬듯이 나는 눈치가 부족했고, 나는 또 다시 못난 신병으로 낙인 찍힌다.

"쟤는 미국물을 먹다 와서 그런가, 왜 이렇게 군대식 센스가 없냐?"

마치 들으라는 듯이 선임은 또다시 내가 미국에서 살다 왔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미국물을 먹다 온 놈.' 나는 전입을 왔을 때부터 그렇게 불렸다. 나를 그렇게 정의하는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나는 미국 영주권자다. 인생의 대부분을 미국에서 살았고, 전역 후에도 미국에 가서 생활을 계속할 예정이다. 그렇기에 한국식 문화, 그리고 군대식 문화는 내게 낯설게 느껴졌고, 사실 입영 전에는 알아야 할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다. 불과 1,2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군대를 가게 될 줄이나 알았을까? 그렇기에 사람들은 나에게 항상 동일한 질문을 한다.

"너는 원래 군대 안 와도 되는데 왜 왔어?"

그러게 말이다. 나는 군대에 왜 왔을까? 얼마전 잡지를 보다가 영주권을 가지고도 자원입대를 결심한 어느 용사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 이 사람은 거의 평생을 미국에서 살았으며, 29

살의 어린 나이로 미국의 한 유명 대학교에서 교수직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직을 연기하고 군 입대를 택했다. 그가 군대를 가게 된 이유는 단 하나, 한국 남자이기 때문이다. 이미 너무나 멋있었다. 하지만 그뿐인가, 군대에서 적응을 잘 한 그는 분대장 견장까지 달고 분대원들의 존경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훌륭한 모범장병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얼마나 이상적인가? 나도 군 입대를 결정한 이유가 그렇게 영화 같았으면 어땠을까? 더 열심히 할 마음이 생겼을까? 하지만 내가 군대를 가게 된 이유는 위의 예시보다는 조금 덜 특별하다. 나의 아버지는 한국 남자라면 무조건 군대를 가야하는 곳으로 여기셨고, 그런 아버지에게 나는 거의 떠밀리듯이 입영을 하게 되었다.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없어서였을까, 나의 군 생활 초기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다. 나는 훈련소에서의 첫 아침점호를 아직도 잊지 못한다. 가사도 잘 모르는 애국가와 이해조차 되지 않는 육군 복무신조를 제창하면서 나는 눈물을 훔쳤다.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아버지가 미웠다. 군대에 적응할 자신이 없었고, 솔직히 적응할 마음조차 없었다. 내가 한국 군대에서 배운 것을 사회에 나가서 쓸 일이 있기나 할까? 원래 안가도 되는 곳이지 않나? 나는 미국에서 살 것인데 말이다. 이러한 생각들 속에서 나는 서서히 군 생활과 벽을 쌓고 있었고, 그럴수록 나는 군대라는 집단에서 조금씩 도태되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되었고, 나는 여전히 군 생활에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오늘은 무엇을 해야 시간이 빨리 갈까? 어떻게 해야 체력단련을 빠지지? 몸 쓰는 것은 너무 싫다……' 나는 작업을 피해 창고 한구석에서 정리 하는 척을 하고 있었고, 하루 일과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때, 방송으로 내 이름이 불렸다. "채성필 일병, 지휘통제실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지휘통제실에서 내 이름이 불리는 것은 그리 좋은 일이 아니다. 열이면 아홉은 내가 잘못

한 일이 있거나, 내가 한 업무에 문제가 있을 때 내 이름이 불리기 때문이다. 나는 안 좋은 소식을 예감한 채 힘없는 발걸음으로 지휘통제실로 향했다. 하지만 그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나를 혼낼 준비를 하고 있던 선임도, 내가 한 일처리 때문에 피해를 본 담당간부님도 아니었다. 나를 불렀던 사람은 나의 분대장, 범수였다.

범수는 비록 나와 동기지만 나보다 10개월이나 군 생활을 더 했다. 그는 업무 면에서 완벽함을 추구했고, 나의 잘못된 행동들과 태도에 대한 지적을 서슴치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범수는 동기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조금 멀게 느껴지는 군기대장 같은 존재였다. 사실 나는 범수가 싫었다. 사소한 태도를 가지고 민감하게 지적을 하는 것이 짜증났고, 동기끼리 괴리감 느껴지게 행동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나는 굳이 업무에 관한 일이 아니면 범수와 말을 하지 않았고, 그를 피해 다녔다.

그런 범수가 나를 불렀고, 나는 또 무슨 일인가 싶었다. 그의 손에는 종이 하나가 들려있었고, 범수한테 다가가는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들었다. '저 종이는 뭐지? 또 업무인가? 아니, 설마 나 영창가나?' 나는 속으로 온갖 상상을 하며 종이를 보기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범수의 손에 들려있던 것은 징계서도, 업무도 아니었다.

"모범...장병 나라사랑 캠프?"

모범장병 나라사랑 캠프는 국외 영주권자나 국외 시민권자 등 해외 자원입대를 결정한 이들을 위해 만들어진 캠프였고, 영주권자였던 나는 지원여건에 부합했다.

"너 영주권자잖아, 이거 지원해서 붙으면 전국 방방곳곳 다닐 수도 있고, 휴가도 준대. 한번 가보면 너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범수는 나한테 캠프 공문을 건네줬고, 나는 이런 기회를 준 범수가 고마우면서도 다른 사람도 아닌 범수한테서 이런 기회를 받는다는 사실에 살짝 의아했다. 캠프의 이름 또한 나와는 맞지 않았다. 모범장병? 나는 모범장병과는 거리가 멀

었다. 여전히 많은 선임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었고, 군 생활에 열심히 임한 적도 없었다. 항상 몸을 쓰는 작업을 피해 다니기 바쁜 나였다. 범수는 무슨 생각으로, 내가 뭐가 예뻐서 이런 기회를 줬을까? 아무튼, 나는 캠프에 지원을 했고, 운 좋게 붙어서 바로 다음 주 생각지도 못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아침 일찍부터 나는 국방부로 향했고, 그 곳에서 다른 참가자들을 만났다.

참가자들 중에는 나와 같은 국외이주자가 대부분이었고, 모두 자원 입대자였다. 하지만 입영을 결정한 이유는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들은 나같이 아버지에 의해 등 떠밀려 왔고, 어떤 이들은 미래에 한국에서 살고픈 마음에 입영을 결정했다. 참가자 중에는 특전사 또한 있었는데, 그는 잡지에서 보던 남자같이 한국 남자로서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나는 그가 존경스러우면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집결 후, 우리는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을 방문했다.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현장학습으로 몇 번이나 방문했던 적이 있던 곳이었고, 아주 지루한 곳으로 기억에 남아있었다. 귀찮았다. 피곤하고 지루한 경험이 될 것이 뻔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거대한 광장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초록색 군복에 백색 태극기를 붙인 군인들 100여명이 지나가자, 모두의 시선이 우리한테 쏠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장학습을 나온 초등학생들은 급기야 우리를 보며 군인아저씨라면서 박수를 쳤다. 부끄러웠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얼른 기념관에 입장했다.

박물관 내부에는 6.25전쟁 때 사용됐던 실제 무기와 그 시절 사용된 물품 등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전쟁 상황을 설명해주는 자료가 전시되어 있었다. 우리의 가이드는 전쟁 당시 우

리나라가 얼마나 불리한 상황이었는지, 북한이 얼마나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었는지 설명해주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또한 이야기해주셨다. 정신교육이나 훈련소 때 수없이 접한 내용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실제 무기들을 보면서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니, 이론으로만 접했을 때보다 훨씬 전쟁 상황의 급박함과 긴장감을 더 잘 느낄 수 있었다. 또한, 군대와 우리나라에 대한 지식이 많이 생긴 후에 방문한 전쟁기념관은 확실히 더 흥미로웠다. 특히 한때 우리 군단의 군단장님이셨던 백선엽 장군님께서 북한군에 나라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낙동강 방어선에서 치열한 전투를 해 결국 UN군의 지원이 올 때까지 버티셨던 일화를 들으면서 우리 부대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관람이 끝나고 박물관에서 나오자 또 다시 많은 시선이 우리한테 쏠렸다. 하지만 왜였을까, 더 이상 군복을 입은 내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다.

둘째 날, 우리는 평택에 있는 제 2함대 사령부를 방문했다. 그 곳에서 먼저 제 2연평해전 때 실제로 사용된 참수리호와 그 바로 뒤에 있는 서해수호관을 방문했다. 참수리호에 박혀있는 총알자국을 본 순간부터 나는 내가 하게 될 견학의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직감했다. 서해수호관은 NLL에서 우리나라의 해역을 지키다 전사하신 분들을 기리기 위해 지어진 곳이다. 1999년도에 발발한 제1연평해전에서부터 불과 몇 년 전 있었던 연평도 포격도발, 그리고 천안함 피격사건까지 아찔했던 순간들의 생생한 현장을 담은 이 곳은 북한의 각종 도발에 의해 안타깝게 전사한 선배 전우님들의 유품까지 전시해놓고 있었다. 중사, 병장 그리고 심지어는 이등병의 계급으로 전사한 안타까운 이들의 사진을 보고 그것이 나였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생각들은 많은 궁금증으로 발전해나갔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을까? 생사가 걸린 상황에서, 그것도 아직 앞날이 창창한 20대에 왜 도망치지 않았을까? 그리고 故 한주호 준위는 무엇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구조작전을 펼친

것일까? 서해수호관에서 접했본 NLL에서의 치열한 전투와, 그런 북한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선배전우님들을 보면서 군인으로써 나의 태도를 다시 한 번 반성해볼 수밖에 없었다.

이어서 우리는 피격된 천안함의 선체를 보았고, 나는 선체의 웅장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몇 분 전에 봤던 참수리호 보다는 몇 배는 더 큰 크기, 하지만 그런 천안함은 북한의 도발로 인해 무자비하게 두 동강이 나 있었다. 그리고 발견된 증거물들, 어뢰의 표기법, 선체가 터진 방향, 그리고 외부에서의 충격 등은 모두 천안함의 침몰을 북한의 소행으로 가리키고 있었으나, 북한은 이를 뻔뻔하게 부정하고 있었다. 화가 났다. 뻔뻔하고 더러운 방법으로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만행을 참을 수가 없었고, 그런 북한에 의해 대한민국의 아들들이 희생되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나는 영원히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한 채 천안함을 뒤로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부터 대전 현충원을 가는 일정이 잡혀있었다. 빡빡한 스케줄에 모두가 체력적으로 지쳐있었지만, 우리의 발걸음만큼은 힘차고 묵직했다. 버스에서 하차하자 웅장한 기념비가 우리를 맞이했고, 군복을 입은 100여명의 모범장병은 현충문을 통과해 선배 전우님들을 마주하고 묵념을 했다. 훈련소 첫날에 내가 했던 묵념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진실된 묵념이었다. 6.25전쟁에서 싸우다 전사하신, 서해를 수호하다 전사하신,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다 전사하신 수많은 선배전우님을 위한 묵념이었다. 2박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눈부신 대한민국의 아들, 모범장병으로 성장해있었다. 더 이상 군대는 남의 일이 아니었다. 군대가 있기에 현재의 나와 내 국가가 존재하고,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Freedom is not free” 라는 메시지를 기억한 채 짧지만 깊었던 캠프는 막을 내렸다.

캠프가 끝나고 휴가를 나온 나는 집으로 가지 않고 대구로 내려가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산소를 방문했다. 6.25전쟁 참전용사이셨던 할아버지는 15년을 근속하시고 현재 국립영천 호국원에 안치되어있으시다. 사실 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가 군대에서 15년을 근속하셨는지도 몰랐고, 왜 그렇게 오랫동안 군대에 몸을 담으셨는지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알던 할아버지는 평생 연구를 하셨고, 나는 그 사실이 더 멋지다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군복을 입고 처음으로 할아버지를 뵌 순간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자랑스러움을 느꼈다. 할아버지께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신 분들 중 한 분이셨다는 사실은 어느새 나의 가장 큰 자부심 중 하나로 남아있다. 나는 절 대신에 절도 있는 경례로 고마움을 표 했다.

입영한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아직도 군 생활은 쉽지 않고, 아직까지도 나는 '군대식 센스'를 완벽하게 터득하지는 못한 것 같다. 여전히 나는 전역 후 미국에서 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군대에서 내가 배운 기술이나 정보를 훗날에 사용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상관없는 듯 싶다. 나를 위해 박수치던 아이들, 나의 할아버지가 안치되신 아름다운 호국원, 그리고 나의 존재는 모두 선배 전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내가 미래에 살 곳이 어디든, 병역의 의무는 한국인으로써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나와 동료들이 나라를 위해 열심히 복무하면서 선배 전우님들이 목숨을 바쳐 지켜낸 우리나라의 금수강산과 내 오른쪽 어깨에 붙어있는 태극기가 지켜진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의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워진다. 하지만 내 발걸음은 항상 힘찰 것이다.

소중함을 깨달은 시간들

27사단 79연대 2대대
상병 김 지 훈

어릴 적엔 '내가 크면 통일이 되어서 군대에 가지 않겠지', '재외국민 이니 군대에 안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 '군대를 가면 21개월 동안 시간 낭비를 한다', '갈 곳이 못 된다' 이런 말들을 하던 사람들도 있고, '진정한 남자가 된다', '배울 것이 많다', '미리 사회생활을 경험 할 수 있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상반된 의견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쌍둥이 동생과 함께 2016년 3월 14일 자원 입영을 했습니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과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의 영향이 입영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장교 출신이고 쌍둥이 두 아들들이 장교로 임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군 입대를 하기 2달 전부터 아버지께서는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말씀들 중에 제일 많이 생각나는 것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라, 군대에서 아프지 마라, 다치지 말고 건강하게 복무 마치고 와라" 지금도 글을 쓰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때 아버지께서는 쌍둥이 아들들이 얼마나 애틋하셨을까 라는 생각이듭니다.

2016년 3월 14일 아버지는 멕시코에서 일 때문에 못 오시고, 당시 몸이 아프셔서 병원 때문에 한국에 계셨던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논산 훈련소로 갔습니다. 집에서 밖으로 발걸

음을 내미는 순간 ‘드디어 가는구나’, ‘이 집은 언제 또 올 수 있을까’ 라는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산훈련소에 도착해 심사대로 걸어가면서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는데 그때 그 느낌은 말로도, 글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뭉클했습니다. 서로 ‘괜찮아’, ‘파이팅’, ‘잘 할 수 있어’, ‘아프지 마’ 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심사대에 도착했습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빨리 가시라면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손을 잡으려는 두 분을 피해서 연병장으로 터벅터벅 걸어가 줄을 서 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속 저와 제 동생의 이름을 부르시며 ‘아들들 파이팅!’ 이라고 외치셨지만, 저희는 눈물을 보일 까봐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며 연병장 한 바퀴를 돌며 지나가는데, 어머니께서 “지훈아, 도훈이 잘 챙기고 우리 아들들 파이팅” 이라고 큰소리로 외치셨는데 그 말에 전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 후 훈련소에서 첫날밤을 보내면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잘 가셨는지 걱정이 되고, 자고 일어나면 집이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교육과 훈련 끝에 수료식이 다가오고, 수료식 날 가장 보고 싶었던 가족을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도중 핸드폰으로 자대 결정 문자가 왔습니다. 안 좋은 곳이라 소문난 ‘27사단 이기자 부대’ 였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저런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니 제가 입영을 결심했던 계기 중 하나가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자 였는데, 진짜 남들과 다른 삶을 살수 있을 거 같아 한편으론 기쁘기도 했습니다.

수료가 끝나고 다음날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강

원도로 가면서, 남은 군 생활을 보내야하는 곳, 선임들이 있는 곳이라는 생각이 들자 조금 무서워졌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험은 모두 처음은 힘들지만 적응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켰습니다.

제대에 전입을 가고 적응을 하는 도중, 옆에 있는 제 동생이 많이 힘들어 하는 모습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매일 밤 힘들다며, 한번은 나쁜 생각까지 했다며 저에게 말을 했을 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외국민이 자원 입대를 하게 되면 원하는 자대로 갈 수 있는 결정권이 있었는데, 저희가 입영을 하고 나서부터 그런 제도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으니 동생은 더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입영하면서 어머니께서 제게 동생을 잘 챙기라는 말씀이 문득 떠올라 동생 옆에 꼭 붙어서 적응하는데 도와주었고, 이걸 계기로 원래 단단했던 저희 둘의 우애는 대리석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자대에 전입간지 1주일이 지나 부대는 저에게 첫 임무를 주었습니다. 연대 전술이라는 큰

훈련으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열심히 했지만, 훈련 전날엔 긴장감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첫 훈련은 칭찬도 받고, 혼나기도 하면서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훈련을 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준비를 했다면 실수가 적었을 텐데, 여벌의 옷을 챙겨갔으면 감기에 걸리지 않았을 텐데, 눈치가 더 빨라 선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대처 했으면 잘할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훈련 때의 경험을 계기로 앞으로는 준비를 철저히 하여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살아야겠다 느꼈고, '군대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던 준비가 철저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일병이라는 계급장을 왼쪽 가슴에 달고 신병위로 휴가를 나갔습니다. 집에 가면 부모님께서 안아주고 따뜻한 밥을 해주실 것 같았지만, 부모님은 멕시코에 계셔서 뵙지 못했습니다. 집에 혼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데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휴가를 다녀 온 동기들 말을 들어보면 휴가 때 집에 가니 어머니가 상이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고생했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난다는 말에 더 슬퍼졌습니다.

부모님이 한국에 안 계셔서 외할머니 댁에 가려고 준비하던 중에, 입영하는 날 할머니께서 다 낡으신 신발을 신으셨던 게 기억나 신발 한 켤레를 사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할머니는 누구보다 절 반겨주셨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삼겹살을 굽고 청국장을 끓여 주셨습니다. 훈련 때 나가서 먹었던 밥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혼자여서 서러웠던 마음들이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 오면서 내가 만약 군대에 가지 않았더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 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입영을 잘 했

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14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열심히 복무하면서 저는 동기들이나 중대 사람들이 부러웠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을 때면 전화해 면회 와 달라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부대 개방행사를 하면 부모님이 오셔서 같이 부대 구경도하고, 부모님과 외박을 나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하지만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입영을 하고나서 가족이 더 애틋해졌고 어른이 되어가는 길에 한걸음 더 다가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지만 참고, 지금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동기들, 선임들, 후임들, 그리고 제 동생 도훈이가 있기에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7개월 동안, 남은 시간까지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복무를 하며, 제가 전역하고 난 다음 제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이 저로 인해 피해 받지 않게 하고, 앞으로 더 많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한 자리도 소홀한 자리는 없습니다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 본부중대
상병 김 현 우

여느 때와 별 다름없던 5월의 아침, 세면세족을 마치고 잠시 동안 생활관에 누워서 빈둥거리고 있던 저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에이, 동기거나 몇 달 차이 안 나는 선임이겠지?' 하고 엎어져 있던 저는 생도 이발병 동기인 윤석이가 "충성!" 이라고 하는 소리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원래 아침식사 후 일과 준비 시간에는 침대에 누워있으면 안되는 게 중대 규칙이라 3소대장님이 들어오신거에 두려움 반 놀람 반 섞인 목소리로 "수고하십니다!" 라고 소대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소대장님은 "현우? 너가 외국에서 살다온 애 맞지?" 라고 말하셨습니다. 맞다고 대답한 저는 곧이어 왜 입영했냐는 소대장님의 질문에 살짝 당황했습니다.

'음, 뭐지...? 혹시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며 조마조마하던 저는 평소에 이 질문을 들으면 항상 하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무리 제가 외국에 살아도 한국인이라면 한국과 관련된 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국에서도 군필을 중요하게 여겨서 입영했습니다." 물론 제가 군대에 온 이유가 순수하게 이것만은 아니지만, 소대장님은 '그럴 수 있지' 라는 듯 한 눈치로 알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소대장실로 오라는 말씀에 저는 다시 한 번 살짝 놀랐지만,

다행히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전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한국사회에서 남자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모두 군복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면제나 아직 입영하지 않은 남자들은 군필자들과 비교해 사회의 수많은 부분에서 구별을 당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의 채용은 말 할 것 없고 심지어 요즘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을 뽑을 때에도 군필이냐 미필이냐를 따집니다. 그런데 아까 소대장님의 말처럼 전 엄밀히 말해서 군대를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태국, 즉 싸와디캅과 똠얌꿍의 나라 태국에서 9살 때부터 입영하기 전까지 살았기 때문입니다. 외국으로 이주해서 여행 목적이 아니라 장기간 체류하면 병무청을 통해 37세까지 국외이주허가를 받아 군복무 면제가 됩니다. 이 사실이 군대를 안 가려는 편법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굳이 갈 필요 없겠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에게는 대한민국에 거의 안가고 악착같이 군복무를 회피하려는 걸로 보였기에 입영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태국으로 이전되면서 온가족이 태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한인학교를 다녔고 태국에 있는 국제대학교에서 2학년 과정까지 마친 후 약 1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와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했습니다. 그렇지않아도 익숙하지 않은 한국인데 사회로부터 뚜렷하게 분리된 군대라는 곳은 저에게 낯설기 그지없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분대장들이 말할 때 잘 알아듣지 못해서 일명 '얼을 타는' 경우도 많았고, 제 또래의 한국인들 즉 제 동기들과 함께 훈련소에서 있으면서 태국에서는 접하기 힘든 모습과 문화를 새로이 경험해보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인터넷이나 TV에서 보기만 했던 한국 군대에 막상 와보니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영하기 전 몇 달간, 아니 몇 년 사이 병영문화가 개선되었기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렸을 때부터 살짝 두려움을 안겨준 군대의 구타나 가혹행위 등은 거

의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대배치도 육군사관학교로 받았을 때는 서울의 좋은 부대에 간다는 생각이 들면서 자원 입대자를 배려해준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처음 육군사관학교에 발걸음을 내딛은 날, 인사행정처에서 같은 날 육군사관학교로 전입 온 약 10명의 동기들과 같이 둥그렇게 앉아서 희망하는 보직을 종이에 썼습니다. 특기 없이 미분류로 온 저는 결론을 얘기하자면 밤낮으로 정문에서 초병근무를 하는 교육지원중대 경비소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본부중대의 P.X용사가 되느냐 또는 생도들 머리를 커트하는 이발병이 되느냐 셋 중 한 가지를 골라야 했습니다. 이발병은 매 분기마다 휴가도 나오지만 '손재주도 별로 없는데 이발병은 힘들겠지? 이발을 잘 못 하면 혼나겠지?' 하는 생각에 일단 포기를 했고, 반기에 4박5일 위로휴가가 나오지만 개인정비 시간이 부족해 힘들다는 P.X병을 하려하는 동기가 아무도 없자 저는 잠깐 주춤거리다가 "이병 김현우! P.X병 관심 있습니다." 하고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때 내린 결정이 현명한 선택 이였는지는 오늘까지도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튼 저는 전역하는 내년 3월초까지 육군사관학교에서 P.X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중대에 처음 들어섰을 때, 많은 것들이 저에게 놀라움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우선은 생활관이 동기 생활관 이었습니다. 그리고 침상이 아닌 침대가 있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한방에 12명이 넘게 지냈는데 육군사관학교는 6명이 널찍하게 쓸 수 있는 방에 심지어 에어컨까지 빵빵하게 나온다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것은 선임들 중 저와 비슷한 국외거주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외국민은 없는 듯 했지만 영주권자가 중대에 100명중 15명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입영 신청을 할 때 국외거주자가 자원해서 입대하면 군 생활 내 세 번 비행기 표와 휴가가 추가로 5일씩 (총 15일) 그리고 전역할 때 편도 표까지 나온다는 것을 들었는데 여기는 저 같은 사람이 많다보니 어려움 없이 받을 수 있겠

구나 라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실제로도 작년 11월말 저는 입영하고 반 년 만에 외국의 집에 수월하게 다녀 올 수 있었습니다. 본부근무대 지원과에서 일하는 제 선임과 재정과에서 일하는 중대 선임이 없었다면 아마 집에 다녀오지 못 했을 겁니다.

이렇게 여건도 좋은 환경에서 군생활을 하는 저를 보면 최전방에서 매일 산을 오르내리며 근무를 서는 사람들은 제가 너무 편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군대에 있는 동안만큼은 개개인 나름대로 쉬울 수만은 없고 힘든 점들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충성마트 관리병들은 평일에나 주말에나 남들은 일과를 마치고 쉬는 시간에 P.X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주말에도 오전에는 쉬지만 1년에 두 번 설날과 추석을 제외하고 하루도 빠짐없이 14시부터 마트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하루 종일 충성마트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일원으로서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갖고 제 임무에 임합니다. 철책 근무를 서는 최전방 전우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하는 것이고, 저와 같이 여기 육군사관학교 근무지원단에서 사관생도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도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방법 중 한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 휴가 때는 지하철에서 어느 할아버지께서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다고 사탕을 손에 쥐어 주셨는데 그 때 느낀 점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요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사회가 뒤숭숭하다고 해도 국군이 있기에 우리 장병들과 부모형제가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루는 것이라 느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 혹은 여러분의 자녀분들은 제 경우를 보고 국방의 의무를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저는 유사시 언제든지 나라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다짐을 해봅니다. 전역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 제 의무를 다 하겠습니다. 충성!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항공작전사령부 본부대 경비1중대
상병 김 현 우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인 20년이라는 세월을 멀고도 가까운 나라 일본에서 지냈습니다. 외국에서 지내다 왔지만, 그러나 단 한 번도 제가 일본인이라는 생각을 가진 적 없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문화에 대해 알려주셨고, 초등학교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민족교육을 가르치는 동경한국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일본에 있으면서도 한국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었고, 월드컵 등의 한국이 출전하는 경기가 있으면 힘껏 한국을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어릴 적부터 제 뿌리는 한국이라는 생각을 가지며 자라왔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하여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2016년 4월 18일에 대한민국 육군으로 입영을 했습니다. 입영을 결정했을 때 지인들은 이해 못한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며, 일본에서 살다 온 시간이 아깝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영주권이 있으면 자기계발을 하면서 본인을 위해 살아도 괜찮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반응이 조국의 부름에 응하기로 결정한 것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외국에서 자랐어도 제 국적은 한국이며 부모님도, 제 친척도, 친구들마저도 저와 같이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제가 한국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며, 자연스러운 것

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지인이 저에게 말했듯이 영주권이 있는 사람은 37세까지 외국에서 거주하며 입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라는 말이 있듯이 37세까지 외국에서 살다보면 그곳에 직장, 지인들 더 나아가 가정까지도 생길텐데,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제 마음이 항상 한국을 향해 있다 하더라도 제 자신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였다는 흔적이 남지 않아 조국에도 자신에게도 매우 실망스러울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당당하게 입영을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4월 중순, 꽃 피는 계절에 제 안에서 끓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훈련소에 입소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조국을 향한 열정'과 '자신감', 그리고 '당당함'만으로는 군복무를 견뎌내기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스쳐지나갔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장소와 그 날 처음 본 사람들과의 생활은 지금 생각해보면 추억이지만 그 당시의 저한테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입소하고 3일간은 입영심사대에서 몸이 안 좋거나 하는 이유 등으로 신병교육대에 가지 못할 인원들을 가려내는 데 시간을 모두 투자합니다. 때문에 힘든 훈련은 없었으나, 저는 흔히 말하는 향수병에 시달려 고생했습니다. 입소 첫 날밤에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기도 했습니다. 입영심사대에서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회에서 잘 지내고 계실 부모님, 그리고 8년이라는 오랜 시간동안 저랑 사귄 여자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남자라면 한번은 갔다와야하는 곳이라며 웃으면서 군 입대를 지켜봐주셨지만, 마음이 여려 결국엔 울음을 터뜨려버린 어머니와 여자친구 생각을 하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하루하루 버티다보니 3개월 같은 3일이 지나 드디어 신병교육대에서 본격적인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훈련소에서는 총 5주 동안 군인이 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을 배웠습니다. 먼저 훈련소에 들어가 배운 것은 정신교육이었습니다. 1주일의 정신교육 동안 주로 북한의 악행들에 대한 대한민국의 대단함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이 북한의 기습적

남침으로 큰 타격을 입어 세계 각국에서 지원을 받는 나라였는데,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지금은 다른 나라를 지원해주는 나라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가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 나라로 바뀐 유일한 나라라는 것을 듣고 나니 제가 한국인 이라는 것이 다시 한 번 자랑스러워졌습니다. 우리 민족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무너져도 이겨내려는 노력과 단순한 시련으로는 꺾을 수 없는 근성' 을 몸에 다시금 새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신교육을 거치고 나니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불살라 조국을 위한 기둥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입영 전 정신교육 시간이 제일 따분하고 시간이 안 간다는 말을 들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해주시는 간부님들도 간략하고 재밌게 설명해주실 뿐더러, 도중에 영상을 삽입하는 등 병사들이 교육받는데 있어서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사전에 국가에서 자료로 배부하여 준 이토록 유익한 정신교육을 듣지 못하고 자대에 갔다면, 아마 초기의 나라를 향한 열정은 바쁜 내무생활로 인해 점차 식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크게 감회되었습니다. 또한 열의를 확충하자는 의미로 실시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발표라던가 교육을 되짚어 볼 수 있는 문제 등으로 능동적인 교육을 함으로써 정신교육 시간은 항상 활기와 생동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배운 것은 그 유명한 사격술예비훈련, 소위 PRI라고 불리는 각개전투로 전 훈련병들에게 가장 큰 벽으로 다가오는 훈련이었습니다. 입영전에 피나고 알 베기고 이 갈리는 훈련이라는 것을 들은 저였기에, 훈련을 받기 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훈련으로 우정이 쌓인 전우들과 함께하니 그 두려움은 반감되었습니다. 물론 PRI는 생각했던 만큼 힘들었습니다. 군인이 당연히 해야 할 사격자세를 배우는 시간이니만큼 그 자세가 잡아지도록 수도 없이 반복을 했습니다. 실제로 무릎도 까지고 근육도 찢어지는 고통을 수반하였지만

옆에 전우들과 같이 행동하고 고통을 나누다 보니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전우의 존재는 기쁨은 두 배가 되고 슬픔, 고통은 반감시킨다는 말이 사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이나 주말에 전우들과 함께 보내고, 훈련 때는 같이 버티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니, 어떤 훈련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우려하던 PRI를 무사히 마친 저는 훈련소의 꽃인 각개전투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각개전투는 한 분대가 분대장과 부분대장 조로 나뉘어, 실제 전투처럼 각종 포복들을 이용해 전진하여 적에게 접근 후 공격하는 기술을 배우는 훈련이었습니다.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과 멀기만 한 도착지점, 그리고 계속해서 넘어지는 제 자신과 전우들을 보니 매순간 매순간이 너무나도 고되고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훈련소 생활에서 배워온 기술들을 응용하고 제 자신에게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이 점차 제 안으로부터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였을 때보다 여럿의 마음이 모였을 때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고 등에 지고 갈 각오가 되어있던 것입니다.

전우애! 그보다 더 적절한 단어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서로를 다독여가면서 힘들 땐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다보니 어느새 목표에 닿아있는 '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내 생에 이런 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과 글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하고도 뭉클한 감정이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이렇게 길고도 짧은 아쉬운 5주가 지나자 벌써 정든 훈련소를 떠나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새 삶의 일부가 되어버린 전우들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으로 우울해 있을때 옆에서 항상 의지가 되었던 조윤성 상병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훈련소에서 쌓은 인연들을 소중히 생각한다. 그렇지만 이별의 슬픔을 두려워하지는 말았으면 해. 전우란 떨어져있어도 항상 힘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이고 모든 군인이 너의 전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우란 단순하게 훈련소나 자대에서 친해진 사람들을 뜻하는 게 아닌 항상 곁에서 내 존재를 다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전우였던 것입니다.

자대에 와서 처음에는 말로만 듣던 악·폐습 및 부조리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선임병 위주로 돌아가는 하향식 막사분위기에, 선진병영의 면모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자대생활에 지쳐갈 때 새로운 중대장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중대장님은 병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고 마침 선진병영을 모토로 내세우는 추세에 맞추어 부대의 악·폐습 및 부조리를 완화시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후 눈에 띄게 부조리와 악습이 줄어들었으며 중대의 문란함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의 편지의 빈도수도 점차 줄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복무하는 1년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간부와 정부의 각고의 노력으로 인해 이토록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으니, 대한민국 육군은 앞으로 더욱 강인하고 건실한 모습으로 고착화되어갈 것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1세기가 되고 점차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요즘, 입영을 단순하게 시간을 때우거나 아무 의미와 생각 없이 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회가 되면 본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 공동체의식을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영하지 않아도 되는 해외 거주자들이 용기를 내 입영을 결정하고 자진 입대를 희망하는 것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영하여 충실히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사실에 대해 일말의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입영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처해 있는데 약 2년의 시간동안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것이 개인의 발전에 반하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이 또한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두려워 할 수는 있으나 그 두려움을 행동으로서 극복하라.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본인의 가능성을 알 수가 없다.' 본인의 책임과 위업을 이룰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국민이자 장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나라,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중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국민 여러분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여러분! 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현역병들과 이미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전역한 예비역 군인 여러분! 나라는 곧 우리이고 우리는 곧 나라입니다. 개개인의 힘이 모여서 국가안보의 안위를 결정하는 큰 요소가 됩니다. 조금 힘들고 고될지라도 모두가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평화로운 우리나라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군대에서 배우는 것들

35사단 103연대 3대대
상병 송 재 관

저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에서 19년 동안 거주하다가 한국으로 돌어와 군 입대를 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영주권이 있었으나, 군대를 갈 예정이라 했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한국어나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거 같으냐?” “선임들한테 맞지나 말아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걱정과는 달리 훈련병 생활은 정말 좋았습니다. 영주권자 자격으로 입영 했기 때문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전우들과 훈련을 해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지만 훈련병이 아닌 이병 송재관 으로서는 정말 많은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훈련병 시절 없었던 언어장벽이 생겼고, 보직변경도 하고, 군대에서 여러 가지 의견 충돌도 있었고, 사단 안에 있는 대회 수상도 하는 여려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03연대 3대대 9중대 소총수로 처음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대장님과 중대원들을 만나고 군 생활을 시작할 무렵 걱정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언어장벽이었습니다. 모든 중대원들은 제가 당연히 한국어를 알아듣는 줄 알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것을

못 알아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처음으로 불침번 초번을 들어갔을 때 선임이 제게 군 전화를 받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군 전화를 받을 땐 '통신보안' 이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고, 처음 듣는 단어였고, 이상하게 안 외워졌습니다. 저는 정말 그 당시 많이 혼란스러웠고 나중에 그 단어가 군에서 쓰는 '여보세요?'와 같은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일 이외에도 수많은 군대 용어와 병영생활 행동강령 외우기 등 알아듣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저는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고 노력을 해서 언어장벽을 깼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힘들고, 좌절도 많이 했지만 주변의 전우들이 이런 제 상태를 알고 하나하나 알려주고 도와주었습니다. 옆의 전우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상병 송재관은 절대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대배치를 받았을 때 소총수라는 보직을 받았지만 저는 꼭 받고 싶었던 보직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리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죄송스럽지만 9중대에 배치를 받고 중대장님한테 가서 조리병을 하고 싶다고 얘기했습니다. 중대장님은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전입한 다음 주가 유격이라 거기서 취사를 해보고 그 후에도 조리병을 하고 싶으면 해주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일주일동안 취사를 경험하고 소총수로 한 달간 지낸 후에서야 조리병으로 보직을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원하던 보직을 받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조리병이 되었단 행복도 잠시, 너무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군 조리관련 용어들을 외워야했고, 소총수 시절에 비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조리병은 힘쓰는 일도 많았고 음식을 만들면서 시간에도 쫓기고 개인시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 옆의 동료와 함께 하면서 괜찮아졌고 견딜만했습니다. 그렇게 조리병으로 복무를 하는 도중에 선임병과의 갈등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뉴로 비빔냉면이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선임병은 비빔냉면 소스를 엄청 맵게 만들자했

고, 저는 부대원 대부분이 매운 것을 선호하지 않는 걸 알기에 안 맵게 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서로 말도 잘 안하고 서로 할 일만 하고 지내다가, 이건 아닌 거 같아 서로 화해를 했습니다. 그 이후는 정말 서로 너무 잘 맞아서 선임이 제대하는 날까지 재밌게 지냈습니다.

조리병의 제일 중요한 임무는 아마 부대 음식의 맛을 책임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이유로 조리 병을 하고 싶었지만, 문제는 한식을 거의 먹어보지도 혹은 만들어 본적도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초반에는 다들 맛이 없다고 해서 속상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조리사한테도 물어보고, 선임병들한테 배우고,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레시피를 검색해서 실력을 키우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나 사람들이 제가 만든 메뉴가 맛있다고 해주고 칭찬해주니 조리병으로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군 복무를 하는 동안 가장 큰 일은 사단 요리 출격왕에서 수상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단요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바로 참가 신청을 했고 후임병과 같이 연대 예선에서 경쟁하여 준우승을 했습니다. 준우승을 해서 한편으로는 정말 슬펐지만, 후임병이 이겨서 기쁘기도 했습니다. 연대 예선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자가 보조 조리병이랑 같이 출전을 하는데, 후임이 저를 보조병으로 선택해 같이 사단요리 출격왕에 출전을 하게 됬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후임병을 보조 해서 요리를 완성했고 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들었을 때가 군 생활에서 제일 행복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끝으로 저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로 입영해 정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정말 행복한일도 많았습니다. 군대를 통해 한국어 언어 장벽을 깨고, 이제는 제가 외국에서 왔다고 말을 안 하면 영주권 입영자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또한, 조리병이라는 보직을 통해서 한식과 칼질을 잘 하는 법을 배우게 됐습니다. 취사장 최고선임으로서 책임을 갖고 후임을 도와

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현재 저는 군복무 중이지만, 입영을 했다는 것에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군복무를 하면서 언어를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고, 책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1년 8개월 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절대 사회에서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여기서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곳도 군대이고, 함께 하는 즐거움을 깨달은 것도 군대입니다. 영주권 자격으로 입영을 했지만 저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혹, 입영을 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우선은 자신을 믿고 당당하게 선택을 하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동료애와 전우애를 통해 사회에서는 배우지 못한 많은 자산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군대는 내게 선물이었다

제 11기계화보병사단 955포병대대
일병 공 원 준

2014년 여름이었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임에도 태어나서 한국 땅을 밟아본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나에게 가깝고도 먼 나라였다. 강남역에서 어머니와 함께 동작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대한민국 건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할 “군 입대”에 관한 이야기가 오고 갔다. 한국에서 자란 기간이라곤 몇 개월 밖에 되지 않는 내게 군대는 ‘21개월이라는 시간의 청춘을 낭비하는 곳’이었다. 그래서 주변 친구들이 “원준아, 너는 언제 군대 갈 생각이야?” 라고 물으면 내 대답은 항상 “음…… 군대 안 갈 것 같은데?” 라고 답하곤 했다. 군 입대 시기에 대한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완곡하게 입영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어머니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내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만약 너와 같이 외국에 산다는 이유로 군대를 안 가는 젊은이들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예상치 못한 어머니의 질문에 나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 날 이후,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23년 인생 중 22년을 한국이 아닌 타지에서 보냈다. 태어난 지 7개월이 되자마자 부모님은 나를 인도네시아로 데리고 가셨다. 그 이후로 20년을 뜨거운 태양이 1년 내내 내리쬐

는 열대의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그리고 나머지 2년은 부모님의 곁을 떠나 대학 공부를 위해 캐나다 밴쿠버에서 보냈다.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서는 부모님과 한국 TV 프로그램 시청을 통해 간접적으로 배울 수는 있었어도 한국의 역사나 조국애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애착보다는 '여권에 표기된 소속국가'라는 인식이 더 강했고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군 입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게다가 종이에 하나, 둘 적다보니 입영을 하면 희생해야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았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푸르른 나의 20대, 오랜 시간 동안 사귀어온 여자 친구와의 관계, 밴쿠버에서의 즐거운 대학 생활, 항상 힘이 되어 주는 대학 친구들 그리고 이제 막 적응해가는 전공과목 공부 등등, 적으면 적을수록 군 입대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다. 계속해서 군대가 내 인생의 정체기가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만 들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또 다시 여름에 한국 땅을 밟게 되었다. 지난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가슴 한 편에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과연 내 청춘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맴돌기 시작했다. 한 번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기에 이 질문의 해답을 찾기 위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으로 향했다. 박물관에 전시된 수많은 사진들, 유품들 그리고 영상들을 천천히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일본으로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리고 북한과의 6.25 전쟁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호국열사들의 이야기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특히 6.25 전쟁 때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지도상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 용사들 중 한 명의 말이 내 가슴을 울렸다.

"한국전에 참전하라고 했을 때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지만 국가가 가라고 했으니 내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갔다. 그러나 한국을 지켰기 때문에 한국전에 참전한 것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처럼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왔기 때문에 내 자신이 대견하다.”

그렇다. 우리 조상들뿐만이 아니라 피를 나누지 않은 수많은 숭고한 생명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현재의 대한민국이 굳건히 존재할 수 있는 것이었다. 박물관 견학을 통하여 나는 병역을 기피하는 것, 또 그럼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는 행동이 과거부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독립 운동가들과 참전 용사들에게 크나큰 결례를 범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더 나아가 인생을 길게 보았을 때, 2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워서 조국을 버리는 행위는 정말 비겁하고, 이런 식으로 한국의 젊은 남성들이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는 일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의 안보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걱정도 되었다. 이러한 큰 깨달음을 얻고서 나는 학업을 뒤로 하고, 영주권자 입영희망원 출원을 통해 나의 가족과 친구들의 생명,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입영을 결심하게 되었다.

2016년 가을이 되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머리카락을 6mm 길이로 삭발하고 훈련소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은 가볍지만은 않았다. 내 삶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보냈기 때문에 군대의 계급 문화와 한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걱정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군 적응 프로그램은 영주권 병사들에게 다른 훈련병들보다 1주일 먼저 군에서 사용하는 언어에 익숙해지고 군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해주었다. 무엇보다 중대장님께서 자라온 배경이 비슷한 영주권 병사들끼리 생활하고 훈련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훈련소 생활을 즐겁고 무사하게 보낼 수 있었다.

입영하기 전,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군대에서 중간만 해라,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요즘 군대는 우리 아버지 세대의 군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 남들보다 열심히 하면 주변에서 인정도 해주고 그에 따른 포상을 부여함으로서 병사들이 군 생활을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장려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한국과 군대에 대한 이해가 여느 한국인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상관없이 군대 예절을 열심히 배우려는 열의와 모든 훈련에 최선을 다해 임하는 열정,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전우들을 나서서 챙겨주는 모습들을 보여준 덕에 중대장 훈련병으로 뽑히게 되었다. 남들이 귀찮아하는 제식과 구호제창을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이해를 못하는 전우들의 옆에 책임지고 앉아 영어로 통역도 해주었다. 그리고 여러 번 천 명이 넘는 훈련병들 앞에서 지휘자로 선택되어 큰 목소리로 예령을 외치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경험들이 모여서 감사하게도 훈련소장 표창상이라는 큰 상도 받게 되었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군 생활동안 "중간만 하자"라는 마음이 아닌 "기왕 하는 것, 중간, 그 이상을 하자"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훈련소에서 보낸 군 생활은 재미있고 추억이 될 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자대 생활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오랫동안 겨울이 없는 열대지방에서 자라온 탓에 날씨가 상대적으로 추운 전방부대를 피하고 싶었지만 강원도 홍천으로 자대를 배치 받고 또 그 중, 훈련이 많기로 소문난 11사단에 배치가 되었다. 게다가 다른 직책들보다 계산능력과 지능적인 임무 수행을 많이 요구하는 '사격지휘병' 이라는 보직을 부여받았다. 솔직히 영주권 병사로 지원했기 때문에 내 특기나 전공과목을 십분 활용할 수 있는 보직을 부여받고 서울에서 가까운 자대로 배치되길 기대하고 있었던 터라 실망감이 굉장히 컸다. 그 뿐만이 아니었다. 동기들끼리만 지내다가 선임들과 같이 생활하게 되니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다른 동기들보다 자대에 늦게 전입한 탓에 동기들과 처음에 친해질 기회가 부족해서 소외감도 느끼고, 자대 생활을 오래 했다고 텃세를 부리는 선임들은 마주치기 꺼리는 상대가

되었다. 게다가 이해하기 어려운 압존법 사용,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로 가득한 주특기 공부는 나를 숨 막히게 하였다. 무엇보다도 처음 겪어보는 한국식 계급 사회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행동을 신중하게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일찍이 일깨워 주었다. 예를 들어, 고의가 아닌 조그마한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나뿐만이 아니라 내 선임들과 분대장이 피해를 보고, 또 그로 인해 내가 다시 꾸중을 듣는 악순환이 괴로웠다.

당시에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에 부모님께 조언을 많이 구했다. 캐나다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부모님과의 연락에 소홀했던 나였지만, 군대에 오고 나서는 부모님과의 전화 통화가 내 스트레스 해소법이자 군 생활에 동기를 부여해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다. 군 생활에 대한 어려움을 털어놓자, 어머니는 "우울하게 있어봤자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는단다. 기왕 하는 거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내면 좋겠다." 라고 하시며 날 격려하셨다. 어머니의 말씀이 맞았다. 마음만 먹으면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따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의 의무를 피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내가 자원해서 군대에 온 것이지 않은가? 내 선택을 되돌리기에는 이미 멀리 와버렸고 그 선택에 대한 후회는 하고 싶지 않았다. 이런 힘든 시기에, 내 일기장을 들춰보았는데 군 입대 전 적어두었던 스티브 잡스의 명언을 읽게 되었다. "앞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점들을 연결할 수는 없다. 뒤를 돌아봐야 점들을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 미래에 점들이 어떻게든 연결될 것이라고 믿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법은 결코 나를 실망하게 한 적이 없다. 오히려 내 인생

을 크게 바꿔놓았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사소한 사건들이 모이고 서로 연결되어 나의 운명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말이다. 어찌 보면 막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불평이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후로는 군대에서 무엇을 하든지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내가 군대에서 경험하는 수많은 일들이 미래의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생활하게 되었다.

거짓말처럼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자 상황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군대에 대한 나쁜 것들 보다는 좋은 것들에 더 초점을 두게 되었다. 예를 들어, 추운 날씨에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홍천보다 더 전방에 위치한 부대에서 혹독한 추위와 싸우고 있지 않아도 됨에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를 힘들게 했던 선임들과 친해지기 어려웠던 동기들도 내게 마음을 열고 다가와 주었다. 다행히도 내가 자라온 배경을 이해해 주고 흥미를 가져주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난 덕에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나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며 빠르게 친해질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사회에 있을 때는 평범하게만 생각되었던 나의 경험들이 군대에 오니 다른 이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다. 특히나 오랜 해외 경험 덕분에 현재 몇몇 포대원들에게는 틈틈이 개인정비 시간과 연등 시간에 영어를 가르쳐주고 있으며 유학과 워킹 홀리데이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을 꿈꿀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있다.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움츠리고만 있었다면 다른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도 못했을 뿐더러 지금쯤 암울한 군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사회에 있을 때 내가 좋아서 했던 것들을 군대에 와서도 활용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서 보람됨을 느낀다.

최근 몇 년 동안 군대에서는 “선진 병영 문화”라고 하여 이전에 있었던 부조리 및 강제적인 병사 교육 방식을 타파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병사들이 군 생활을 좀 더 편하고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병사들의 편의를 최대한으로 많이 봐주고 있다. 그 중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억압적인 교육 방식이 아닌 자발적으로 병사들을 따르게 하는 교육 방식이다. 특히 우리 포대의 상급자들은 우리들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기 전에 병사들에게 행동으로 모범을 보임으로써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한다. 한 예로 병사들이 특급전사 따는 것을 장려하기 위해 우리 포대장님께서는 열심히 주특기 공부와 체력 단련을 게을리 하지 않으신다. 또, 두발 정리를 엄격하게 강조하시는 간부님께서는 항상 본인이 솔선수범하여 두발을 신경쓰시기에 병사들도 자발적으로 두발을 정리하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포대의 리더들은 병사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우리가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나는 ‘솔선수범’이야 말로 군대와 같은 계급 사회에서 병사들에게 아주 강력한 사기충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상하체계가 뚜렷한 조직이니만큼 병사들은 상급자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복종해야 한다. 이는 만일 전시 상황이 발발했을 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서 군인으로서 반드시 몸에 익혀야 되는 습관이자 항시 무장하고 있어야 되는 정신 상태이다. 이러한 명령 체계가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병사들을 보다 격려하고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기 위해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내게 훌륭한 리더의 자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었다.

어느덧 군 생활을 시작한지 8개월이 되어간다. 이제는 사회에서 쓰던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보다 “화랑”이라는 경례 구호가 더 익숙한 군인이 되었다. 군대에 오기 싫어서 발버둥 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다른 이들에게 병역 의무를 독려하는 글을 쓰고 있을 만큼 가치관도 상당히 변했다. 군대는 나에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의 효과를 증명해주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선사해주고 무엇보다도 내 조국, 대한민국에 대해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선물해주었다.

앞으로 남은 군 생활동안 어떤 흥미로운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또 그 경험들을 통해서 어떠한 배움을 얻게 될지 정말 기대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전역 후 밴쿠버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가 생길 것이라는 것이다. 군대라는 집단에서 겪은 단체생활은 색다른 경험이 되어 내 인생에 비옥한 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군대라는 또 다른 학교

제75사단 208연대 본부중대
일병 김 수 현

나는 3살 때 미국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주를 했다. 집에서 한국말을 하면서 컸지만, 한국에서 생활한 기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 3년을 포함해도 7년 남짓이었다. 외국생활이 내게 당연하게 느껴져서였을까.

나는 한국에서 사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없었다. 한국과 나의 인연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피는 못 속인다고 하지 않나. 타지에 있어도 친구들이 삼성이나 LG제품을 일본제품으로 잘 못 알았을 때 제일 먼저 지적하는 나를 볼 수 있었다. 늦은 밤과 이른 새벽의 WBC 한일전이나 김연아 선수의 경기가 있을 때에는 잠을 쪼개가며 시청했다. 미국에 있으면서도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며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느 덧 대학교 졸업을 코앞에 두고 있었다. 4년 동안 장학생으로 보스턴대학교에서 경제학과 외교학을 전공하며 로스쿨까지 합격을 했다. 이제 대학원만 무사히 졸업하면 목표해 왔던 변호사가 될 수 있었다.

대학원 입학이란 다음 단계만을 생각하고 있던 나에게 방향을 틀도록 조언을 해 준 사람은 학과 멘토였던 미군 장교출신의 교수님과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미국에 살면서도 나에게 우

리말과 역사, 예의범절과 문화를 가르쳐주시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으셨다. 토요일만 되면 나와 동생을 한글학교에 보내고 또, 직접 나오셔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였다. 집에서 동생과 영어로 대화를 할 때는 부모님은 말을 멈추게 하면서 말씀하셨다. "수현아, 너는 한국인이야!" 대학원 합격소식을 부모님께 알려드렸을 때 아버지는 기뻐하면서도 나에게 다른 방향을 제시하셨다. "지금껏 너는 인생에서 악셀만을 밟아왔어. 앞을 보면서, 빠른 속도로 갈 길을 가며 많은 것을 이루었지. 그렇지만 앞으로 달리는 것에만 집중하다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경험들을 놓칠 수 있어. 군 생활은 그 중요한 경험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야. 입영은 너의 선택이지만, 액셀에서 발을 잠시 떼어두고 창밖을 보며 아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야."

머리로는 아버지의 조언이 이해가 되었지만, 가슴으로는 내 청춘의 2년을 바치는 것 같아서 입영이 내키지 않았다. 옆의 친구들과 동기들이 사회에서 멋진 직장이나 일을 할 때 나는 상대적으로 뒤쳐질 것 같았다. 그러나 입영에 부정적이었던 나의 생각을 바꿔주신 분은 학과 교수님이셨다. 교수님은 졸업 전, 마지막 면담에서 잊을 수 없는 조언을 하셨다. "개인이

나 단체를 보호하는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나라부터 지켜야 하지 않을까? 바로 대학원에 진학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만, 군 복무를 마치고도 수십 년간 변호사로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니? 나도 군 복무를 하면서 돈과 바꿀 수 없는 경험을 했어. 군에서 배우는 리더쉽,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봉사

했다는 자부심... 그것들은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야." 이 말을 듣고 고심 끝에 나는 졸업장을 들고 9월 3일 귀국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했던 9월 9일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곧바로 입영날짜를 결정했다.

그러나 입영 날짜가 다가올수록 없었던 두려움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 이미 군대를 다녀왔던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서 군대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졌다. 어떤 친구들은 "왜 자원입대를 하냐?"는 질문부터 "나이 때문에 힘들거야" 라는 말도 했다. 친척들도 내가 적응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이방인 취급을 받지 않을지에 대한 걱정도 했다. 이때 할아버지께서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아주셨다. "네가 특별한 성장기를 가진 만큼, 군에서의 경험들은 더 특별하게 느껴질 거야. 나는 네가 맡은 일을 훌륭히 수행할 거라고 믿는다. 거기에서 얻는 경험은 변호사가 되었을 때, 그리고 힘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움이 될 거야."

내 자신과 가족, 그리고 한국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겠다는 다짐을 하며 나는 2016년 10월 17일, 논산훈련소에 부모님과 함께 도착했다. 이미 부모님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녔기에 작별인사를 하는 것이 익숙했지만 그 날 아침만큼은 힘들었다. 우습게도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면서 배웅해주셨지만,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셨다. 부모님의 감정은 두 분의 상반된 반응만큼이나 복잡했으리라고 생각한다. 걱정과 아쉬움을 부모님의 얼굴에서 볼 수 있었지만, 자랑스러움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씩씩하게 다른 입영자들과 연병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대학교 4년 동안 공부에 매진하면서 몸 관리를 소홀히 한 탓에 처음엔 체력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 기본적인 뜀걸음과 체력측정에서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걸 느끼면서 한숨을 푹푹 쉬었다. "나도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잘 하잖아!" "오늘 40개를 하고, 내일 45개를 하고, 모레에 50개를 하자. 천천히, 무리 안하면 다 할 수 있어." 분대장들의 격려를 들으면서

매일매일, 조금씩 내 몸의 한계가 늘어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3km 완주도 버겁던 나와 우리 분대는 차츰차츰 아침의 뜀걸음 속도도 높이면서 발도 맞춰갔다. 전에는 발이나 다리가 아파서 다 못 뛰었던 우리가 정신력으로 버텨가며 뛰는 거리를 점점 늘려갔다. 수료를 2주정도 앞두었을 때, 모두가 3km 완주하는 것을 보면서 다 같이 환호했다. 서로를 응원하고 목표를 향해 전진하며 끈끈한 전우애가 무엇인지 생전 처음으로 느낄 수 있었다. 분대원들과 함께 20km 행군이라는 마지막 관문에 도달했을 때 우리의 사기는 대단했다. 행군의 중간 지점을 통과하면서 힘들었지만, 누군가가 힘든 기색을 보일 때 마다 다른 전우들이 목소리를 높여서 파이팅을 외쳤다. 당당하게 우리는 모두 행군을 완주하며 골인했다. 사회에서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분대원들과 함께 행군을 마치고 군장을 내려놓았을 때의 감동은 사회에서 경험한 그 무엇보다도 값졌다.

몸이 힘든 훈련인 행군과 각개전투는 입영하기 전부터 할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 그러나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훈련소는 육체적인 훈련에만 매진하는 곳이 아니었다. 제식훈련과 체력훈련이 끝난 후에 똑같은 치열함으로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학습을 했다. 이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많은 역사를 배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다른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 느껴졌다.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의 관점에서 본 독립이야기, 6.25전쟁, 그리고 북한과의 휴전은 내용과 느껴지는 감정이 모두 달랐다. 특히 6.25전쟁의 학도병들에 대해서 배웠을 때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자원입대를 했다는 자존감 때문에 스스로 나를 고평가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보다 10살이나 더 어렸을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북한군들을 막은 역사를 보면서, 나의 희생은 선배 전우들의 희생에 비교하는 것조차도 부끄럽게 느껴졌다. 신체적으로도 많은 발전을 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나의 자부심도 성장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만끽하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다른 나라와 싸우면서 지

킨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평생 기억하면서 살 것 같다.

이등병 생활을 정말 열심히 할 각오와 함께 75사단으로 전입 왔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과연 내가 맡은 일을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을까? 선임들이 나를 믿어줄까? 내 몸과 정신이 자대생활을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나를 조금은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이내 곧 없어졌다. 중대장님과 주임원사님은 조금은 특별한 내 배경을 들으시고 부대생활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편하게 해 주셨다. 농구와 같은 공통적인 관심사로 대화를 이어나갔고, 애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 달라고 말씀하셨다. 자대 전입 첫날부터 내 선임들은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줬다. 전화카드가 없던 내게 선뜻 자비로 부모님께 통화도 시켜주고, 훈련소에서 못 먹었던 아이스크림과 과자를 아낌없이 사주었다. 업무에서도 의사소통이 조금은 원활하지 못할 때에는 참을성을 가지고 지도를 해주었다. 반면교사를 삼을 사람 없이 나는 모든 선임을 닮고 싶었다. 서로에게 힘을 주는 문화 덕에 매일 밤 편한 마음으로 잘 수 있었다.

이제 입영한지 8개월 가까이 지났다. 후임들이 생긴 덕분에 군 생활 초기에 받았던 조언들을 내가 해주는 입장이 되어서 느낌이 새롭다. 그래도 나의 선임들은 예전과 같이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고 있다. 함께 일하고 있는 간부들과 우리 중대를 챙겨주시는 중대장님, 주임원사님의 보살핌에서 우리 중대의 단결력은 나날이 강해지고 있다. 입영전의 두려움과 자대전입 전의 걱정은 과거가 되었다. 나는 조금씩 더 많은 책임을 부여 받으면서 내가 사회나 학교에서 얻기 힘들었을 성취감과 자신감에 큰 보람을 느끼며

군 생활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면서 말이다. 이 모든 것을 얻어가면서 인간으로 성장하는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나는 감사한다.

나와 같은 상황에서 입영을 고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말해주고 싶다. 우리는 사회에서 많은 공부와 다양한 경험을 했어도, 대한민국 군대에서 배울 수 있는 것과 얻을 수 있는 경험은 그 무엇보다 특별하다고. 내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21개월의 시간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정신을 돌려준다고. 입영을 하던 날, 나는 대학원 진학을 뒤로 미루었다고 생각했지만 틀린 생각이었다. 나는 군대라는 또 다른 학교를 선택한 것이다.

나는 매일매일 자라고 있다

제75보병사단 군수지원대대 본부
일병 최 재 성

"어머니, 울지 마세요! 잘 다녀오겠습니다!".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애써 웃으며 뒤돌아서 연병장으로 걸어가던 작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2016년 8월 8일,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에 나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를 통해 입영했다. 어쩌면 수많은 대한민국 국군장병들 사이에서 조금은 다를 수 있는 "영주권자" 신분으로 입영하여 지금까지 복무하며 느낀 점들과, 앞으로 현역으로 남은 기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입영을 결심하기 전까지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이라는 도시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평범한 유학생이었다. 다른 대다수 유학생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가족 모두가 미국에서 살고 있었고, 모두 미국 영주권자라는 사실이다. 이런 사실 때문에 대학생활을 하면서 내 또래의 친구들이라면 누구나 안고 있을 군입대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년, 2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 둘 국방의 의무를 하러 군 입영을 하는 것을 지켜보며 비단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미디어와 뉴스에서 북의 끊임없는 도발들을 지켜볼 땐, 걱정과 동시에 타국에 나와 마음 편히 생활하는 내 자신이 한심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나는 군에 자원입대를 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영주권

자라서 굳이 군대에 안가도 되는데 꼭 가야할까?"라는 고민은 애초에 하지 않았다. 나에겐 당연히 가야하는 곳 이었고, 심지어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부모님은 나와 생각이 같지 않을 것이기에 몇 달간 부모님 설득을 위해 여기저기 직접 자문을 구하고, 검색해보며 준비했다. 부모님이 미국에 계시기에 군복무를 하며 부모님을 뵈러 올 방법이나 제도는 있는지, 미국 영주권을 유지할 방법은 있는지 등, 부모님이 내 입영을 반대하며 주장하실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했다. 그러던 중 알게 된 것이 병무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다. 영주권자 등으로 군복무 의무가 없으나 군입대를 희망하는 영주권자들을 위해 나라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후, 나는 든든한 지원군을 얻은 기분이 들었다. 이 제도를 예로 들며 부모님과 얘기를 나눈 끝에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입영신청서를 내게 되었다.

논산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나는 60명이 채 안되는 훈련소 동기들과 한 소대를 이루게 되었다. 그들 역시 모두 세계 여러곳에서 쉽지 않은 결심을 하고 자원입대한 영주권자들이였다. 첫 일주일은 적응 프로그램 기간이었다. 연대장님과의 간담회도 가지고, 독립기념관도 방문해 우리의 뿌리가 어딘지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고, 대전 병무청장님과 소통의 시간도 마련되어 가지고 있던 여러 궁금증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있었다. 동기들 중엔 한국말이 서툰 동기들도 있었고, 군 특성상 많은 통제와 제한이 걸리는 환경에 유독 힘들어하는 동기들도 있었다. 그 중에 한명이 나였던 것 같다. 슬퍼하는 어머니를 뒤로한 채 해맑게 웃으며 씩씩하게 연병장으로 걸어갔었던 나였지만,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과는 180도 다른 답답한 규정들과 몸에 맞지 않는 음식과 잠자리, 낯선 사람들과 24시간 함께 생활해야 하는 어색함 등에 한없이 나약해졌다. 밤을 꼬박 새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화장실도 못 갈만큼 괴로웠다. 심지어 괴로워하는 내 자신을 보며 내가 이렇게 나약한 사람이었는지 자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적응프로그램을 진행했던 한 주간 같이 입영한 동기들과 대화하며 서로의 힘든 점을 나눴고, 점차 이겨내게 됐다. 시작부터 같은 공통점을 공유했던 우리는 그 적응 프로그램 기간 동안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며 어느새 서로에게 끈끈한 전우들이 되어 있었다. 나아가 남은 본격적인 훈련 기간 동안 여러 훈련들을 이겨낼 자신감까지 챙길 수 있게 된 시간이었다. 그 일주일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나를 포함한 동기들은 본격적인 훈련 일정에 맞추어 훈련을 받기 시작했고, 한명의 유급자도 없이 모두 수료했고, 아쉬움을 뒤로한 채 나중의 만남을 기약하며 각자 배치된 자대로 흩어졌다.

수료식 날, 높은 하늘로 베레모를 힘차게 던질 때만 해도 마치 군생활이 끝난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논산에서 자대로 향하는 기차에 올라탔을 때 비로소 느꼈다. “아, 이제 시작이구나.” 나는 육군 제 75보병사단에 자대배치를 받았다. 기차는 퇴계원역에 정차하였고, 퇴계원에서 부대까지는 미리 마중 나오신 이름 모를 간부님의 차에 올라 이동했다. 부대에 도착하니, 병 인사를 관리하던 인사행정장교님이 마중 나오셨고, 여러 가지를 작성한 후 최종적으로 나는 209보병연대 3대대 본부중대의 작전병으로 배치되었다. 일전에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이등병 때 보여주는 이미지가 곧 너의 이미지가 될 것이라고 했기에 마치 훈련소에 처음 입소한 듯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으로 생활했다. 처음으로 경험하게 된 선후임 관계를 포함해, 훈련소 때 배웠던 것과는 또 다른 부대 안의 여러 규정들은 많이 낯설었다.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했던가, 그것 역시 1~2주가 흐르고 나니 자연스럽게 몸에 익게 되었고, 어느덧 나도 진짜 군인이 되어간다고 느끼기 시작했다. 사실 내가 제일 걱정했던 건 사람들이 혹여나 내가 영주권자라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대장님을 비롯해 모든 간부님들과 선임들은 오히려 내가 영주권자이기에 좀 더 챙겨주고, 미숙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려고 했다. 부모님이 타지에 계신 사실

을 알게 된 후, 어떤 선임들은 본인 부모님이 면회를 오실 때 나를 같이 데려가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는 자리까지 만들어 주었다. 입영 전엔 영주권자이기에, 남들과 조금 다르기에, 통일성을 중시하는 군대 특성상 잘 못 섞이고 못 어울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더 잘 챙겨주려 하고, 더 도와주려하는 배려를 느낄 수 있어서 행복한 이등병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차츰 이등병 생활을 하며 부대에 적응하고 있을 때 쯤, 나는 다시 선택의 기로에 서야만 했다. 어느 날 우연히 복도를 걷다 마주치게 된 연대장님이 나를 연대장실로 부르셨다. 연대장님 뒤를 따라 연대장실까지 걸어가면서 얼마나 긴장하고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안에서 연대장님께 들었던 얘기는 내가 걱정하던 그런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였다. 현재 사단의 최고 지휘관이신 사단장님 운전병이 곧 전역을 해서 후임자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연대장님께서 나를 후보로 올리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운전경험이 있고, 내 계급이 임무수행을 오래 하기 적합했고, 또 전입 온 후 부대 사람들과 스스럼없이 잘 지내는 것이 이유라 했다. 그렇게 난 후보에 올라갔고, 여러 간부님들과 면담을 거친 후에 운 좋게 최종적으로 운전병에 뽑히게 됐다. 하지만 바로 임무수행을 하기엔 무리였다. 그래서 일단 군 면허 취득을 위해 제3야전수송교육단에 위탁 교육생 신분으로 입교했다. 훈련소에서 자대로 전입온 후 자유로운 생활에 적응했었던 나였기에, 다시 교육생 신분으로 여러 통제를 받으니 굉장히 힘들었다. 또한 경험이 없는 스틱차량으로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해서 굉장히 부담이 됐다. 그러나 힘든 교육기간을 이겨내게 해준 건 역시 동기들이었다. 같은 상황에 처한 동기들이 있었기에 서로를 누구보다 잘 도와주고, 서로 의지할 수 있었다. 육군훈련소와 제3야전수송교육단, 두 번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생활을 끝낸 나는 한 층 더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인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것 같다. 당당하게 군 면허를 취득해서

자대로 복귀한 나는, 그때부터 사단장님 운전병으로서 임무수행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일병으로 진급한 후 짧디 짧은 3박4일 신병위로 외박을 나가고 두 달 뒤엔 5박6일 동안 군 생활 2번째 휴가를 보내고 복귀했다. 첫 휴가였던 신병위로 외박과 두 번째 휴가 모두 다 한국에 있는 이모 댁으로 갔다. 하지만 항상 마음 한 켠에는 미국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두 번째 휴가 복귀 후 다음 휴가는 꼭 미국에 있는 가족을 보러 가겠다고 다짐했다. 감사하게도 나와 같이 영주권자 신분으로 자원입대를 한 용사들에게는 군에서 정기휴가 시 경비를 지원해준다. 하지만 이를 위해 준비해야 할 몇 가지 서류들이 있었다. 또한 여러 부서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기에 2달의 여유기간을 잡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다소 생소한 서류들이였기에 준비를 진행 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들을 겪었다. 그래도 미국에서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하며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 예상했던 2달이 채 안 걸린 40일정도만에 모든 서류를 준비할 수 있었다.

영주권자 자원입영이 갈수록 증가한다지만, 여전히 한국 군대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많다. 이들이 생각을 조금씩 전환해서 더 많은 영주권자들이 입영한다면, 많은 부대에서 영주권자들의 국외휴가를 준비할 때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17년 4월 28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미국으로 휴가를 나가 전화나 인터넷 메신저로만 연락하던 가족을 실제로 만날 수 있게 됐다. 입영 전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가족을 9개월 만에 만나고 오니 그 소중함을 더더욱 느낄 수 있는 뜻 깊었던 휴가였다.

오늘은 자원입영을 한지 296일되는 날이다. 아직 복무 할 일수보다 남은 일수가 더 많지만, 296일이라는 어찌 보면 짧은 시간동안 난 많은 것을 배웠다. 일단 나 자신이 여러모로 굉장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면, 기본적인 청소나 창고정리, 환경미화나 제설작업을 할 때도 다른 병사들보다 진행속도가 더뎠다. 미국에서 치열하게 학업경쟁만 하다 보

니 몸을 쓰는 실무능력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떨어지는 내 자신을 보며 굉장히 실망했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기본적인 것부터 새로 배워나가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나니, 부대에서 임무수행 할 때 매일매일 발전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 다음으로 얻은 건 익숙한 것에 대한 소중함이다. 입영을 하지 않았다면 당연하다고 누리던 자유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이다. 또, 가족을 포함한 여러 지인들과 연락하는 소중함, 음식의 소중함 등 간과하기 쉽지만 군대에 오지 않았다면 미처 느끼지 못했을 것들을 느끼게 됐다. 그리고 책임져야 할 임무와 도와줘야 할 후임들이 생김과 동시에 책임감도 생겼다. 인내심 역시 전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늘게 됐다. 여러 훈련들을 겪으며 처음엔 금방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나약했던 나였지만, 지금은 참고 견뎌냈을 때 따라오는 성취감을 알기에 참고 인내하는 방법을 배웠다. 이 외에도 많은 것들을 얻음으로서, 자원입영을 결심했었던 나의 그 선택이 후회가 없는 선택이였음을 하루하루 증명하고 있다. 내가 더 기대되는 것은 앞으로 남은 군생활이 지금껏 한 군생활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앞으로 내가 군복무를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고, 더 성장한 청년이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중에 자원입영 이라는 큰 결심을 했던 그 시절을 돌아보며 정말 후회 없이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하고, 미국에 돌아가서도 다른 영주권자들에게 자랑스럽게 군 입영을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남은 기간도 열심히 배우며 활기찬 군 생활을 해나가야겠다.

나는 이제 '진짜' 한국인이다

11사단 20포병대대 본부포대
일병 하 광 희

"나 군대 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똑같이 말한다.
"넌 안가도 되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항상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다. 하지만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다. 나는 재일교포 4세다.

많은 근대문학 작품에서 다뤄졌듯이 나 같은 사람들은 항상 애매한 존재이다. 나는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본에서 생활하며 딱히 의식하며 지낸적이 없었다. 나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고등학교까지 일본인과 다를 게 없이 자랐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특별하기보단 가깝지만 먼 나라처럼 느껴져 나는 앞으로도 계속 일본에서 살며 평범하게 인생을 보낼 줄 알았다. 그런데 항상 할아버지께서는 "너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잊지 말거라"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가 아직도 내 머리에 남아 있다.

내 친구들은 대부분 재일교포지만 군대에 간 친구는 한 명도 없다. 그들은 내가 군대를 간다고 하자 모두 시간낭비라고 했다. 그만큼 입영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었고 나도 그랬기에 나만 군대에 간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곤 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할머니께서는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하는 것은 나중에 그 경험이 너의 인생에 큰 도

움이 될 것이다"며 항상 나를 격려해주셨다. 그리고 지금은 고생하지만 나중에 꼭 보답이 있을 거라고, 군 입대를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이라는 나라가 나에게 애매한 존재였지만 이번에 내 뿌리가 있는 나라를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는 권리를 줘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가질 거라 하셨다.

2016년 8월8일, 논산훈련소에 가는 길, 내가 입영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가족들이 일본에서 오셨다. 입소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에 다 같이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 멍하게 있었다. 얼마 후 연병장 집합이라는 방송이 들리고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나는 한걸음, 한걸음 연병장 쪽으로 걸어갔다. 나중에 들으니 할머니는 내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시며 많이 우셨다고 들었다.

내가 배치된 소대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로 편성되어 있었다. 중국, 싱가포르, 과테말라, 필리핀 등 다양한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모두들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그들은 입영 전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 굉장히 궁금했다. 다행히 동기들과 친해지기까지는 오래 시간

이 걸리지 않았다. 서로 비슷한 환경에서 입영했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입영까지 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자원입대를 선택하였는지를 알기 때문에 더 존중하며 배려할 수 있었다. 훈련소 첫날 밤, 나는 소등과 동시에 침상에 누워 빨갛게 켜진 취침등을 보면서 처음으로 여기가 군대라는 것이 실감이 났다. '난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자문자답해도 답이 나올 리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은 멈춘 상태였지만 훈련병으로서의 생활은 빨리 지나갔다.

화생방, 각개전투, 20km 행군 등 많은 훈련을 동기들과 같이 버티면서 우리가 진짜 사나이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냈다. 각 훈련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가족, 친구들이 보내준 손 편지를 몇 번이나 읽으며 훈련을 이겨낼 힘을 얻었다. 그리고 그 때마다 가족과 친구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준 군 생활에 감사하게 되었다. 묘한 기분이기도 했다. 입영 전에는 확실히 군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든 훈련을 마친 후 그것들에 감사하는 내가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과정을 마치고 어느새 우리는 수료식을 맞이하고 있었고 자대배치 발표를 기다리게 되었다.

나는 11사단에 배치 받았고 내 진짜 군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처음 자대에 와서 적응할 때까지 내 생각보다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오히려 포대의 선임들이 내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니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또 자주 이야기도 걸어주었다. 처음에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소통하는데 조금 힘들었지만 입영하고 10개월째인 현재 동기들에게 한국어 정말 잘한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까지 실력을 쌓게 되어 뿌듯함을 느낀다.

내가 받은 주특기는 155mm 사격 지휘병이다. 처음에는 그게 어떤 보직인지 전혀 몰랐고 설마 군대에 와서도 공부를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었다. 사격지휘는 임무수행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로 3개 역할로 나눠지고 개인보다 팀워크가 요구된다. 그 역할로는 VCO, HCO, COM의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역할을 맡아 협력하며 하나의 값을 산출한다.

단 한 명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내게 주어진 역할을 숙달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다. 그러는 중에도 분대장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며 문제는 없냐면서 신경을 써주었다. 포대 간부님들도 내가 일본에서 온 국외영주권 입영자라는것을 아시고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 직접 나에게 찾아오셔서 부모님께서 외국에 계시니 일반통화로는 전화하기 어렵지 않냐며 간부님이 자신의 핸드폰을 빌려주셨고,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면담을 갖는 시간을 내주시곤 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지 알게 되었고 군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다.

군대에 처음 입영하려 했을때는 많이 망설였었다. 굳이 안 가도 되는 군대를 꼭 갈 필요가 있나? 내가 군대에 들어가면 적응할 수 있을까? 제대로 한국어도 못하는데 부대 생활을 문제없이 보낼 수 있을까? 수많은 걱정들을 안고 한국에 들어왔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국인 집단에서 어울리며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어 '역시 내 뿌리는 이곳 한국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 외에도 군 생활 중에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하려는 힘과 의지, 나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면 더 열심히 배우고 알아보려는 자세,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각오들을 제대로 배웠고 활용하고 있다. 즉, 군 생활을 통해 지금이나 혹은 앞으로 있을 시련들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재 대한민국 육군 용사로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복무하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되고,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난것에 다시 한 번 감사할수 있었다. 만약 남들처럼 군 생활을 회피하려 했다면 나는 이런 귀중한 경험들과 생각들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에서 지켜봐주시는 할아버지께서도 지금의 내 모습을 보시며 많이 좋아하고 계실것이다. 이제 나는 정말로 한국인이 되었고 잊으려고 했던 '나'를 이제 평생 잊을 일은 없을 것

이다.

마지막으로 입영을 결정한 국외영주권 사나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자신이 어디 있든 우리의 뿌리는 바로 대한민국에 있다. 그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해줬으면 좋겠다. 파이팅!

대한사람 대한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산문부문

질병치유·학력변동 병사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 자원입대한 병사들의 계급은 생활 수기 응모 당시의 계급임을 밝힙니다.

씩씩이

국직 합동부대 국군 심리전단 3중대본부
상병 지 준 교

"씩씩아, 남자는 힘이 좋아야해 운동 열심히 해라." 내가 어렸을 적에 나를 항상 씩씩이라 부르셨던 아버지는 남자가 힘이 있어야 사랑하는 가족도 소중한 내 몸도 지킬 수 있다며 운동을 강조하셨다. 매일 아침마다 부대로 뛰어서 출근을 하거나 수영장을 가셨던 아버지는 평생 꿈이었던 육군 항공조종사를 군 복무 중 큰 사고로 전역 한 지도 어느덧 10년이 되어간다.

그 날의 일은 나에게도 큰 사건이었다. 육군 준위로 군 복무를 하고 계셨던 아버지는 늘 일찍 일어나 아침 4시가 되면 출근 준비를 하셨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어머니의 배웅 소리를 들으며 몇 번씩 잠에서 깬 기억이 난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그렇게 출근을 하시고 보이지 않았다. 어렸던 나는 그러한 상황이 당연한 줄 알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부터 전화기가 시끄럽게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적이 있었다. 거실로 나갔더니 전화를 받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는데 얼마 뒤에 얼굴이 하얘져서 다급하게 나가는 것을 보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걱정 속에서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도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반나절이 훨씬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가 훈련 중 척추를 다쳐 하반신을 전혀 못 움직이는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아버지 병간호를 하러 병원에서

생활하셨고 나와 여동생은 친척들의 손에 맡겨졌다. 엄격하게 우리를 관리하셨던 아버지가 안 계신 상황에서 나는 점점 편한 것만 골라서 하려고 했고, 우리 남매를 마냥 좋게 해주고 싶었던 친척분 들은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게 해주셨다. 엄격했던 부모님을 벗어나 편한생활을 하다보니 성적은 점점 떨어졌고 한 달 만에 살이 20kg이나 불어났다.

아마 그때부터 난 뚱뚱한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것 같다. 맞는 옷이 없어 항상 큰 치수를 찾고 누가 봐도 뚱뚱하다는 이미지가 어울리는 사람이 되었다. 사고가 있고 난 후 아버지를 본 것은 한 달 뒤였다. 건강했던 아버지는 병상에 무기력하게 누워있었고 통나무처럼 굵었던 팔뚝은 많이 얇아져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보였다. 화장실조차 편하게 갈 수 없고 수염이 듬성듬성 난 아버지는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었다. 약해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숙연해졌던 우리 남매는 막상 눈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고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괜찮냐는 말도 하지 못했던 것 같다. 그렇게 멀뚱멀뚱하게 서 있었는데 “우리 씩씩이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라고 웃으며 묻는 아버지의 질문이 적막을 깼다. 살이 쪘다고 많이 혼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아서 당황도 했었고 무섭기만 했던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을 거니 낯설기도 했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병문안 시간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우리 남매는 아버지가 얘기 중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병실은 슬픈 분위기가 되었고 우리 가족 다 같이 힘내자면서 손을 잡고 울었던 기억이 난다. 그 후에 아버지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 의사들이 아버지에게 식물인간 판정을 내렸지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했던 터라 몸 상태가 좋았었고 하늘이 도와 기적처럼 아버지는 회복을 했다. 또 15년 가까이 군 복무를 하셨던 공로를 인정받아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정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뒤 국군수도병원으로 병실을 옮기고 그 후 1년 정도 투병 생활을 하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셨다. 집으로 오신 아버지는 어머니가 일을 나가시면서 성적이 떨어진 우리 남매의 교육을 맡게 되었다. 예상 못 했던 사고로 예

정보다 빠르게 전역을 했던 탓에 아버지는 우리에게 기대를 거는 마음이 커졌고 조금 더 엄격하게 하며, 우리가 힘들어하면 다그치기에 바쁘셨다. 병원에 있을 때 참 보고 싶었던 아버지였는데 점점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억압하려고 하니 아버지가 미워졌다. 사춘기였던 나는 점점 더 삐뚤어졌고 급기야 아버지와 관계는 필요한 말이 아니면 대화를 나누지 않는 정도가 되었다. 그런 상황에 난 스트레스를 먹을 것으로 풀어 살은 점점 더 찌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본 아버지는 화를 내셨다.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대학교에 진학할 때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기숙 생활을 하며 대학교에 다녔는데 또 한 번 아버지의 억압과 규제에서 풀려났다는 생각에 나태한 생활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는 체중이 계속 불어나 120kg의 고도비만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을 때쯤에 입영통지서가 왔다. 26사단 신병교육대로 2월 16일에 입영을 하라는 통지서였다. 보통 또래들은 입영에 대해서 막막해하고 가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모두 군인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배울 수 있는 많은 것과 자기성찰을 할 수 있는 시간, 나라를 지키는 사람의 중요함을 항상 들으면서 컸다. 그래서 군대는 한 번 꼭 가봐야 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입영 결정을 할 수 있었다.

입영일 날 부모님과 여자친구의 눈물을 뒤로하며 담담하게 거수경례를 하고 입영을 했다. 들어가서 며칠 뒤 훈련을 받기 전 현역 적합 검사를 했는데 이게 웬일 현역 부적합 판정이 나와버린 것이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때는 3급이었지만 입영하기 전 살이 너무 쪄 BMI 지수가 너무 높게 나오는 바람에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주일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훈련소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때는 참 지루하고 나가면 할 것이 많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게 쫓겨나니 나 자신이 너무 창피했고 아무것도 못할 거 같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

차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찾아왔다. 병무청에 가서도 재병역판정검사를 하니 신체등급이 4급으로 나와 꼼짝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말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군인 집안 장남이 살이 쪄서 현역 근무을 못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하는 것을 좋아하실리 없었다. 한 번은 침대에 누워있는 나를 아버지가 불러서 얘기를 하자고 했다. 나는 또 혼나겠구나 생각을 하며 거실로 따라 나갔는데 의외로 아버지가 자신의 힘들었던 시절을 얘기해주며 끝에 “씩씩아 네가 뭘 하든 응원하겠다”라는 말을 하셨다.

거의 5년 만에 들은 씩씩이란 단어에 순간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었다. 중학교 시절 이후로 나는 아버지가 무서워 항상 피해 다니고 늘 부정적으로 바라봤었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항상 혼이 나거나 필요한 대화가 아니면 하지 않았었다. 그랬던 아버지가 먼저 용기를 내어 손을 내밀었다. 씩씩이라는 단어에 잊고 있었던 추억들이 생각났고 강했던 아버지와 수척해진 아버지가 겹쳐서 보였다. 내 지난 과오가 생각나면서 아버지께 죄송한 생각이 들었다. 말 한마디 하는 것은 10초도 걸리지 않지만 그 한마디로 누군가는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고 가슴속에 비수가 되어 10년을 가고 평생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다. 철없던 시절 내가 했던 불평불만들을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셨을 것이다. 몸을 다쳐 활동이 제한되어 꿈을 일찍 포기해야만 했던 자신의 삶을 경험 삼아 아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했던 얘기가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전해져 점점 비뚤어져만 가는 아들을 보는 게 힘들었었고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란 사실에 눈물이 났다.

난 얘기를 듣고 방으로 들어가 인터넷으로 군 복무 신체등급 기준을 찾아보았다.

그 당시 나는 BMI 지수가 38이었다. 현역 등급인 3급은 33이하가 되어야 했는데 내 기준으로 살을 20kg 감량해야 하는 수치였다. 처음에는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무작정 달리기를 했다. 하지만 무거운 몸을 감당 못한 내 발목과 무릎이 심한 통증을 일으켰고 결국 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다. 그런 고민을 아버지에게 말을 하니 “옛날처럼 나랑 같이 아침에 등산을 가자”라고 하셨다. 처음엔 모든 게 힘들었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네 조그만 동산 올라가는 것도 숨이 벅차서 한참을 걸려 올라갔다. 정말 힘들어서 도저히 못 걸을 때에는 ‘이런 것도 해내지 못한다면 내가 나중에 무엇을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악착같이 매달렸다. 등산을 하며 아버지와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 소소한 일상 얘기도 나누게 되었고 아버지도 인생의 선배로서 내게 조언을 해줄 때도 있었다. 그렇게 우리 부자는 잠겨있던 관계의 자물쇠를 합을 맞추어 하나씩 풀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와 등산을 한지 3개월이 되었을 때 나는 결국 체중감량에 성공을 했고 병무청에 가서 당당하게 현역 판정을 받아 5월 2일에 논산훈련소로 두 번째 입영을 했다. 입영 심사대로 넘어가기 전 거수경례를 하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잘 가라며 손을 흔드는 것을 봤는데 울고 싶은 걸 참는다고 웃어 보이려다가 입은 웃고 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이상한 표정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기억이 난다. 논산훈련소에 가서도 신체등급 심사를 했다. 이번에는 당당하게 현역 적합 판정을 받아서 안심한 상태로 대기하고 있는데 옆에 심하게 마르고 심하게 뚱뚱한 무리들이 보였다. 첫 번째 입영할 때의 나처럼 BMI 지수로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은 친구들이었다. 3개월 전의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반가운 기분도 들고 그 당시에 나의 기분을 떠올리며 그 친구들의 기분을 상상해보기도 했었다.

잠시 뒤에 무리들이 조교의 인솔에 따라 버스를 타고 떠나갔고 나는 6주간의 교육훈련에 들어가게 되었다. 힘이 들 때는 아버지와 같이 등산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내가 여기를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라는 생각으로 더 열심히 했다.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훈련을 수료했다. 수료할 때 부모님이 오시고, 고작 한 달 남짓 못 봤을 뿐인데 느낌이 너무 달랐다. 결국엔 내

가 해냈다는 사실과 그 사실을 알고 날 흐뭇하게 바라봐 주시는 부모님의 눈빛이 예전에 나태한 인생을 살 때 날 보는 눈빛과는 너무 달랐다. 내가 첫 번째 입영에서 실패하고 힘들어할 때 만약 아버지가 나에게 먼저 말을 안 걸었다면 어땠을까? 그랬다면 지금 나는 여전히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못 벗어나 신세한탄만 하고 있었을 것이다.

입영 한 지 13개월이 지났지만 자원입대를 한 것에 후회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자원입대 했다는 사실에 전우들이 놀라며 대단하다고 하지만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목숨 바쳐 나라를 지켜낸 선배 전우들이 했던 일들을 하는 것뿐이니까.

나중에는 지금 크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 일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맡은 바 최선을 다 하는 게 휴전국가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기에, 체중감량을 해서 자원입대한 것이 해야만 하는 일이었지 대단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대에 처음 배치받았을 때 나는 22년간 몸에 적응되었던 말투나 습관을 버리고 모르는 작업을 해야만 했기에 어려움이 많았었다. 그렇게 선임병들과 간부들에게 혼나고 위로받으며 13개월이 지나갔다. 남들과는 조금 다르게 입영했지만 다를 것 없는 군 생활을 해왔다. 군에 있는 동안 부모님 말씀처럼 배운 것이 많다. 사람을 마주쳐야만 하는 군대 안에서 서툴렀던 인간관계에도 자신감이 생겼고 들어오는 후임들에게 모르는 것을 알려주며 나에 대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배웠다.

군대는 대인기피증에 우울증 환자였던 고도비만 청년의 우울했던 인생에 전환점이 되었다. 앞에서 말했다시피 혼자 이루어낸 결과는 절대로 아니다. 나는 밖에서 군대에 거부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모든 일은 생각하기에 달렸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자기개발서에 나올 이 뻔한 말은 누구나 입으로는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누구나 할 수 없다. 목표를 이루는 순간이 얼

마나 찬란한지 아는 사람으로서 당연하지만 실천하기 힘든 저 말을 꼭 기억하라고 전하고 싶다. 난 지금도 힘이 들면 살을 빼려고 노력했던 3개월과 훈련소에서 수료했을 때 날 바라보던 부모님의 눈빛을 떠올린다.

그 눈빛이 아직도 생생하다. 아마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 있던 자 그곳을 잊지 못하고 그곳에 없던 자 그곳을 알지 못한다

31사단 공병대대 2중대
일병 이 충 환

남자라면 한 번은 가야 하는 군대, 저는 안 갈 수 있었음에도 현역 입대를 했습니다. 보통 '군대'라 하면 전국 각지에서 모인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힘든 훈련, 억압된 생활 등이 떠올라 입영하기 전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있을 때 생각했던 군대와는 많이 다르다 느꼈던 이야기를 시작 하겠습니다.

중학교 시절 체중감량을 목적으로 학교 근처에 있는 복싱 체육관에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던 어느 날, 같은 학교 동급생 중에 선수 생활을 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저에게 소질이 있다며 자기와 같이 선수생활을 하자는 제의를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을 했고 그 후부터 복싱선수의 꿈을 안고 선수의 길을 걸었습니다. 실력을 차근차근 쌓아갔던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두각을 나타내 전국 소년체전 3위, 도민체전 2위, 전국 우승권 대회 3위 등 많은 입상을 하였고, 여러 코치님들께 스카우트를 받아 고등학교 역시 운동선수로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고등학교 입학 전 중학부 시합이 없어 입학하기 전 6개월간 휴식을 가졌고 그 기간 동안 운동을 안 하면서 몸무게가 70kg에서 93kg이 된 상태로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운동을 하면서 달라져도 너무 달라진 제 자신을 느꼈습니다. 예전의 날렵했던 중학교 시절은 온데 간데 없고 둔탁하고 무거워진 몸

상태를 실감하며 이건 아니다 싶어 체중감량에 도전 했지만 이미 복싱에 대한 감을 다 잃은 후 였습니다. 처음 기대를 걸고 저를 스카우트 했던 코치님도 저에게 등을 돌리셨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길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나의 길이 아닌 것 같아 선수생활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 당시 운동을 그만두면 전학을 가야 했기에 살고 있는 지역의 고등학교로 전학을 알아봤지만,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받아주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자퇴를 결심하게 되었고 자퇴를 하고 난 후 생활패턴과 식습관들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밥 먹고 운동만 하는 게 하루 일과였던 제가 운동을 안 하고 먹기만 했더니 20살이 될 무렵, 1년 반 정도 만에 80kg에서 103kg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 165cm, 103kg의 몸무게로,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씩 거쳐 가는 병역판정 검사를 받았고 키에 비해 과체중으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막연하게 사회복무요원 판정

을 받으면 기분이 좋을 줄 알았으나 몹시 찝찝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회복무요원으로 가게 된다면 내 주변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역 입대를 하면 철도 들고 발전을 해서 사회에 나가기 전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저는 병무청 직원에게 현역 처분을 해줄 수 없냐고 물어봤지만 현역 입대를 하고 싶으면 체중감량을 해서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65cm인 제가 현역 입영을 하려면 88kg까지 감량 해야 하는데 솔직히 전 자신이 없었고 힘들게 체중감량을 해서 군대에 갈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하기로 마음을 먹고 복무 전 많은걸 해보기 위해 고졸 검정고시에 응시하여 합격 후 대학교 생활도 해보았지만 역시 적성에 맞지 않는 전공으로 자퇴를 했습니다. 게다가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산업체에 지원했지만 체중이 많이 나가면 일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탈락하고 많은 절망과 방황을 하면서 어느새 몸무게는 107kg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폐인처럼 살던 저 때문에 가족들은 고민에 빠졌고 그러던 어느 날, 현역을 다녀온 친형과 인생에 대해 진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에게 들은 얘기가 결정적인 저의 현역 입영 계기가 되었습니다.

"충환아 아무리 남의 시선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세상이라지만 너는 검정고시 졸업에 사회복무요원인데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게 한 가지쯤 있어야 하지 않을까? 형은 5년 전 군대에 가서 튼튼이 운동하며 살도 빼고 하고 싶은 공부도 했고 전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견문도 넓어진 것 같다. 군대에서 후회한 적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가길 잘했다 생각했어. 군대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뜻 깊은 추억이란다." 라고 저에게 얘기해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나는 사회복무요원을 가더라도 지금 마음가짐이라면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할 거야. 계속해서 제자리걸음을 걸을 바엔 현역 입대

를 해서 정말 뜻 깊은 군 생활을 해보자' 라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후, 저는 바로 체중감량을 시작했고 4개월의 운동과 식단조절로 체중감량에 성공 하였습니다. 병무청에 가서 재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해 드디어 현역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이제 군대를 갈 수 있구나!' 제 자신이 무척 대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1월이 되었고 저는 11월 28일 입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입영 전 주변 지인들을 만나면 저에게 "군대 가지 마라, 가면 무조건 후회한다." "시간낭비다" 라며 저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란 겪은 자만의 특권' 이라 생각하며 흔들리지 않고 입영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11월 28일 입영 날짜가 되니 여느 누구와 같이 군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맨날 기합 받고 잠도 못 자는 건 아닐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을 했지만 걱정과는 달리 조교님들은 친절히 교육을 해 주셨고 사회에 있을 땐 전쟁에 대해 관심이 없었는데 왜 대한민국 남자가 군대에 와야 하는지, 북한의 도발로부터 맞서기 위해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는 이유 등 많은 동기부여를 해주었습니다. 군대에 와서 현 실태를 알게 되니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동기들과 함께 서로의 버팀목이 돼 주며 훈련소 생활을 보람차고 재밌게 보냈습니다. 수료를 하고 자대를 배치 받기 전 보충대를 떠나 자대에서 생활할 생각을 하니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자대에 가면 내가 막내일 텐데 무서운 선임들이 많으면 어쩌지?" "지금도 부조리가 있을까?" 라는 걱정을 하였지만 막상 자대에 와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은 모두 기우였습니다. 선임들은 다들 신병 왔다고 저를 잘 챙겨줬고 맛있는 것도 사주며 어색하지 않게 말도 많이 걸어주었습니다. 또한 제가 군대에 오기 전부터 시행된 '병영생활 행동강령'이라는 규칙은 '상호 인격존중', '협동적 동반관계'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부조리는 사라지고 선임과 후임이 함께 협심하여 군 생활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저는 잘 적응했고 어느덧 입영한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간 저도 모르게 많은 변화가 생겼고 저에게 있어 군 생활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개인 정비 시간을 활용해 틈틈이 운동을 하며 체중감량에 도전한 저는 15kg을 감량했습니다. 체중감량 후 첫 휴가를 나갔을 때, 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며 "우리 충환이 인물난다"고 대견하다 칭찬을 하시며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아지면서 군대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도 생겼습니다. 굴삭기 운용병으로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배우다 보니 이 분야가 적성에 잘 맞는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아직 서툴지만 열심히 배워 전역 후에는 대한민국 1등 굴삭기 운전기능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한층 성숙해진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과 지내다 보니 저랑 잘 맞는 사람만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힘든 부분도 많았습니다. 사회에서는 성격이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만나면 되지만, 군대 특성상 그렇게 않기 때문에 참고 지내보기도 하고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다가가고 갈등이 생겼을 땐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도 하게 되니 인내심도 길러지고 이기적 이었던 제 성격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회에 나가 직장생활을 하면 분명 나와 잘 맞지 않는 동료, 상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때를 대비해 유사한 상황을 먼저 겪는다 생각하니 정말 값진 경험이라 생각됐습니다. 군대에 와서 이렇게 발전한 제 자신을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제가 훈련소에 있을 때 소대장님이 해주셨던 이야기 중 인상 깊었던 내용으로 "남자라면 한 번씩 와야 하는 군대인데 맨날 하기 싫다 징징대고, 군대는 의미없다고 하소연 하다 전역하면 진짜 의미 없는 군 생활이 될 것이고, 반대로 즐기면서 군 생활 열심히 하며 자기 발전도 하고 전우들과 좋은 추억을 쌓으면 전역한 뒤에 소주 한잔 하면서 추억회상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힘들다 투정 부리지 않고 즐기면서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어느새 많이 발전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군대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닌 사회에서 경험할 수 없는, 사회생활 이전의 최고의 발판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복싱선수의 꿈을 포기한 뒤 끝없이 진로에 대해 방황을 하던 제가 입영을 통해 여러 방면에서 성장하고 꿈이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물론 힘든 적도 있었지만 위기를 극복하고 나니 한층 더 성숙해진 제 자신을 느꼈고, 앞으로 제 자신이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고 기대됩니다.

아직 군대에 오지 않은 사람들 중엔 군대가 의미도 없고 시간 낭비일거라 생각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글의 제목처럼 군대에 가서 좋은 추억을 쌓는다면 그곳을 잊지 못할 것이고 군대가 두려워 입영을 피하는 사람은 그곳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대란 시련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이 글을 읽고 군대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입영을 앞두고 많이 두려워하는 분들께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택

27사단 78연대 1대대 4중대
예비역 병장 이 영 찬

저는 어려서부터 먹을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단순히 좋아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정도까지 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느새 학교에서 제일 뚱뚱한 학생이 되었고 외모로 인한 피해의식과 소심한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가정불화로 인해 가족과의 대화는 점차 단절되고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파괴적인 성향을 마음 한 켠에 품으며 괴로워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로 인해 갈등을 많이 겪어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고,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아 만족할만한 수능성적을 얻지 못해 재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 하며 더욱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었고 친한 친구들마저 한 두명씩 군대에 가면서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군대라는 곳은 나와 상관없다 생각했었습니다. 왜냐면 나는 177cm/124kg의

고도비만으로 보충역판정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휴가 나온 친구들의 군복을 입은 모습을 보며 '얼마전 까지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군대를 가다니..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체중 때문에 군대를 못

간다는 것도 있었지만 운동을 해 체중을 감량할 의지가 없는 나 자신이 부끄러웠고 나는 그렇게 멋지게 군복을 입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인천병무지청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고혈압이 있고 시력문제도 있었으나 결과적으로는 BMI지수 초과로 불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 4급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기 때문에 사실 홀가한 마음이었지만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 문득 지금까지의 내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해야겠다는 생각뿐 실천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가서 후회하는 일들의 반복, 그로 인한 좌절 그리고 점차 지쳐가는 일상, 그것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후회만을 하며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과 식이요법을 통해 몸무게를 줄여 현역으로 멋있게 군 생활을 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운동과 식단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에게는 별 것 아닐 수 있었지만 저에게는 인생 처음으로 하는 도전이었고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조금씩 살이 빠지고 단순히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뿌듯함과 함께 미약하나마 성취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두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 약 15kg정도 몸무게를 감량하고 재병역판정검사 후 입영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변한 모습에 놀랐고 살을 빼게 된 계기에 대해 듣자 후회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았고 ‘너희들도 가는 군대인데 나라고 못가겠냐? 또 “군대에 있는 21개월동안 한 단계, 아니 두 세 단계 더 성장해서 발전된 나로 나오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고 2015년 8월 11일 드디어 입영을 했습니다. 온전히 내 선택으로 인한 입영이었지만 생각보다 녹록치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 처음 겪는 환경, 처음하는 행동, 말투 모든 게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억압된 생

활이 힘들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적당하게, 나태하게, 실천 없이 살고 싶지 않아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신병교육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실수 투성이었습니다. 제식에서는 팔과 다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갔고 구급법, 사격에서도 다른 훈련생동기들보다 뒤쳐졌습니다. 훈련생 동기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기들은 신병교육 동안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세열 수류탄을 던지기 전 교보재로 나온 수류탄 투척을 연습하는 교육훈련 시간 저는 부주의로 연습용 수류탄을 손에서 터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소대장님께서는 많이 화를 내셨고 저는 얼이 나간 듯이 멍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소대장님은 상담을 하시며 실제 수류탄이었다면 수십 명의 사람이 다칠 수 있었던 상황이어서 엄하게 할 수 밖에 없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소대장님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좌절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소대장님께서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 하시며 포기하지 말라는 용기를 주셨습니다. 생활관에서 생각해보니 군대에 온 이상 제가 배워야 할 것은 스스로의 언행을 책임지는 자세와 주어진 임무는 최선을 다해 완수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켜 내·외면 모두 발전시켜 사회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다짐을 통해 신병교육대를 잘 수료하였고 드디어 자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동기들만 있던 신병교육대와는 다르게 자대는 선임들이 있어 저는 낯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처음 배정받은 소대의 정성훈 중사님은 군대오기 전 있었던 저의 이야기들과 주변 환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굳이 그 일들을 마음에 두고 먼저 사람들에게 거리를 둘 필요는 없다 하시고 세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항상 웃으면서 다니기, 둘째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생활하기, 세 번째는 메모하

는 습관 기르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거지?'라는 생각도 하였지만 우선 소대장님께서 이야기하신 세 가지를 유념하고 생활했습니다. 우선 웃으면서 다니다보니 선임들이나 간부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셨습니다. 평소 무표정하게 다니다보면 인상이 안 좋아 오해를 사고 융통성 없게 보인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미소 짓는 습관을 들이다보니 나도 모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생활하기'는 소심했던 저를 변화시켜준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원래 작은 목소리, 소심한 성격으로 의사를 전달하기가 어려웠으나 자신감 있게 행동하다보니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스스로 당당해지게 되었고 매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메모하는 습관은 저의 실수하고 덜렁대는 모습을 완전히 잡아주었습니다. 실수가 줄고 매사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니 선임들에게 인정도 받았고 저는 군입대 전의 모습과 180도 다르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런 내적인 변화와 더불어 외적으로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체력단련 시간 선두에서 뜀뛰기를 하고 일과 시간 이후에는 중대내 체력단련 기구들로 운동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보병대대에 있어 산을 타는 훈련이 많았는데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운동의 일종이다, 등산을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훈련에 열심히 임하였습니다. 또한 입영전에는 항상 불규칙한 수면패턴,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군대에서는 정해진 일과계획에 따라 움직이다보니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수치에 몸무게도 입영전과 비교했을 때 40㎏ 이상 감량해 정상 체중에 도달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군 생활을 1년9개월이라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인생진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더불어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연등시간을 이용해 틈틈이 단어를 외우고 부대에서 실시하는 독후감 경연대회, 영화감상문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상을 받기도 했습

니다.

물론 군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힘든 일도 있고 고민도 많았지만 의지가 되는 선임들을 찾아가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를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아버지 같던 행정보급관님께 많은 의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자신이 성숙해짐을 느꼈고 휴가를 나갔을 때 사람들이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특히 과거 냉소적이고 아버지와 대화가 거의 없었던 저는 군생활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아버지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부자(父子)사이도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 한없이 무너졌던 내 자신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군대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제가 한 선택에 감사하게 됩니다. 성인이 되었지만 미숙한 안보관, 국가관을 가지고 별 생각 없이 살아왔던 제가 경계작전과 근무 그리고 많은 훈련들을 통해 내가 살고 있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소중한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책임감도 생겼습니다. 또한 과거 철부지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던 제가 군대에서 엄격한 규칙, 규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는 자신의 모든 언행에 책임져야 하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배우고 책임감을 가진 남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사실 어떠한 형태로든 병역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것은 신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면서 인생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수 있게 되었고 군생활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두려워 말고 자신 있게 도전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습니다.

덕기의 병영일기

제2정보통신단 국군56정보통신대대
상병 박 덕 기

충성! 원하는 건 꼭 이루려 노력하는 상병 박덕기입니다.
제 몸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제가 대한민국을 지키며 당찬 육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 일화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고등학생일 때 저는 눕기만을 좋아하는 살찐 사람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데 한창 소방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뉴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소방관이 고양이를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을 구하려 자신의 목숨을 던지는 소방관의 모습에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충격과 감동으로 저는 소방관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소방행정학과로 진로를 정하고 대학에 입학하여 20살이 된 제게 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왔습니다.

주변에선 병역판정검사 때 불편한 곳 한 군데가 있으면 신체등급이 1등급씩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고, 저는 과체중과 고혈압이 있지만 3급을 받을 거라 확신 했습니다. 그러나 현역 입영 후 열심히 몸을 단련하고 전역하면 꼭 강인한 소방관이 되어 시민을 지키리라 결심했던 저의 검사결과는 4급이었습니다. 절망했습니다. 몸 관리를 못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친구

들에게 신세한탄을 늘어놓았지만 우울하고 심각한 저와는 다르게 친구들은 “어휴…사회복무요원으로 가서 편하겠네~ 축하해~” 라며 놀릴 뿐 이었습니다. 몸무게와 고혈압 때문에 원하던 현역을 가지 못한 제 마음도 모르고 친구들은 사회복무요원으로 가면 편할거라는 말을 했고, 저는 자존심이 상하고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현역입영 하려는 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고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저의 꿈 얘기와 함께 현역으로 멋지게 복무를 하고 싶어 다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싶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든든한 아들이고, 기특하다” 고 하시며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헬스클럽을 다니며 6개월 만에 120㎏에서 80㎏으로 40㎏을 감량하였고 현역판정을 받을 자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원하던 현역판정을 받고 2016년 4월 19일 35사단 신교대에 당당한 군인으로 입영을 했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생전 처음 훈련을 받으면서 괜히 현역으로 왔나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든 훈련을 하는 동안 동기들이 앞에서, 뒤에서 끌어주고 밀어주니 의지가 되었고,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마침내 기다리던 수료식 날이 왔습니다. 수료식은 평탄하게 진행이 되었고 끝나갈 무렵 사단장님이 훈시 말씀 중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이었지만 재병역판정검사 후 현역으로 온 이병 박덕기, 고생했다” 라며 제 이름을 불러 주셨습니다. 그때 전 난생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뿌듯했습니다. 수료식을 마치고 부모님은 제게 달려오셨고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시며 울음을 터트리고 저 또한 같이 울었습니다. 아버진 제게 이등병 약장을 달아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전 수료식을 마치고 2016년 5월 27일에 56정보통신대대 3중대 가설병으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러나 자대에 와서 저의 군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 농구를 하다 발목을 다쳐 깁스를 하게 됐습니다. 당시 유격훈련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여서 주변 선임들은 "이등병이 벌써 훈련 빠지려고 다쳤네", "일부러 다쳤네" 라며 쑥덕거렸습니다. 힘들었지만 일부러 다친게 아니었기에 다른 사람과 제게 떳떳해 지기 위해 재활운동을 열심히 했고 유격훈련은 비록 받지 못했지만 유격행군은 참여해 완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이 되어 일병으로 진급하며 신병 위로휴가를 나가게 됐습니다. 약 4개월 만에 집에 가는 기분은 누구나 알 듯이 몹시 흥분되고 설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부모님과 누나를 보니 반가운 마음에 호탕한 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게 신병 휴가는 호탕한 웃음으로 시작해 웃음 진 결말로 끝날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복귀 전 날 잠을 자면서 복통이 너무 심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순히 체한 줄 알았지만 큰 고통으로 부모님과 함께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응급실에서는 쓸개에 돌이 찼다며 일명 담석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전 너무 화가 났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자꾸 아픈지 짜증이 났고 건강하고 당당한 남자로 나라를 지키려고 온건데 몸이 이러니 모든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아무튼 이 사실을 부대에 알려 휴가를 연장한 뒤 다음날 저녁 바로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몸이 호전되어 수술 받은 지 8일 뒤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역시나 부대에서 주변 사람들 대부분의 눈초리는 좋지 않았습니다. "훈련을 빠지려고 일부러 아프다" "휴가 길게 나갔다 오려고 일부러 아팠다" 라는 소문이 들려왔고 전 억울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작업과 훈련을 빠지지 않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또한 힘을 쓰는 거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이런 노력으로 부대 사람들은 저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분대장 교육까지 가서 차기 분대원들을 이끌어나갈 통솔력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점차 저는 현재의 성실한 박덕기로 거듭났습니다. 지금처럼 롤러코

스터 같은 군 생활은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입니다. 몸도 아팠고, 마음도 힘든 적이 많았지만 전 자랑스러운 군인이 된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도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대에 와서 제일 힘들었던 점은 가설작업, 훈련 등 고된 육체적 고통이 아닙니다. 바로 사람들의 인식과 편견이었습니다. 단지 제가 살쪘다는 이유로 남들과 달리 더 힘들 것 이라는 편견에서 비롯되는 쓸데없는 인식을 느끼고 그것을 깨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인식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닌 저의 승부욕과 꿈에 대한 절실함 이었습니다. 점차 제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저에 대한 나쁜 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저처럼 과체중 이거나 아니면 다른 문제로 현역을 가고 싶은데 4급 판정을 받아 슬퍼하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현역을 가기 두려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 글을 쓰면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고 모자란다고 포기하지 말고 절실하기만 하면 타인은 물론 내 자신을 넘을 수 있다. 그리고 남들이 당신에 대하여 어떠한 편견을 가지고 있던지 신경 쓰지 말라. 당신을 아는 사람은 알 것이다.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저는 군대를 단순히 시간을 버리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꿈에 다가가는 발판이라고 여기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고 싶습니다.

나는 그날 누구보다 행복했다

20기계화보병 기갑수색대
상병 조 무 근

군대에 가겠다는 결심을 하고 근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었던 입영에 대해서 생각해볼 틈이 없을 만큼 바빴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이유를 곰곰히 생각하고 되뇌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또 다른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러한 선택의 이유를 곰곰히 생각하면 난관을 넘어설 힘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자원입대를 결정하게 된 건 작년 이맘때쯤의 일이다.

시험이 끝난 대학교 거리는 오랜만의 자유를 만끽하며 술과 음식을 즐기는 사람들이 넘쳐나기 마련이다. 그럼 사람들의 한 가운데에 적당한 시기에 입영하기 위해 걱정 어린 얼굴로 PC방을 들락거리던 내가 있었다. 나와 함께 동반입영 하기로 결정한 친구 역시 복학하기 적당한 시기에 전역하기 위해 입영일자를 열심히 알아보던 중 이었고, 마침 2월에 5사단 동반입영 자리가 있어 이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하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는 모든 일이 내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병무청에서 보낸 문자가 도착했다. 병역판정검사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라는 통보였다. 동반입영을 지원하는 날이 코 앞이라 지원하지 못할까봐 가슴이 철렁했던 나는 지원시기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병무청으로 향했다. 몸무게와 키만 다시

재면 어차피 똑같은 현역판정 결과가 나올 것을 왜 하냐며 투덜댔지만 그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일 줄은 몰랐다. 그 날 나는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군 면제를 꿈꾼다. 군대에 가면 청춘을 희생한다느니, 시간을 버리고 온다느니 하는 말들을 많이 하며 군대는 안가면 좋다는 인식이 팽배한 요즘 면제까지는 아니어도 현역이 아니니 당연히 기뻐야하고 당연히 즐거워야 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행운에 놀랐었는지 나는 얼떨떨하다는 느낌만 받을 뿐 기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다. 일단은 동반입영을 약속한 친구에게 같이 군 입대를 못하겠다고 알렸다. 친구는 아쉬워하며 다른 친구와 동반입영 하기로 했다. 친구나 나나 내가 군 입대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기에 간단히 동반입영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 그때는 왜인지 몰랐지만 현역을 못 간다는 사실에 갑작스러운 우울증을 느꼈고 입영 일정이 엉망이 되어서 주위에 짜증을 많이 냈다. 이미 학교에 휴학을 신청한 상태였고 온 동네방네에 군대 입영한다고 떠들고 다녔기 때문에 다시 복학하기는 민망했다. 휴학한 김에 사회복무요원에 지원하기로 한 나는 지원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가게에서 일을 했지만 일을 하는 동안 나는 심한 우울증을 느꼈고 술을 즐기지 않던 내가 그 어떤 때보다 술을 마시고 싶었을 정도로 의기소침한 날들이 이어졌다.

사회복무무요원 지원 신청 후 대망의 합격자 발표 날 나는 지원한 모든 곳에서 떨어졌다. 추가 모집도 실패했다. 1년을 기다리고 다시 지원하는 건 새로운 생활을 간절히 원하던 우울증 걸린 나에게는 너무 긴 가혹한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시 지원한다고 해서 합격할 거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래서 급하게 대체복무 방법을 찾아보던 중 산업기능요원제도를 발견하게 되었다.

산업기능요원은 국가에서 지정한 기업체에서 2년간 일하며 군 복무를 대체하는 제도인데

보수도 최저시급 이상이고 주말에 쉬며 무엇보다, 출퇴근 이후에는 완전히 자유였다. 급하게 잡은 면접에서 내일부터 출근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쉽게 채용이 되어서 깜짝 놀랐다. 화장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출퇴근 버스를 지원하고 보수도 괜찮았으며 월급도 밀리지 않고 잘 준다고 산업기능요원으로 먼저 일하고 있던 친구가 말해주었다. 첫 출근을 한 날 직원 분들은 친절했고 일은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지만 복잡한 일이 없고 정말 쉬웠다.

그러나 그 날 밤 나는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일 만 잘하면 2년 뒤 목돈과 예비역 딱지를 가지고 다시 행복한 대학생활을 즐길 수 있는데, 무언가 가슴에 콱 박혀서 나를 괴롭게 만들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삼일 동안 복잡한 생각으로 하루도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피곤하지도 않았다. 가슴에 걸린 것이 너무 답답해서 화가 났다. 잠을 못자는 밤 동안 내가 왜 이런지 날이 새도록 고민했다. 공장에 출근한지 삼 일째 새벽에 동이 트듯 환하게 내 마음에 빛이 비쳤다. 내가 왜 이렇게 괴로운지 깨달은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남들에게 뒤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 진학도 했고 평범하게 남들처럼 군대도 갈 줄 알았다. 그래서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3급 판정을 받았을 때 의아하고 기분이 나빴다. 내가 그렇게나 뚱뚱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모자란 사람 같은 생각이 들었다. 신체 건강한 정상적인 대한민국 남자들은 평범하게 군대에 간다. 내 친구들이 그렇고 내 아버지가 그러했다. 그런데 나는 가지 못한다. 그제야 내가 군에 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기쁘지 않았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기쁠 리가 없었다. 모자란 사람인 것 같고 남들에게 뒤지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었으니까. 나에게 군대란 그런 의미였다. 모든 이들이 하는 일이니 나도 당연히

입영해서 훌륭한 육군 병장 소총수로 전역하고 싶었다.

결심을 내렸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한 나에게 부모님도 반대하셨고 회사 사람들도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친구들은 정신 나간 놈이라고 놀렸다. 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려 하느냐고 물었다. 내게 이것은 '복' 이었던 기억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아주었으면 했다. 나는 내가 진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하루에 한 끼씩 먹으면서 네 시간씩 런닝머신을 뛰며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했다. 한 달이 안 되는 기간에 13㎏의 몸무게를 감량했다.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현역병 지원을 했다. 6월 21일. 내가 입영하던 날, 비로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았다. 나는 그 날 누구보다 행복했다.

입영 후 근 1년이라는 시간동안 정말 많은 일을 겪었다. 일주일 동안 못 씻어본 적도 있고, 너무 더워서 물 10통을 이틀 만에 모두 마셔버린 적도 있으며, 7시간동안 걸으면서 500원짜리보다 큰 물집이 몽실몽실 발바닥 곳곳에 잡히기도 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깨어나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일은 일상이다. 군 생활은 생각했던 것보다 힘든 일이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불평을 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하면 내 사정을 아는 전우들이 내게 가끔 묻고는 한다. 입영하기 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때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냐고 말이다. 그러면 나는 대답한다. 몇 번을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도 같은 선택을 하겠노라고.

군대에서 나는 잊고 있었던 나에 대한 자신감을 찾았다. 모두와 같은 의무를 해내고 있고 그것을 하지 않았어도 되었는데 내가 원했다는 것에 대한 명예도 자긍심도 얻었다. 군대라는 것이 그렇다. 보수는 적고 일도 힘들고 평등하지도 않으며 자유롭지도 않지만 그 속에서 군인은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내며 그 속에서 자신을 찾아낸다. 나는 군인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도 나의 길을 당당히 걷고 있다.

나를 따라다닌 수식어

1101공병단 제119공병대대 공병2중대
일병 정 유 일

현재 현역으로 복무중인 저에게는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안와도 되는 군대 와서 생고생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수식어가 저를 따라다니리라고는 2016년 11월 14일 논산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면서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인생에 갑작스런 굴곡이 많습니다. 월드컵이 있었던 해인 2006년 12월,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아버지를 제외한 우리 가족은 홍콩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이었지만 잘 적응해 가던 저는 2015년 9월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위해 한국에 귀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이런 결정에 사람들은 이해가 안간다는 눈초리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대에 대한 로망과 대한민국 사회를 경험해 보고 싶었고 일생일대의 기회라 생각하며 입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5년 9월 인천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역입영을 원해 15㎏을 감량하고 금주를 했던 저의 노력과는 반대로 극심한 난시를 이유로 4급, 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역 입영을 원했던 저에게는 거대한 넘을 수 없는 벽이 저의 갈 길을 가로막아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검사를 받고, 병무청을 나오며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 낙담한

기분을 전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격려해 주시며 그 길로 안과를 찾았습니다. 의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의사는 방법이 있다 했고, 2주후 저는 라섹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저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입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14일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을 내신 아버지, 홍콩에서 귀국하신 어머니의 배웅을 받으며 저는 사열대에서 연병장으로 나갔습니다. 입영 전 복잡한 마음에 잠못 이뤘던 밤들과 달리, 입소대에서의 밤은 빠르고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옆자리 동기들과 친해지지도 못한 채 입소대에서 받은 의류대를 들고 훈련소로 이동했습니다. 훈련소는 입소대보다 신식건물에 더 넓었습니다. 훈련소에서의 첫날밤 저는 불침번을 섰고, 그러면서 군대에 온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1분 간격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하게 되고 시간은 멈춘것처럼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시계보기를 반복하는 사이 불침번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불침번이 끝나고 침상에서 눈을 감자마자 잠이 들었습니다. 기상나팔소리에 시작되는 6시 기상은 사회에서 늘상 9시에 일어나는 저에겐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훈련소에서 제일 처음 배우게 된 이동제식은 매우 불편하게 느껴졌고 인스턴트 음식에 길들여진 저의 입맛에 부대 식사는 한없이 맛없게만 느껴졌습니다. 훈련소 동기들과는 서먹하게 지내는 날이 이어졌고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불편하며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여 졌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와 주고 받는 편지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소 특성상 남는 시간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고, 아버지께 편지로 현재 겪고 있는 고민 등을 얘기하며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버지와 주고 받는 편지로 부정적인 마음을 접고, 열심히 더 긍정적으로 훈련소 생활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찾아 왔습니다. 동기들과는 더 많이 친해지고, 훈련소 병과 교육들은 인생에 느끼지 못했던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화생방을 통해서는 살아있음에 감사함을, 사격훈련에서는 표적을 맞추기 위해 극도의 집중력을, 체력검정에서는 내 자신의 체력 한계점을 절실히 느꼈으며 행군에서는 참고 걸어야만 하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훈련소 마지막 밤, 동기들은 처음엔 저에 대해 '왜 굳이 군대에 와서 저렇게...' 라는 시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저의 태도변화에 맞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했습니다.

훈련소 수료 후 저는 공병이란 보직을 받고 1101 공병단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에서 저는 선임들의 시선이 두려워 재병역판정검사에 대한 사실을 숨겼습니다. 제가 잘못할 때마다 내 자신을 보기보다 저에 대한 수식어 '재병역판정검사자', '군대 안 와도 되는 사람' 이라고 판단 되는게 싫어서 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의도와는 반대로 선임분들은 저의 재병역판정검사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제가 힘들거나 잘못을 할 때마다 수식어에 빗대어 얘기하는 것 같아 피해의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왜 군대 와서 고생이냐는 질문이 괴로울 정도로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훈련소 때의 경험을 되살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피하고 그 시선을 극복하기 위해 다른 동기들보다 더 먼저, 열심히, 빠르게 움직이고자 했습니다. 또한 그 질문이 다시 저를 향할때는 '저는 군대에 대한 로망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그 결과 사람들은 저를 편견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체로 이해해 주었습니다.

물론 군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갈등, 고통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경을 뛰어넘게 옆에서 도와주는 선임, 동기, 간부님들이 있었습니다. 되돌아보는 저의 군생활은 제가 군대를 오지 못했다면 겪지 못했을 하나하나가 귀중한 추억입니다. 찾고자 하면 길이 있듯이 재병역판정검사는 저에게 군입대, 군생활이라는 하나의 가능성을 더 열어 주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꼭 바뀔 것이라 믿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나 자신에게 당당해지도록

28사단 80연대 3대대 9중대
일병 김 민 재

나에게 미국은 대한민국처럼 모성애가 느껴지는 국가이다. 난 그곳에서 내 파릇파릇한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 그곳에서 내가 보고 느껴왔던 군인이란, 나라에서 존경을 받으며 국민들의 대우와 환호를 받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직업이었다.

솔직히 난 처음에는 한국 까지 와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당시 또래 친구 및 선배들만 해도 "굳이 갈 필요가 있나? 뭐하러 사서 고생하러 가냐" 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 또한 그런 말을 들으며 친구들의 웃음거리가 되니 점점 별 생각이 없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인 친구와 시간을 보내던 중 그 친구가 SNS를 보고 곧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군대를 간다며 불쌍하다고, 우리는 선택받았다며 웃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문득 '과연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지키고 병역의 의무를 한다는 것이 부끄럽고 귀찮은 일인가' 하고 의문이 들었다. 또한 그전까지 입영을 기피 하려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나의 친척 중에는 형이 네 명인데 전부 해외 영주권 이나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방의 의무를 포기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내 자신에게 떳떳해지

고 싶었다. 이후 아버지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한국인으로서 지킴을 받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한국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는 결심이 섰다.

21살이 되던 해 나는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내가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한국에 들어왔다고 하니 다들 미쳤다고 미련하다고 놀려댔다. 놀려대는 친구들을 뒤로하고 수원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갔다. 왠지 벌써 군인이 된 것 같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았고 바로 내 신체등급을 알려주었다. '신체등급 3급' 현역판정 이었다. 같이 갔던 아버지가 특히 뿌듯해하셨고 병무청 직원 분께서는 친절하게 조만간 핸드폰으로 연락이 갈 것 이라고 말씀하셨다. 설렘과 긴장이 공존되는 기다림 속에서 핸드폰으로 전화 한통이 왔다. 병무청 직원이 내가 졸업한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한국에서는 비인가 된 학교라서 한국에선 중졸학력으로 처리 되어 현역부적합이 나왔다는 것이다. 너무 허탈하고 낙담했었지만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었다. 검정고시를 통과해 합격하면 입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검정고시 시험일정을 확인 후 신청을 했고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다. 2016년 5월 검정고시를 쳤고, 6월 3일 결과는 아주 좋은 성적으로 합격이었다. 합격 고지를 받은 그 다음날 나는 합격통지서와 함께 병무청을 찾아갔고 최종적으로 현역판정을 받았다. 병무청 직원은 '대단한 마음가짐' 이라고 말했다. 나는 이 소식을 할아버지께 전화를 걸어 알렸고 할아버지는 너무 기뻐하며 좋아 하셨다.

할아버지께서는 6.25전쟁을 몸으로 겪으셨고 9년간 군복무를 하셨다. 현재까지 다리에 탄알이 박혀있는데 할아버지는 그것을 자랑스러워 하신다. 나는 그런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고 그런 할아버지께서 내가 군에 입영함을 좋아하시니 나도 내가 자랑스러웠다. 나는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 아버지께서 전역하신 '무적 태풍부대' 28사단을 지원했다. 2016. 11. 15. 입영 당일 씩씩하게 부모님과 신병교육대로 향했다. 신병교육대 입구에는 나

라를 지키고자 하는 젊은이들로 인산인해였고 그런 고귀한 희생으로 나라가 지켜지고 있음에 한 번 더 감동했다. 입영을 하고 자대에 오고 난 후 나는 많은 것이 달라져있었다.

첫째는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부모님은 입영한 내게 편지 한통을 써주셨다. 내 인생에서 부모님께 받은 첫 편지였고 아직도 그 내용을 달달 외울 수 있을 만큼 많이 읽었다. 유학기간 4년 동안 부모님과 떨어져 살았지만 내게 있어서 신병교육대 한 달 동안 부모님을 보고 싶었던 것이 유학 내내 보고 싶었던 것 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입영이 내게 준 가장 큰 선물은 '가족애'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다. 자대 배치 후 매일 일과가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오글거리지만 평생 안 해본 '부모님 사랑해요'를 말하고 있는 내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느끼게 된다.

둘째는 건강해진 나의 생활습관이다.

규칙적인 생활패턴으로 인해 내 몸이 건강해지는 것을 느꼈고. 사회에서 밤낮이 바뀌며 거칠어진 피부와 지쳐보이던 내 모습이 점점 건강해지고 피부도 좋아지게 되었다. 또한 사회에 있을 때는 밥을 거르는 경우가 많아서 체중이 적게 나가는 편이었는데 입영 후 삼시세끼를 다 챙겨먹으니 마른 내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고 신병교육대를 수료할 때는 정상 체중으로 되어 있었다.

셋째는 전우애이다.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모인 장병들이 같이 땀 흘리며 함께 감정을 공유하며 살아간다. 힘들 때면 서로 밀어주고 당겨줄 수 있는 전우들이 많아서 좋다. 나는 평소에 누군가에게

내가 아는 무언가를 알려주는 것을 좋아하며 또한 남을 돕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편이다. 한 예로 5월 11일 연대 체력 측정에서 나는 꾸준한 운동으로 체력 특급을 달성했고 그전에 달성한 특등사수를 토대로 특급전사를 달성했다. 많은 소대 인원들이 너도나도 특급전사를 달성하고 싶어서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특급전사 붐'이 일었다. 최근에는 내가 운동을 가르쳐주던 한 인원이 특급전사를 달성하는 쾌거도 이루었다.

넷째는 선진병영이다.

입영하기 전에만 해도 부조리나 가혹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었다. 걱정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SNS, 인터넷 등에서 본 흔히 말하는 '옛날군대'와 지금의 군대는 차원이 다르다. 과거 선임병과 후임병이 함께 생활하는 생활관은 후임병이라는 이유로 눈치도 보이고 궂은일도 도맡아 하지만 도움을 요청하기에는 힘든 환경이었을 것이다. 동기생활관은 말 그대로 그 달 입영한 동기들끼리만 생활관을 같이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선임병 들은 후임생활관에 들어오려면 간부에게 보고를 해야 하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들어갈 수 있다. 후임병들의 인권 및 휴식여건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동기생활관을 통해서 후임병 들은 개인정비시간에 조금이나마 나은 휴식여건을 취할 수 있다. 또한 군에서는 지속적인 외부강사를 통한 인성교육을 해준다. 한 분기에 한 번씩 외부강사님들을 초청하여 병사들에게 서로 소통과 배

려, 용기, 믿음 화합에 대한 교육을 해주신다.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인성교육은 병사들이 군 생활 하는데 있어 필요한 요소들을 배울 수 있으며 선임병과 후임병을 토의와 게임들을 통해 더욱 가깝고 친밀한 사이로 만들어준다.

마지막으로 발달된 군 편의시설이다.

입영 전 '대체 군인들은 그들의 휴식 시간에 무엇을 하며 쉬지?' 라는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자대에 배치된 후 개인정비시간에 하루도 심심할 틈이 없었다. 너무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대학 전공 과목 강의를 들으며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버 지식 정보방, 소대원들과의 단결력과 체력을 기를 수 있는 풋살장, 그리고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노래방, 오락실 등이 있으며 군인의 기본권 보장과 훈련을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제공해주는 생활관에 최신형 TV와 에어컨이 보급되어 있다.

그동안 나라의 지킴을 받아온 내가 입영을 하고 이제는 지키는 입장이 되어보니 군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만약 입영을 하지 않았다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옆에서 힘이 되어 주는 든든한 전우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며, 이렇게 건강하고 멋진 나 자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 자신에게 떳떳해지기 위해서 자원하여 입영을 하였지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기에 '입영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나의 글을 통해 입영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젊은 청춘들이 용감하게 자원입영을 선택하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작은 용기만 있다면

50사단 기동대대 2중대
일병 정 서 호

저는 20살이 되던 해 5월, 대한민국 성인 남자라면 누구든 가야 하는 병무청에 친구들과 같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옷을 갈아 입고 컴퓨터에 앉아 여러 항목에 대한 심리검사도 하고 키, 몸무게, 안과 등 신체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가 끝난 후 신체등급을 받으려 대기했고, 차례가 되어 결과를 보았더니 4급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으로 하는 활동을 좋아하여 운동을 즐겨했습니다. 그래서 체육 관련 대학교에 입학할 만큼 활동적이고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4급 판정을 받은 것이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같이 온 친구들은 모두 1급이 나와 현역을 받았고, 저한테 부럽다며 아쉬워했습니다. 그때 '4급 받은 게 좋은 건가?', '4급이면 내가 친구들 보다 신체가 안 좋다는 뜻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며 대체 어느 부분에서 4급이 나온 건지 확인을 해봤더니 결과는 안과였습니다. 중학교 때 부터 눈이 안 좋아 안경과 렌즈를 맞췄지만 귀찮아서 안 끼고 조금 흐릿한 것에 적응하여 살았더니 생각보다 난시가 심해져서 4급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집에 도착한 후 어머니께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도 당연히 1급 받을 줄 알았는데, 4급 받은 것에 대해 놀라셨고, 먼저 제게 "너는 사회복무요원을 가고 싶니, 현역을 가고 싶니?" 라고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검사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4급을 받아서 당연히 사회

복무요원으로 가야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되었으니 군대보단 편한 사회복무요원을 가겠다는 생각이 조금 강했는지 솔직히 선뜻 현역을 가겠다는 말을 하질 못하고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 당시 운동을 좋아하고 체육대학에 재학 중 이지만 힘든 것 보다 편한 쪽을 택하려는 마음이 강했나 봅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사회복무요원을 가려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 글을 쓰려니 조금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 후 생각을 해보니 나중에 직장을 갖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 후회하진 않을지, 가까운 미래에 친구들이 모두 전역했을 때 '나도 군대라는 곳을 다녀올 걸' 하는 후회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리가 아픈 것도 아니고, 팔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있고 고작 조금 불편한 눈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을 가는 것은 뭔가 아니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현역을 가면 물론 힘들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후회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라섹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달 후에 라섹수술을 받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까지 하면서 군대를 가고 싶냐?" "가서 후회한다" 등등 부정적으로 말했지만 저는 이미 군대를 가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뒤 였습니다. 혹시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재검사를 받자는 생각으로 수술 후 2달 정도 뒤에 바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았고, 당연한 결과로 1급을 받았습니다. 1급을 받은 후 학교를 다니던 중이라 넉넉히 2016년 7월~9월 쯤 입영할 생각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병무청에서 자원병역이행자는 원하는 입영날짜와 사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조그만 특혜를 준다 했고, 여자친구가 대구에 살아 50사단 7월 19일 입영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 19일이란 시간은 단숨에 찾아왔고, 남들 입영할 때처럼 떨렸습니다. 부모님과 여자친구, 친구들에게 금방 오겠다 하고 입영했습니다. 어색함에 처음 보는 동기들은 못 친해질 줄 알았지만 금세 친해졌고, 훈련도 열심히 받았습니다. 제식, 사격, 각개전투, 숙영, 행군 · 등등 군대에 대해 알아가며 열심히 생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모든 훈련소 과정을 마치고 기다리던 자대배치라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일단 1차로 저는 50사단 미 분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50사단 미 · 분류는 사단본부에 남거나, 직할대, 사단 지역 · 내 연대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을 갈지 모르는 두려움과 설렘이 섞인 감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50사단 직할대 기동대대라는 곳에서 인원을 선발하러 왔습니다. 인원을 뽑으러 오신 기동대대 주임원사님은 일단 기동대대에 대해 설명해 주셨고, 사단 직할대로서 여러 가지 임무수행을 하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하셨습니다. 저는 무슨 훈련을 하는지 듣고 흥미가 생겨 하고 싶다고 자원하여 8월 말 안동에 있는 기동대대라는 곳에 자대배치를 받았습니다. 일단 대대장님과 면담을 통해 보직을 정하는데, 저는 탄약병이나 통신병, PX병 등등

이 있었지만, 일반인 군복무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소총수인 2중대를 선택했습니다.

이후, 신병집체교육을 받고 선임들이 PX, 사이버지식정보방 등 시설을 알려 주었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PX라는 곳을 가보게 됐습니다. 평소에 선배들에게 얘기로만 듣던 PX를 와보니 신기했습니다. 물건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했고, 훈련 기간 동안 먹지 못했던 것들을 동기와 함께 엄청 먹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그동안 못했던 SNS와 여러 가지 소식을 접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TV연등이라고 TV보는 즐거움도 느꼈고, 선임들과 축구도 하며 훈련소를 벗어나 자대의 편의를 느꼈습니다. 사회에서 보면 밤에 TV를 본다거나, 인터넷, 먹을 것, 운동 등등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상이지만 군대 안에 절제된 생활 속에서 한다는 것은 뭔가 색다른 묘미를 느꼈습니다.

이후 특공무술시범, 패스트로프와 레펠훈련을 받았습니다. 처음 11m 모형 탑에서 패스트로프와 레펠훈련을 하는데 올라가기 전 밑에서 봤을 때는 재밌을 거라는 생각과 별로 안 높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라가보니 은근히 높고 떨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도 하는데 못할 거 없단 생각으로 뛰었고, 성공적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모형 탑에서 훈련을 며칠 동안 한 뒤, 실제 헬기에서 뛰어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헬기를 타보게 되었고, 뛰어내릴 차례가 되자 모형 탑과 달리 실제 헬기라 헬기 자체가 바람에 많이 흔들려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잡고 뛰어 내렸고 무사히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다른 훈련으로는 기동 간 사격이라고 걸어가면서 사격하는 사격도 해보고, 출동준비태세, 매복, 체력단련 등등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10월경 경주에 태풍이 불어 대민지원을 갔습니다. 2차례에 걸쳐 지원을 했고, 처음엔 2일 동안 경주버스터미널 앞 공원의 쓰레기들과 풀 같은 것들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주민들이 벼농사를 짓는 곳이 태풍에 벼들이 모두 쓰러져 갈대로 세워 묶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2박3일

동안 텐트에서 자며 오전, 오후로 엄청난 면적의 벼들을 세워 당시 몸살에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몸은 아팠지만 주민들이 고마워하는 것을 느껴 끝까지 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60km행군을 했습니다. 훈련소 이 후 첫 행군이었고, 오랜만이라 그런지 두려움이 컸습니다. 60km를 걷는 동안 산을 두 개 넘었고 이른 아침부터 출발했던 행군은 새벽 1시가 되어 대대에 도착하며 끝이 났습니다. 행군을 하면서 인생에서 몸으로 하는 것 중 제일 힘들었다 생각했습니다. 걷는 동안 다리도 절고, 물집도 터트리며 힘들게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행군을 하면서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며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했던 전우들이 있었기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경험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군 생활을 절반 정도 했고 글을 쓰다 보니 지난 훈련과 생활들이 생생하게 떠올라 제 자신이 자랑스럽고 보람찹니다. 중간 중간 힘든 훈련도 있었지만 시간가는 줄 모르게 즐거웠고, 하나하나 모두 좋은 추억들로 남아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면 21개월이란 시간이 정말 길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짧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군대는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군대에 대한 편견이 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와 입영하기 전 사람들이 부조리, 구타, 가혹 행위 등이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 제가 느낀 군 생활은 병영생활 행동강령 등 병사 내 인식을 바꿔 동등한 존재로서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즐겁게 군 생활을 해온 것 같습니다.

또한 21개월이 너무 길다는 생각보다는 색다른 경험을 2년 정도 해보는 것도 좋다는 것을 많이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습니다. 저도 11개월이란 시간이 남았고, 지나간 10개월을 돌이켜보면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습니다. 조그만 생각의 변화와 작은 용기만 있으면

저처럼 21개월 동안 즐겁고 뜻 깊은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갈 수 있어도 안 간다는 생각보다 못가도 가고 싶다는 생각으로 군대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군 생활도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굿 초이스!

70연대 1대대 4중대 25보병사단
일병 주 현 준

2016년 2월, 대한민국 남자로써 꼭 받아야할 병역판정검사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저는 설레고 긴장되고 궁금했습니다. 막 스무 살이 된 저는 그저 군복 입고 다니는 군인들이 멋있었고 '아 나도 군복 입어보고 싶다', '군대를 가면 뭐할까?' 이런 생각들이 가득했습니다.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군대를 가기 싫어서 그랬는지 문신을 많이 한 사람들도 있었고 시력을 측정하는데 하나도 안 보인다고 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1급 나오겠지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모든 검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한 1급 현역 이라는 급수를 받지 못하고 안과로 4급보충역을 판정 받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갈 수 없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검사 후 대학생활의 한 학기가 끝났습니다. 방학을 하고 집에 가니 부모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현준아 혹시 라식수술 할래?" 라고 물어보셔서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라식수술 후 눈이 좋아지면 군대를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수술 후 약 3개월이 지나 다시 병무청에서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아 3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역 판정을 받고 나니 군대를 가야한다는 것이 조금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아직 눈 수술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만약 가서 잘못 되기라도 하면 큰일 나지 않을까, 문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군대를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눈 건강이 다 회복되고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다가 지원했습니다. 혼자가면 잘 적응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친한 친구가 저에게 “혹시 동반입영 지원해서 군대 빨리 갔다 올래?” 라고 물어봤습니다. 동반입영을 하면 친구와 같이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친구와 언제 입영할지 어디로 갈지 상의를 마치고 입영신청을 했습니다. 1, 2차 합격을 해야 입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떨어질까 걱정을 했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한 번 만에 붙었습니다.

4급이라는 사회복무요원에서 내 스스로 현역으로 바꾼 것에 대해 저는 저 자신을 탓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입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고 훈련이라는 것도 받아보고 싶었습니다. 입영 후 훈련소를 갔을 때 저처럼 온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생활관에 같이 쓰는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도 저와 같은 4급 판정을 받았지만 남자로서 군대는 갔다 와야 되는 것 같아 군대를 지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 동기는 저보다 나이도 조금 많았지만 더 멋있어 보였고 제가 이렇게 입영한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약 6주란 시간이 지나고 훈련소 생활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료식을 하고 가족들을 만났을 때 제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4급이라는 보충역 판정을 받고나서도 다른 1급 현역을 판정받은 사람들과 별다를 거 없이 훈련을 무사히 잘 마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훈련소를 마치고 자대를 배치 받았습니다. 훈련소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을 배치 받았고 부대 시설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대에 도착한 후 저의 궁금증은 하나씩 풀렸습니다. 군대에 가면 무엇을 하는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무슨 훈련들이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운동도 하지 않았던 제가 군대를 오고 난 후 스스로 운동을 하게 되고 공부도 조금씩 하게 됐습니다. 밖에서는 놀러만 다니고 철없이 행동하던 제가 여기 와서 조금 조금씩 변화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사회에서는 부모님께 용돈을 받아서 썼지만 이제는 부모님께 용돈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일병 월급이 18만원정도 인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은 저와 통화할 때 매번 고맙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회에서는 말도 잘 안 듣던 제가 군대라는 곳 때문에 이렇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모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군대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라식수술 할래?" 라는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아마 지금 군대가 아닌 집 안에 있을 것이고 스스로 제 자신을 망쳐가고 있을 것입니다.

군대에 오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나날이 달라지는 저를 느낍니다. 우선 매일 뜀걸음을 하면서 체력이 확실히 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귀찮아서 절대 먼 곳

은 걸어가지 않고 항상 택시나 버스만 자주 이용했고 가까운 곳을 가더라도 부모님께 태워달라고 했습니다. 군대에 오기 전에는 팔굽혀펴기를 열 개 정도 밖에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분에 최소 60개 이상이라는 갯수를 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대형 무기인 81MM 주특기를 받았습니다. 군대에 오면 총만 들고 다닐 줄 알았는데 새로운 것을 접해볼 수 있게 되어 좋았습니다. 뭐라도 더 배우고 싶고 뭐라도 더 알고 싶습니다.

또, 군대 근무라는 것은 철책 근무라는 것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대는 위병소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위병소 근무를 서면서 간부님들과 전우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 지나다니면서만 볼 수 있던 위병소 근무를 직접 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사회에서 그림을 배우다 왔습니다. 여기에선 그림과 관련된 일을 한 번도 안 할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그림을 그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가끔 중대 안의 작업을 할 때 저의 특기를 쓸 수 있는데, 그림 솜씨를 여기서 발휘할 수 있게 되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도 중대 안에 저의 작품들이 있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볼 때 마다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더라면 이건 여기 안 걸려 있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중대장님, 소대장님과 상담을 했을 때 간부님들께서 저에게 물어보셨습니다. “너 4급인데 현역으로 바꿨니?”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네” 라고 대답했고 왜 바꿨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군대가 궁금했고 한번쯤은 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원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다른 아픈 곳이 있을까봐 걱정하는 간부님들께 저는 시력이 안 좋아서 4급이었지만 수술을 받고 일반 현역들과 별 다를 거 없다고 말씀드려 걱정을 조금 덜어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무슨 훈련이든 열외 하고 싶지 않았고 하나라도 더 배우며 참여하고 싶었습니다. 대대전술훈

련동안 제대로 씻지 못한 채 주먹밥만 먹으며 느꼈던, 집과 가족에 대한 소중함과 사랑은 사회에 있었다면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군대를 온 것에 대해 후회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이라면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좀 더 편하게 생활 할 것 입니다. 하지만 군대에 와서 제 자신이 점점 변화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사회에 있을 때보다 하루하루 더 보람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자원병역이행자 체험수기 공모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이런 글을 써 볼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제 자신이 매우 뿌듯하고 신체가 안 좋아 현역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이 아닌 앞으로를 바라보고 과감하게 선택을 하라 말하고 싶습니다. 전우애를 느끼고, 나날이 발전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군대라는 조직은 사회 어디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움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20살의 첫걸음을 군대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군대는 제 인생의 굿 초이스입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만화부문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 자원입대한 병사들의 계급은 생활 수기 응모 당시의 계급임을 밝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

7공병여단 311대대 2중대
상병 선 윤 빈

나라시
CPR
사지방
FTX
중국에서 오래 살아서 군대 용어는 나에게 굉장히 낯설었고 이 때문에 군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군 생활 중 언어 때문에 헤매고 있을 때 옆에서 도와주시며 가르치고 이끌어준 선임이 있었다
나..나라시?
부대의 편의시설 이용 등 부대 운영에 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신 분도 선임이셨다
좋은 분들 많아서 다행이야
해외에 살았다는 것을 알고 챙겨주시는 모습이 나에게 큰 감동이었고, 좋은 선임을 만났다는 위안도 되었다

내가 미대생인 것을 알고 항상
그림을 배우러 오는 학구열 넘
치는 동기가 있었다.
나 그림 좀 가르쳐 줄수있니?
오호~
이럴땐 어두운 부분을 잘 찾아야해
그때마다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미술에 대한 지식을
아낌없이 알려주었다.
이렇게 하는건가?
그 순간 나는 날 찾아와서 그림
을 배우는 동기에게 작은 도움
을 주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느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구나

지금까지 내게 도움을 준 전우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며 어느덧 상병이 되어 입영 전 나와 달라져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그때 그런일이 있었지
아 그랬었나?

좋은 선임, 좋은 친구들을 만나 군 생활의 보람을 느끼며, 군대에 대한 나쁜 편견도 없어지고 앞으로 더욱 떳떳하게 조국을 지키는 대한의 남아로 국가에 헌신할 것이다.
요녀석!

나의 존재를 찾아서

6전대 정비대대
일병 나 일 주

나는 '복수국적자' 이다
비록, 출생지는 미국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이지만 유년 시절을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에서 보낸 내게 '복수국적' 이란 단어는 너무 생소하기만 했다. 그저 어리기만 했던 나는 뜻도 이해하지 못했고 단지 주변 사람들이 날 '복수국적자'라 부르기에 자연스럽게 내 자신을 '복수국적자'라 소개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내게 작은 질문을 하나 던지셨다.

"일주야, 엄마랑 미국 갈래?"

나는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렇게 나는 미국으로 떠나게 되었다.
외모, 관습, 언어, 건물, 심지어 향기까지 모든 게 낯설기만 한 곳이기에 도착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어머니께 한국으로 돌아가자고 어리광을 부렸고, 그런 모습에 어머니는 "괜찮을 거야, 우리 아들은 금방 적응할 거야."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시며 어린 나를 조심스레 달래주셨다.
어머니는 어떻게 알고 계셨던 걸까?
난 어느새 낯설었던 미국에 한층 가까워졌음이 느껴졌다.
나도 모르게 그들처럼 옷을 입고 말하고 학교도 다녔고,
영어가 한글보다 쉬워졌으며
어느새 한국 친구들보다 미국인 친구들이 더 많아져
좀 더 미국인과 가까운 모습으로 기울어져만 갔다.

하지만 내 실체는 여전히 희미하기만 하였다.
아무리 그들의 말투, 행동, 생각방식을 따라 해봐도
그들은 날 다르게 보았다.
아니 다르게 보였을 것이다.

그렇게 13년이 지났다.

그리고

나는

또 한번의 변화를 겪게 된다.

나는 병 767기로 2016년 8월 22일
군 입영을 하게 된다.

너무 오랫동안 미국에 있었던 것일까?
모든 게 낯설었다.
분명 어린 시절을 한국에서 보냈었는데
그 기억은 어디 가고 없는지 모든 게 처음으로 돌아간 듯 했다.
물론, 군 입대는 모두에게 낯선 경험이다.
하지만 난 내 동기들이 너무 낯설었다.
아무리 다들 머리를 밀어 외적으로 똑같아 보여도 그들의 말투,
행동, 생각이 달랐던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 나는... 누구인가?

당시에는 몰랐다.

지금 떠올려보니
그들은 나를 다르게 생각하지 않았다.
나를 당연한 한국인이라 생각하였다.
“만약 한국인이 아니라면 군 입대를 왜 했겠는가?”
라고 쐐기를 박았다.
그렇게 동기들과 6주 동안 땀을 흘렸고, 유격도 같이 했고,
뜨거운 포옹과 환호도 했고, 같이 웃고 울었고,
어머니가 차려주시던 밥과 많이 다른 음식을 먹기도 하였다.
어느 덧, 그들은 단순한 동기가 아닌 나의 전우였다.
아직 기나긴 군 생활이 남아있지만 모두가 회상하듯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군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것 이다.
그래서 그런지 난 군 입대 후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다.
“넌 복수국적자 잖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 안 갈 수 있었는데, 군대 간 거 후회하지 않아?”

이에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다.

“네! 후회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기 때문이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선임이 전하는 희망메시지 15선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 자원입대한 병사들의 계급은 생활 수기 응모 당시의 계급임을 밝힙니다.

선임이 전하는

희망메시지 15선

이번 체험수기 공모전에 접수된 116편의 원고 중 입영을 고민하고 있을 병역의무자에게 먼저 병역을 이행하고 있는 선임이 전하는 희망메시지를 모았습니다.

병장 **성요한**

우리는 '함께' 여서 할 수 있다.

애국심이라는 강인한 정신으로 무장된 저에게 훈련은 전우애를 느끼고 군인으로서 꼭 필요한 전투력과 체력을 발전시키고 증강시키는데 필요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전우애를 느낄 수 있었던 훈련은 전투뜀걸음과 유격 그리고 행군이었습니다. (중략)

저는 자원입대를 고민하거나 한국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군 생활은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거나 의미 없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신 분들의 정신과 가치, 대한민국에 대한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느끼고 가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훌륭한 애국이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상병 **이강은**

꽃은 진흙속에서 핀다.

어깨에 맨 상병이라는 직책만큼 내가 해야 할 일, 책임을 져야 할 무게가 점점 더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완전 군장을 매고 내딛는 첫 발걸음은 무겁기만 하다.

그러나 용기 있게 다음 발을 내딛으면 어느 순간 그 무겁던 몸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렇게 걷다보면 힘들던 행군도 끝에 다다르게 된다. 이제 나는 갓 걸음을 땐 행군 대열에서 열심히 나아가고 있는 중이다. 이 대열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그리고 끝점이 어딜 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긍정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내 발걸음은 멈추면 안 된다.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에 죽을힘을 다해 오늘도 내 발을 들고 있다. 마음 아프게도 지난번 꿈의 진흙 속에 떨어진 별은 꽃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제 신은 전투화를 다시 신고 또 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짊어진 짐은 무겁지만 나의 씨앗은 꽃이 되진 못해도 풀은 될 수 있으니 전투화를 신은 발은 가볍기만 하다.

상병 **왕건우**

대한민국 청년으로 다시 태어나다

영주권자로서 재외국민으로서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은 분명 보통 사람들과는 달리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청년으로서 국군의 군복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주권이 있음에도’가 아닌 한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명예이자 영예이며 소중한 배움이 될 수 있고 만약 누군가 저에게 입대날인 2016년 3월 7일로 돌아가서 다시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된다 하더라도 저는 망설임 없이 입대하여 군복무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저에게는 남아공에서 해온 습관과 행동이 남아있지만 저는 엄연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주권자가 아닌 한사람의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우리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돌격 !

상병 **이한솔**

내 인생의 초석을 다지다

군 입영을 하기 전부터 내가 세운 가장 큰 원칙은 21개월의 복무기간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것이었고 그것은 조국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입대를 앞두었을 때 용기는 충만하였지만 자신감은 미약했고, 의기는 넘쳤으나 다소 의기소침하였다. 하지만 ‘관계’에 대한 고찰은 군대가 아니라면 결코 쉽게 얻지 못했을 큰 공부였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15개월의 군 생활을 돌이켜 보면 군대란 단순한 병역의무의 완수라는 기쁨뿐만이 아닌 나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자원입대를 고민하며 망설이는 수많은 국외 영주권자 청년들에게 나는 선배로서 용기를 내어 입대를 결심해 보라는 말을 하고 싶다. 청년의 삶도 한 번이고 조국도 하나이다. 숱한 청춘의 이력 가운데 군대는 가장 빛나는 인생의 훈장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나 역시 입영하기 전에는 주변사람들에게 묻고 또 물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남의 가치와 판단에 따라 사는 것은 인생을 중고품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결국 나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한 군 생활, 나는 오늘도 이곳 초석부대에서 한 단계 미래를 위한 도약을 준비하며 내 인생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상병 **전영조**

나는 국가대표 육군이다.

앞으로 벌어질 나의 군 생활의 어려움도 값진 경험이라 생각하며 잘 버틸 것이다. 이제 나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 없이 낭비 하는 군 생활이 아닌 책임감 있고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군인이 되었다. 물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의 여부는 오로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이러한 생각들이 모여 나를 평범한 대한민국 육군이 아닌 특별한 대한군국 국가대표 육군으로 만들어 주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땀 흘려 태극마크를 단 것처럼, 나는 이 태극마크를 절대 하늘을 우러러 한 치 부끄럼 없이 자랑스레 여기며 생활할 것이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육군이기 때문이다.

일병 **조수헌**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의 군 생활은 캄캄하고 무의미한 시간으로만 남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일은 생각하는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듯이 군 생활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당당하게 외칠 수 있다 “나는 스스로 자원해서 군 입대를 한 것에 대해서 단 1%의 후회도 없고 오히려 입대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다!” 어느새 단풍이 빨간색으로 물들고, 하얀색이 온 세상을 덮은듯 하더니 꽃이 피고 나무가 다시 두꺼운 초록색 옷을 입었다.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우리 대대에서 1년을 지내왔다. 그 동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많은 좋은 일이 있었고 앞으로도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남은 군 생활이 내 인생의 반환점이자 둘도 없는 추억으로 간직되었으면 좋겠다. 군 생활이 정체(停滯)라고 생각했었다면 그것은 기우일 것이다. 나를 포함한 모든 전우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예전에 비했을 때 더 발전하고 참된 군인의 모습으로 군 생활을 하고 전역했으면 좋겠다.

상병 **이혜성**

처음이지만 외롭지 않은 길

21개월은 그리 긴 시간도 짧은 시간도 아닙니다. 병역에 대한 두려움이 많겠지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입니다.
저는 입대를 하고 많은 관심 속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자대 생활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재외국민 및 영주권자들도 병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일병 **양의성**

대한민국 군인 후회는 없다.

'너의 선택에 후회하는가?' 어느 날 문득 나에게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할 것이다. 나에게 이런 선택이 없었다면 나는 그저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삶에 지나지 않았다고. 우리나라에 대한 사명감을 잊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거라고.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삶이 아닌, 내 뼛속 깊은 곳에서도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 자신을 위해 이러한 선택을 했다고 미래의 누군가에게 대답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것을 잊고 살았다면 내 인생에 커다란 오점이 하나 새겨지고 평생 후회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이다. 나는 군대를 9개월 남짓 남아놓고 있다. 9개월 뒤에 나는 대학원에 들어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공부 한 후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민족통일에 이바지하는 멋진 대한민국의 한 사람으로써 살아갈 것이다. 이 순간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결코 쉬운 것은 없다. 하지만 이 사실 하나만은 기억하라고 하고 싶다. 우리는 모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민족통일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상병 **이영민**

나를 바뀌게 한 군

행군을 하면서 부모님의 소중함과 감사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냥 걷기도 힘든 40km를 완전군장으로 행군을 할 때 ‘지금 내가 메고 있는 군장의 무게는 아버지의 어깨보다 가볍고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은 어머니가 나를 낳으실 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구절처럼 지금 느끼는 고통이 부모님의 걱정과 마음보다 가벼운 것이기에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행군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차렷 자세도 모르고 거수경례도 모르고 바른 걸음도 몰랐던 제가 사격도 하고, 수류탄도 던지고, 적 진지를 탈환하는 각개전투는 물론이거니와 주야간 행군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군 생활에 대한 적응뿐만 아니라 실제 전투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밖에 있을 때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정말 신기하고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걱정만 앞섰던 과거의 저는 이제 없고 힘들고 고된 훈련이 이젠 걱정보단 자신감이 앞서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시련도 다 견뎌낼 자신이 생겼고, 어떤 훈련도 에이스 군인답게 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겼습니다.
스스로 삶에서 중요한 것들을 깨닫고 헛되지 않은, 오히려 변하게 된 저를 마주할 수 있게 해 준 시간에 감사합니다.

일병 **곽정현**

군대에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찍다.

흔한 말로 대한민국 남자라면 한 번씩 다녀오는 군대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길고 긴 인생에서 군대가 아니라면 과연 언제 어디서 또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동료와의 진한 우정을 느껴보고, 인생의 생생한 경험을 쌓아보겠는가? 물론 젊음의 절정인 시기에 1년 9개월이라는 시간을 군대에서 보내는 것은, 더군다나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 같은 전우들에게는 더욱 더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겪는 모든 과정들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받아들여,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소중한 교훈을 얻고, 좋은 성찰과 성숙의 시간을 갖는다는 생각으로 군생활에 임한다면 이는 결코 아까운 시간이 되지 않으리라 확신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갖고 싶은 청춘들이여~ 군대로 오라!

일병 **한상훈**

나에게 후회는 없다

군대에 입대하기 전부터 지금까지 모두에게서 계속 질문 받는 것 이 있다. 피할 수 있었던 군 복무, 자원으로 입대한 것 후회하고 있냐. 아니, 한번이라도 후회 한 적이 있냐. 나의 대답은 한결같다. 아니, 오히려 더 확고해졌다. 조금의 후회도 없다. 내가 태어난 나라, 예로부터 지켜 온 우리나라 국민의 국가.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만약 누군가 나에게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묻는다면. 나는 당연히 군대에 입대를 한다. 라고 말할 것 이다. 그 만큼 배울 수 있는 것이 많고, 지나온 인생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곳이 군대인 것 같다.

일병 **이송식**

기회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우리가 군 생활을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누구나 나의가족, 나의 친구들의 안위를 위해 국가를 지키는 것이고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군복무를 할 의미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저와 같이 선택에 기로에 서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저와 같은 선택을 하여 값지고 보람찬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순간에도 우리나라를 위해 나라를 지켜주고 있는 모든 장병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병 **최정진**

내 군 생활은 아직도 ing..

훈련소에서 기초적인 전투능력을 습득하고, 자대배치를 받아서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고, 보다 엄정한 위계질서 속에서 생활하면서 점점 입대하기 전 나약했던 모습은 잊혀가고 점점 군인다워지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회에서 사귀어보지 못한 사람들,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고, 그 속에서 인맥과 친분을 쌓고 있다. 군 생활속에서 힘든 날도 있을 것이고,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다. 그때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희망과 꿈을 품고 최선을 다한다면 시간이 흐른 후 멋진 미래로 다가올 것이다.

상병 **김동환**

사람, 그것은 인생 최고의 선물

지금의 내가 군대라는 곳에 만족하냐고 묻는다면 난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할 수 있다. 혼나더라도, 어려움이 닥쳐와 힘들어 눈물 흘릴지라도, 나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같이 나아갈 동료들이 있다는 이 느낌은 정말 무엇과도 바꾸기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훈련을 마치고 생활관에 돌아와 후임들과 같이 먹는 초코바는 정말 맛있었다.
다른 표현은 필요 없고 그냥 정말 맛있었다. 휴가 나가서 그 맛이 잊혀지지 않아 먹었을 땐 신기하게도 그 맛이 전혀 나지 않았다. 왜 그 맛이 나지 않았을까 분명 같은 초코바였는데 말이다. 그건 아마도,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전우와의 우정이 이 세상 그 어떤 소스 보다도 달콤한 드레싱이 돼서 그런 것이지 않을까. 오히려 지금은 군대의 시간이 더디게 갔으면 하는 생각도 든다. 장비를 들쳐 업고 도심지를 뛰어다닐 땐 서로의 등을 밀어주고 다시 내가 끌어주며 절대 동료를 혼자 두고 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종료된 후 전우들과의 담소와 라면 한 끼를 먹는 이런 경험은 국외 영주권자로서 해외에서는 절대로 느끼거나 배울 수 없는 색다른 경험이자 평생 기억에 남을 추억이라고 생각한다.

상병 **성시훈**

We go together

한미 훈련 때 매번 등장하는 문구 “We go together"에 대한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나는 그동안 군 생활을 하며 그 의미가 ‘결속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치 음악과 체육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목표와 의미는 같아 뭉치는 것처럼 말이다. 이것은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가 더욱 더 현역으로 지원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난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을 했고 한국군의 대한 자부심과 내가 그 일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참고 기다리고 노력하는 자에게 마지막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난 하루하루 한국군과 한국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 할 것이다. Fighting, we go together!

자원병역이행자 군 체험 수기 심사총평

국민의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 개개인이 살아가는 장소와 환경이 다를지라도 국민은 공동운명체다. 태생적 환경과 역경을 이기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랑스러운 이야기는 언어의 세련미, 문장의 수련도보다 현실적 체험에 따른 감동이 먼저다.

이번에 응모한 모든 작품은, 한 편 한 편 자신의 고통스런 선택이 나라에 기여함으로 뿌듯한 희망이 되었다고 말한다. 살펴보니, 단순한 문장의 구성과 산만하고 길게 표현하여 미흡한 부분들도 엿보였다. 그러나 어찌 조그마한 차이로 숭고한 마음들을 등위로만 매길 수 있겠는가. 모국을 떠난 지 오래되어 벅찬 언어의 장벽을 극복함은 물론, 자신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자아성취를 기록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일이다. 아쉬운 작품들이 많았지만, 심사기준에 따른 변별력으로 입상 작품을 선정했다.

1. 영주권 등 국외이주 부문

「내 마음속 살아있는 대한민국」은, 예비역 장교인 아버지의 감화를 받고 고심 끝에 입영한 내용이다. 군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시간을 아껴 자기 발전에 활용한 사례인데, 뚜렷한 주제의식과 병역기간을 인생의 한 과정으로 이해한 응모자의 마음 깊이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고양이 병사에게」는, 영주권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편지글 형식으로 담담하게 써내려간 글이다. 입영에 대한 강박관념과 편견을 지닌 자식을 둔 어머니가, 정 못지않게 강인한 아들로 키우려는 지극한 사랑과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담담한 문장으로 생생하게 그렸다.

「그리웠던 대한민국에서 후회 없는 '한' 결정」은, 과테말라에 거주한 국외이주자가 날아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고 심적 갈등으로 고민했던 도입부가 괜찮다. 아버지의 격려에 힘을 입어 모국에 대한 정체성에 동기부여하며 입영한 사례인데, 훈련과정부터 부대생활까지 잘 적응하여 삶을 새로 배우는 기회가 된 것을 조리 있게 마무리했다.

2. 질병치유/학력 변동 부문

「씩씩이」는, 고도비만체중으로 현역입영부적격판정을 받았으나 직업군인 출신 아버지의 성원으로 운동과 등산을 하여 정상적인 신체조건을 회복한 응모자가 입영해서 활기차게 적응해가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압축했다.

「그곳에 있던 자 그곳을 잊지 못하고, 그곳에 없던 자 그곳을 알지 못한다」는, 다소 긴 제목처럼, 이야기의 반전에 묘미가 있다. 운동선수가 비만으로 선수생활을 포기하고 방황을 했으나 체중감량에 성공하여 현역으로 입영했는 바, 자대 배치 후 긍정적 사고방식이 삶의 원동력이 되었으며 자신감이 생겼다는 내용으로 세상을 성찰하는 자세가 돋보였다.

심사위원 **이광복**(소설가·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최성배**(소설가·한국문인협회 이사)

대한사람 대한으로

자원 병역이행 병사 군 생활 수기 2017

발 행 인 병무청장 기찬수

편 집 인 입영동원국장 홍승미

발 행 일 2017년 8월

발 행 처 병무청 자원관리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TEL. 042) 481-2756 FAX. 042) 481-2979
www.mma.go.kr

제 작 사)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인쇄사업본부 063) 714-3967

입대한 날부터 전역하는 그날까지의
시간에 대한 보상이나 해답을 바라고 있지도, 기대하고 있지도 않다.
그저 떠내려가듯이 나아가다 언젠가는 내가 나라에 희생하고 있는
이 청춘이 보람됨을 느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지키고 있는 이 나라에는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권 병사 군 생활 수기 中

병무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www.mma.go.kr